금주 법구

기도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본래 완전한 진리의 공덕이
자신과 환경에 나타나게 하는 거울이다.
-광덕 스님-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 THE HYUNDAE BULKYO |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1월 21일 수요일(주간) | 제 344 호

뉴스속 뉴스 news in news

매달 헌혈하는 불자들

"헌혈은 단순히 피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보시입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계속 하겠습니다."

4-11년 동안 매달 1차례 꼴로 헌혈을 한 불자들이 화제다. 조계종 포교원에 근무하는 김한일, 성균관대 불교학생회 前 회장 임지훈, 인터넷에서 불교카페를 운영하는 정재준, 항공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유승혁 씨 등이 바로 그들이다. 생명나눔실천회에 따르면 이들의 헌혈기록은 개인당 적게는 50회에서 많게는 100여 회에 이른다.



11년전 동국대 불교학생회에 가입하면서 헌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김한일 씨의 경우, 헌혈을 너무 자주 한다는 가족의 걱정 때문에 혈액검사 통지서를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달되도록 했을 정도다. 김씨의 이러한 일편단심 헌혈봉사에 생명나눔실천회와 대한적십자사는 '생명나눔상'과 '적십자헌혈유공은상'을 주어 격려했다.

임지훈, 유승혁, 정재준 씨 역시 헌혈을 의뢰하는 전화를 받으면, "내 피를 나눠가진 누군가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바쁜 일과 중에도 적십자나 혈액원을 찾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감기약을 먹고 있다", "빈혈이 있다" 등의 핑계로 헌혈을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들 불자들의 자세는 헌혈인구가 극히 적은 불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생명나눔실천회에 헌혈봉사단이 조직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개신교나 가톨릭 등과 비교해보면 헌혈 인구는 극히 미미하다. 서울 강북지역의 헌혈자들을 관리하는 동부혈액원에 따르면 2000년도 종교인 헌혈인구 7천8백여 명 중 개신교가 87.7%, 가톨릭이 12.2%인 반면 불교가 0.1%로 가장 미약하다. 이는 각 사찰별로 헌혈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신도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헌혈에 대한 보수적인 경향 때문이다.

김한일 씨는 마음갖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헌혈은 건강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예요. '작은 몸보시'가 될 수 있으니 많은 불자들, 특히 젊은 불자들이 적극 동참했으면 해요."

오종욱(취재 1부 기자)

장 군 죽 비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30일 출범. 군승단 창설 33년만에 조계종단 차원에서 군포교 기틀 새롭게 마련. (2면)

◇'가산삼학총서' 세상 속으로. 고전을 준거로 한국 불교의 수행풍토를 쇄신한다. (3면)

◇국립공원 보존을 위해 스님 · 시민단체 마음 합쳤다. 산천초목이 곧 부처임을 일깨우는 계기 되기를…. (9면)

◇우리는 지금 '밖'으로 돌아간다. 실상사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환경농업교육장 개설. (22면)

"불교문화, 관광자원의 꽃"

관광공사 선정 우수 지자체 사이트 불교유산 소개

관광자원으로서의 유형문화재 부문에서도 역시 불교문화재가 핵심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지자체 관광사이트 컨테스트'에서 베스트 5에 선정된 '서울문화관광(www.visitseoul.net)', '충북문화관광(www.cbtour.net)', '대구관광문화정보(tour.daegu.go.kr)', '제주도관광섹션(www.jeju.go.kr)', '사이버 울산(guide.metro.ulsan.kr)' 등에 수록된 관광정보 가운데 유형문화재 부분의 20~70%가 불교문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문화의 상당부분을 불교문화가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불교계에서도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불교 포교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더군다나 불교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교계차원의 정보 관리가 미미한 상황에서 이들 사이트의 내용과 응용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들 사이트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버전을 갖추고 있어,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스트 5 가운데 충북의 경우는 진천 · 음성 · 충주 등 11개 지역별로 총 195개의 사찰에 대한 유물 유적, 교통, 주변관광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체 국보 · 보물급 문화재 가운데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재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권역별 · 주제별 관광코스 등에서 불교문화재와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 대구도 소개하고 있는 문화재의 약 43%가 불교문화재였다. 그러나 불교문화재에 대한 내용 소개가 너무 개략적이라는 점이 아쉽다. 울산지역의 경우도 전체의 약 24%를 불교문화재가 차지했으며, 시티투어에도 불교문화재를 포함시킨 코스를 상품으로 내놓았다. 서울은 약 26%가 불교문화재였으며, 사찰과 연계한 선(禪)과 다도 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초파일 연등축제, 봉원사 영산재, 지구촌 등축제 등을 중요 문화행사로 소개하고 있다.

지자체의 관광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긴 하지만, 그런 행위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의 실체를 접하게 하고, 수준 높은 관광자원의 개발측면에서도 불교문화재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지자체 관광 사이트 베스트 5 선정을 계기로, 교계에서도 불교포교의 가장 효율적인 방편이 될 불교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드러내어 보일 것은 적극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것이 최선의 보존행위가 되게 하는 방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apa.com



산사의 겨울준비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로 산사마다 겨울 채비가 한창이다. 많은 사찰들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겨울 날씨에 2~3주 빠르게 김장을 담그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도 16일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김장을 담궜다. 봉선사= 고영배 기자

되살아나는 인도불교

대개종 이후 정치 · 사회적 큰 반향

불교병원 · 테마공원 추진

지난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대개종식 이후 북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중흥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4일 개종식 이후 인도 유수의 민영 뉴스채널인 '스타뉴스'가 30분짜리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전국의 신문들이 일제히 개종식 사진과 기사를 1면 중요기사로 보도하는 등 불교에 대한 기존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부문에까지 확산되는 등 인도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로드 붓다 클럽'(대표 우디프 라즈)은 힌두 원리주의 단체들의 방해로 개종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90만여명의 불가촉천민들을 위해 지역별로 개종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비하르 불교도 협회'(대표 까루나 끼르띠 스님)는 더 많은 천민들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도록 포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하라슈트라주 나그뿌르 불교도들은 최근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당을 건립하고, 불교병원, 불교테마공원 조성에 나섰다.

☞관련기사 22면

인도 뉴델리= 이지은 통신원

조계종 신도교육 본격화

13일 기본교재 고불식 열려

기본교육이 의무화된 데 이어 내년부터 전문교육 시행령이 발효되는 등 조계종 신도교육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은 13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포교원장 도영스님과 총무부장 원택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기본교육 교재 고불 및 신도교육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신도기본교육 실시에 들어갔다.

캠페인 선포문 낭독, 신도기본교육 교재인 〈불교입문〉 고불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선포문 낭독을 통해 "조계종 신도는 기본-전문-지도자-재교육의 교육체계를 통해 신도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신행상과 종단상을 창출해 나가자"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포교원은 이날 포교원 회의실에서 전국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열고 올해 안으로 신도 전문교육 시행령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진각종 혜일 총인 29일 추대법회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제9대 총인 혜일 종사 추대법회를 2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진각종 총인원에서 봉행한다. 추대법회에는 각 종단대표자와 정 · 관계인사등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혜일 종사는 지난 10월 19일 진각종 제327회 중앙종의회와 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인에 추대됐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a.com

지역불교 문화기행

11월 : 관촉사 · 고란사 · 개태사

백제불교 문화를 찾아서

반야산 기슭에 자리잡은 관촉사에서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고려시대 최대의 석불입상인 은진미륵(보물 제 218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머리의 화불(化佛)이 내는 황금빛이 하도 밝아서 중국 송나라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불하면서 절 이름을 '관촉사(灌燭寺)'라 지었다고 합니다. 이번 문화기행에 참가하여 관촉사를 참배하시면 사찰의 이름에 걸맞는 불상의 장중함에 탄성이 저절로 나오실 것입니다.

낙화암 아래 좁은터에 오롯이 서있는 고란사 법당을 참배 하고 뒤쪽 모퉁이로 돌아가서 물맛이 좋아 왕에게 진상했다는 약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태조 왕건이 삼국통일에 대한 불은(佛恩)에 보답코저 건립했다는 고려국찰 개태사도 참배합니다.

- 출발: 11월25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 회비: 4만원(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예금주 선정호)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개시

【 누구에게나 발행되는 상업적 목적의 카드가 아닙니다.
오직 불자님께만 발행되는 불교복지 카드입니다.
소멸 쓸수록 불어나는 보시공덕 이러한 이웃행위가 불법홍포의 방편으로 전달 됩니다 】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pa.com

하나은행비자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은행이나 기타 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지정된 이내의 한공서비스를 유칭하여 5천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록세미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지급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경식아동돕기 등 이웃 돕기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관심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행소니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초기 연회비 면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영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사 설

군포교 지원계획 세우라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군불교위원회가 30일 대전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우리는 이 위원회가 군 불교 중흥을 위한 장기적인 초석 다지기 위한 모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군승단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창설되었다. 군목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군 선교에 열중하고 있을 때 늦은 감은 있었지만 군승제도를 만들어 군 포교에 새장을 마련했던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군 포교에 전념했던 군승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불안한 종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 포교의 오늘이 가능했던 것이다.

군 포교를 전담하는 군승제도는 그 역할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군승요원의 절대부족이다. 동국대 불교대와 중앙승가대 출신으로 그 자격요건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지원자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 둘째는 군승들의 군무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군승 한명이 일개 사단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가 과중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신분이 불안하다. 군승들이 군대의 일원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종단에서 파견된 승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대와 동시에 그들은 일반인이 되어 종단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넷째 군 포교에 종단의 장기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군 포교는 종단과 무관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이란 특수영역을 포교하는 만큼 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비역 군법사와 유관 승려들, 그리고 현역 군승단 지휘부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포교원은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종단차원에서 군 불교 진흥을 위한 장기 계획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포교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외에 다른 불교대학 출신들에게도 군승의 문호를 개방하는 일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도교육에 달린 미래불교

사부 대중이 모두 각각의 위상을 지니고, 스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도들이 불교의 주체가 될 때 불교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불교 중흥을 위한 대전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재가자들은 출가자들의 들러리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교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경향은 출가자들이 사부 대중이라는 네 기둥이 바로 서야 불교가 바로 선다는 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출가자 중심으로 교단을 운영하는데서 오는 편의성에 안주한 탓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재가자들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을 실현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시대와 동떨어진 종교로 만들며,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불교 교단의 힘을 위축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신도 수에 걸맞지 않은 낮은 위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불교의 모습이다. 그렇기에 한국불교의 대표적 종단이며 어느 종단보다도 출가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계종에서 신도교육을 강화하기로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소식은 어느 소식보다도 반갑다.

조계종이 13일 가진 '신도기본교육 교재 고불 및 신도교육 캠페인 선포식'은 이제 질 낮은 신도 위에 편안히 군림하는 종단의 모습을 벗고 참된 사부대중의 교단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기본 교재를 펴내며, 지도자용 교안을 마련하고, 또 전문교육을 위한 시행령을 확정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조계종의 신도교육에 대한 인식과 결의가 확고함을 말해주기에, 그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신도교육은 불교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러하기에 탄탄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캠페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스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스님들의 신도교육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하기를 당부한다.

군불교 위원회 30일 출범

포교전담 상설기구

체계 · 조직적 업무 기대

군 불교를 전담하는 종단의 공식기구가 출범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스님)은 군승의 날인 30일 오후 5시30분 대전 계룡대 무궁화 회관에서 '군불교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이번 군불교위원회의 출범은 군승단 창설 33년 만에 처음으로 종단 산하에 군 포교를 위한 전담상설기구가 설치된다는 점에서, 향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 포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단 산하기구로서의 군불교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3월 개정된 포교법 제7절 '군불교위원회는 군 포교 업무를 총괄하는 포교원 산하기구'라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군불교위원회는 군 불교 전반에 관한 행정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산하에 상임회의 및 실무운영회의를 설치해 군 포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따라서 군법사들은 예산확보나 후원회 조직 및 제반 행정업무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어,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이와 함께 군불교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군법당 운영규정과 군승활동 평가 규정 마련, 군 불자 신도등록 사업을 벌여나가는 한편, 시행규정 및 세부 운영 계획은 출범 이후 점차적으로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군불교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포교법 제7절에 위원장 자격을 '군포교의 원력과 경험이 있는 현역 군승이 아닌 비구'로 명시하고 있어 일단은 예비역 군승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포교원 박정규 계장은 "지난 2월 군승단 해체 이후 군 포교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아래 포교원과 군 포교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군불교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군 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현대만평 김 영 민



힘 받는 군불교

"조계사앞 복합건물 반대"

조계종 중앙종회 결의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는 13일 속개된 152회 종회에서 2002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 154억8천여만원을 원안대로 처리했다.(관련기사 3면) 또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로 이관하여 심의한 후 차기 종회에서 처리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종회의원들은 조계사 앞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회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조계사의 전통 유산과 주변 환경이 보전되도록 범 종단적인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경찰포교활성화 논의

26일 대전서 경승총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6일 오후 3시 대전 대덕단지 내 룻데호텔에서 '경승총회 및 경승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원 대법회'를 연다.

이번 총회에서는 경승단칙 제정과 경찰포교 활성화 방안 논의, '경찰포교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명상초청 특강 외에 종교화합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사회안정과 경승활동 활성화를 발원하는 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주일기자



◇진각종은 12~13일 총 554명에게 보살십선계를 수여했다.

진각종 보살십선계 554명 수계

청장년층 절반이상 차지

진각종은 12~13일 서울 탑주심인당과 대구 희락심인당에서 진기55년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 서울계단에서 154명, 대구계단에서 400명 등 총 554명에게 보살십선계를 수여했다.

각해 총인을 비롯, 지회심 복선정 대종사등이 증명아사리로 참석한 가운데 수계자들은 일정 갈마아사리로부터 금강선을, 도흔 전계아사리로부터 금강수를, 지광 교수아사리로부터 계첩을 정대해서 받고 부처님 정법을 실천, 불퇴전의 정진으로 불도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수계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77명, 40~50대 190명, 20~30대 287명으로 청장년층이 전체 수계자 554명 가운데 절반이 넘어 진각종이 그동안 추구해 온 청장년층 대상 포교가 점차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도권 수계자수는 지난해(175명)보다 줄어든 반면 지방의 수계자 수는 지난해(320명)보다 12.5% 증가해 지방의 교화 활성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기자

승가학풍 주제 세미나

30일 중앙승가대 대강당

중앙승가대가 '승가학풍 수립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30일 오전 10시 학교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이 '승가학풍 수립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가 '불교학의 바람직한 방향-인문학과 불교학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중심으로'에 대해,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가 '승가학풍의 사회과학적 의의'에 대해, 종석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이 '승가학풍이 승가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한명우 기자

한글 대장경 보급 공로

동국대, 본사에 감사패

동국대학교 송석구 총장은 지난 16일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한글대장경 보급에 활기를 불어 넣은 공로로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연태 기자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현대불교를 구독하여 주시는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가 지로용지를 들고 은행에 가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 고객부로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구독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 해지 방법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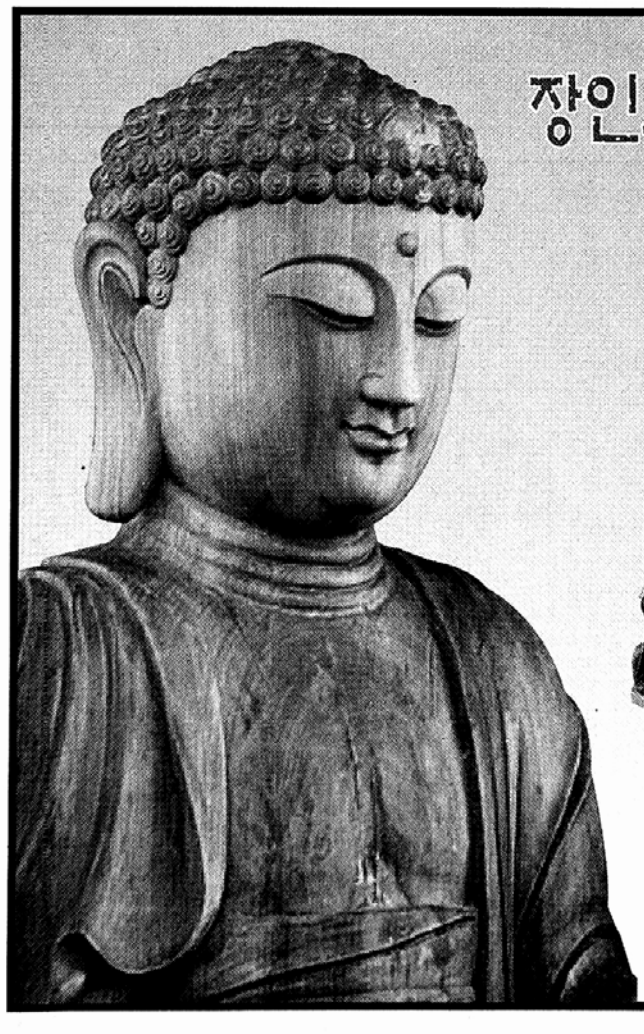
대상 은행	결제 조건	이체 희망일
농협을 포함한 모든 은행(단, 우체국 수협은 제외)	예금 잔액이 구독료 보다 적을 경우, 통장에 넘어 있는 만큼만 납부됩니다	매월 5, 15, 25일 중 선택

②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자동이체 되므로 신청 당월 구독료는 지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전화 : 02)737-0090,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장인의 혼이 담긴 목조각작품

성불조각원





◦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 성불조각원은 모든 작품을 옛 전통기법으로 재현 합니다.
◦ 사찰에 필요한 모든 목조각을 주문 제작 합니다.

취급품목: 목불상, 사천왕, 16나한, 500나한, 법상, 가마, 불전함, 경상 등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번지

문의전화: 033-263-1102 • 017-379-0590

전국대리점 모집

목어

인식전환과 해탈



만추(晩秋)! 겨울이 시작되는 쇠락의 계절이다. 무성했던 욕망이 서서히 그 껍질을 벗어 던져야만 하는 나목(裸木)의 계절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그동안 충만했던 기운이 희망이요, 복(福)이요, 덕(德)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훨훨 벗어 던질 때 희망, 복, 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은 해탈(解脫)이라고 했다.

인간의 문화는 정신문화와 과학기술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과 정신문화의 병행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정신문화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삶의 행복감, 사회정의, 안정감이 이룩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기 과학기술 위주의 사회가 정신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할 수 있도록 값진 정진을 해야 한다.

역사의식이 결여되고 문화정신이 결핍되면 미래지향적 사고와 사유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상황을 살펴보면 망각되고 부정된 역사의식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적 갈등구조가 그대로 사회에 투영되어 어떤 것이 이질적 요소이고, 본질적으로 지향해야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해 불신만 양산시키고 있다.

지구촌은 새롭고 도전적인 급변의 질서에 대처해 나갈 지혜와 용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동서남북의 그물짜기식 변화의 와중에서 민족정신의 근원과 본질이 망각되지 않으면서 세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급의 많은 보살들이 출현하여 사회질서 재편에 그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군가가 처음 시도했더라도 전체를 이끌고 가는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목의 깨벗은 혹독한 겨울이 오히려 새봄의 새 잎, 꽃, 열매를 이끄는 해탈의 길일 것이다. 바로 지금, 화합과 해탈을 위한 사회전체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용길(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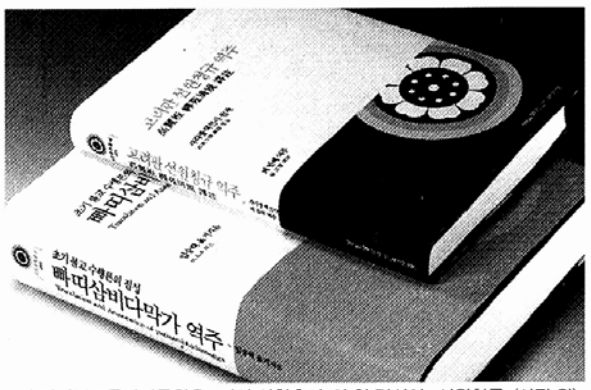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가산불교연구원 '삼학총서' 발간

첫 결실 '선원 청규' '빠띠비다막가' 2권

"10년간 20권 목표" 23일 창간기념 법회

불교대사림 권4 나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가산 삼학총서>의 첫 결실인 <선원청규>(사진 위), <빠띠비다막가>(아래)를 13일 내놓았다.

팔만사천의 부처님 말씀 가운데 수행의 요체가 되는 고전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가산삼학총서〉의 첫 결실로 대중 규범서인 〈선원청규〉와 초기불교 수행론을 집성한 〈빠띠비다막가〉 등 2권을 13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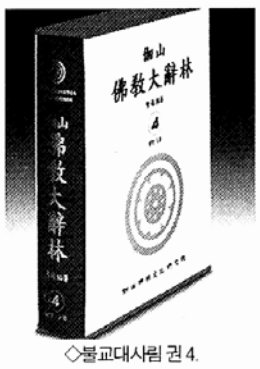
연구원이 1992년부터 기획해 온 〈가산삼학총서〉 편찬 작업은 수행자라면 반드시 닦아야 할 계(戒) 정(定) 혜(慧) 삼학 중 수행의 전범으로 삼을 만한 고전 20권을 뽑아 우리말로 번역하고 주석을 다는 일이다.

앞으로 10년간 진행될 이 작업은 연구자 공모를 거쳐 한문본, 티베트본, 산스크리트 본 수행 논서 9권에 대한 번역 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이번에 첫 2권이 출간됐다.

〈삼학총서〉는 산스크리트어나 한문 원전을 우리말화 했다는 데 우선 의미가 있다. 기획실장 현원 스님은 "17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승가 및 교단 대중이 소의(所衣)하고 읽어낼 삼학의 고전, 즉 수행론서 및 율장이 없음을 주목하게 됐다"며 "〈삼학총서〉는 인류 유산 가운데 최상의 가치를 지닌 수행의 전통과 방법론을 대중화하는 작업"이라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런 취지는 처음으로 내놓은 〈선원청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선종의 승풍을 진작시킨 대중 규범서인 〈선원청규〉는 수행자들의 이상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의 실체를 보여준다. 저본으로 삼은 〈고려판 중첨족본 선원청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청규로, 송나라 때 종색 스님이 간행(1103년)한 것을 고려 고종 41년(1254)에 복각한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돼 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규란 말이 선종의 선원에서 수행에 대한 물음 120가지는 수행자라면 누구나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다뤄 실참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불교대사림 권 4.

한국불교사에서 최초의 '한국불교대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가산불교대사림〉(전 15권 예정) 4권도 이번에 함께 나왔다. 연구원은 또 한국불교 지성사를 정리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1600년 한국 불교사를 밝혀온 불교 지성 33인을 골라 선정하고 한 사람씩 연구 발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은 〈가산삼학총서〉 창간과 〈가산불교대사림〉 4권 출간을 기념하는 법회를 23일 오후 6시 30분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연다. 이 모든 작업을 이끌고 있는 원장 지관 스님이 한국 불교학을 정리하는 데 평생을 바친 공로로 지난 달 은관문화훈장을 서훈받은 것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경직성 비용 줄이고 사업비 늘려

조계종 내년예산 154억 8천만원 확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12일 2002년도 조계종 예산 154억 8천여만원을 확정했다.

올해 조계종 예산의 특징은 긴축예산의 기조 속에 경직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사업예산을 증액 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경직성 예산인 기관운영비(9억4천여만원)는 전년에 비해 28% 감소했으며, 사업비(49억4천여만원)는 12.3% 늘어났다.

교육·포교에 역점 편성

또 교육·포교에 역점을 두는 종단의 지표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했다. 총무원이 1.1% 증가한 63억8천여만원으로 인건비 증가를 제하면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반면, 포교원은 20억 2천여만원으로 7.2% 증가하고, 교육원은 41억1천여만원으로 수치상 3.1% 감소했으나 승가대 지원비가 줄어들어 사업예산은 증가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올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6억원에 템플스테이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고, 봉교역사문화·보존을 위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예산 5억원이 특별 편성됐다. 중앙승가대 이전에 따른 건축비도 적립 및 이월금과 합해 미지급금 100억원중 50억원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예산을 기능별로 나누면 사업비 49억5천여만원(32%), 보조금 43억3천여만원(28%), 특별회계전출금 25억5천여만원(16.5%), 인건비 26억5천여만원(17.1%), 기관운영비 9억9천여만원(6.4%) 등이다.

사업별 예산은 법계법 시행, 종무행정 강좌개설, 승적정비 등의 예산에 30억여원, 중앙종무프로그램 개설, 종단홈페이지 활성화등에 5억2천여만원, 사찰예결산 관리전산화, 미등록사찰 재산등기 등에 3억7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사찰문화재 조사, 성보재산 전산화에 4억3천여만원, 사회복지재단 보조금과 남북불교교류등의 사업에 8억1천여만원, 훼불방지 및 단속강화에 1억1천여만원, 교육원 40억8천여만원, 포교원 20억2천여만원, 중앙종회 4억2천여만원을 책정했다.

본·말사 분담금 30% 인상

한편, 조계종은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1억6천여만원이 감소, 2천여 본·말사가 부담하는 중앙분담금을 각 교구별로 30%(7억1천여만원) 인상했다. 조계종 예산에서 항목별 분담금 비중은 본·말사의 중앙분담금이 20%, 직할분담금 3.5%, 조계사 보문사 선본사가 부담하는 직영분담금 26.4%,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봉정암 보리암 낙산사 석굴암 내장사가 부담하는 특별분담금 16.5%, 관람료사찰 분담금 18.4%, 미수분담금 6.5%, 기타수입 8.6%등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스님과 신도 자발참여 교육의 질 향상 관건"

신도교육 실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신도교육 실시의 취지는.

"신도교육은 기본-전문-지도자-재교육 네 단계로 구성돼 있다. 불자들이 이 체계에 따라 불교를 제대로 배우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특히 기본교육은 불교에 입문한 불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수행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전법도 할 수 있다. 전문교육이나 지도자교육, 재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불교를 계속 공부하고, 또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불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찰마다 천차만별인 신도교육을 통일해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적도 있다. 어떤 절에 가든 똑같은 교재로 배울 수 있게 돼 초심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할 것이다."

◈6월부터 8월까지 35개 사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시범실시를 했던 사찰이나 신도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특히 신도들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어떤 사찰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함께 접목시키면서 효과를 배가시키기도 했다.

불자라면 누구나 일정 교육 받아야

하지만 문제점도 드러났다. 일부 사찰에서는 스님이나 신도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례대로 해오던 교육방식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인식이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도교육의 성패는 스님들의 참여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한 문제지만, 신도들을 어떻게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느냐는 스님들의 몫이다. 이달말부터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그 지방 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충분히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많은 스님들이 신도교육의 참뜻을 이해하고 따라줄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신도교육이 의무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스님과 신도들의 자발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교발전은 요원해진다. 스님과 신도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찰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늘려나갈 생각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신도들이 많은 사찰일수록 신행과 포교 등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訃 告

梵魚門徒 東林寺 祖室 寒山堂 華嚴大禪師 十一月 十日(陰 九月二十五日) 午後 四時 三十分
金海 神魚山 東林寺 拈 華室 入寂以訃告

● 永訣日時 : 佛紀 2545年 11月 14日 ● 永訣式場 : 金海 神魚山 東林寺 ● 茶毘場 : 金海 神魚山 東林寺 茶毘場

• 證 明 혜암, 서옹, 서암, 월하, 석주
• 顧 問 고산, 관응, 금산, 능가, 덕명, 도견, 도천, 도헌, 범룡, 법전, 벽암, 보성, 성수, 원담, 월인, 응담, 지종, 지관, 천운, 청화
• 護 喪 지백
• 指導委員 계전, 녹원, 담연, 대성, 대정, 도근, 도문, 도우, 도원, 무근, 무진장, 반월, 백운, 법룡, 법륜, 법정, 봉주, 선래, 선용, 설정, 성오, 성현, 송담, 수월, 승산, 양국, 양익, 영공, 영환, 오본, 원경, 월서, 월용, 월운, 월주, 일미, 일출, 정견, 정관, 정대, 정영, 정일, 종산, 종환, 지원, 지하, 지혜, 진제, 창도, 철응, 초삼, 향국, 향운, 현성, 현호, 혜관, 혜운, 혜정, 호연, 홍원, 활안, 휴정
• 葬儀委員長 지유
• 葬儀副委員長 홍교, 성오, 성현, 선래, 여현, 몽산, 혜관, 덕민, 무비, 조연
• 葬儀委員 각명, 각우, 거해, 경륜, 경민, 경선, 계호, 관조, 광탄, 근일, 금종, 능산, 다정, 대원, 덕윤, 도각, 도공, 도문, 도영, 도완, 도원, 도후, 도후, 동성, 동욱, 동파, 마근, 만성, 몽산, 무설, 무아, 무애, 무이, 범산, 범종, 법동, 법등, 법문, 법보, 법성, 법성, 법성, 법안, 법장, 법의, 법조, 법찰, 법현, 법화, 보광, 보선, 본각, 상운, 선각, 선광, 선재, 선파, 설곡, 설송, 설파, 성관, 성덕, 성산, 성오, 성조, 성타, 세영, 세민, 송하, 수환, 수현, 양산, 여연, 영담, 영배, 영우, 영조, 영진, 완호, 우담, 운달, 원공, 원담, 원명, 원범, 원우, 원정, 원타, 원타, 원택, 원행, 월상, 월우, 유광, 유정, 의정, 인걸, 인묵, 일면, 일법, 일석, 자승, 장곡, 장산, 장윤, 장적, 장주, 정각, 정견, 정건, 정광, 정념, 정락, 정만, 정야, 정우, 정인, 정휴, 종걸, 종고, 종림, 종삼, 종상, 종하, 주용, 즐원, 지관, 지광, 지명, 지문, 지연, 지욱, 지운, 지원, 지원, 지종, 지현, 지형, 지홍, 지환, 지황, 진각, 진관, 진만, 진명, 진원, 진허, 청강, 청화, 탄우, 태공, 태봉, 평상, 학담, 해주, 향적, 현각, 현고, 현문, 현봉, 현엽, 현응, 현지, 현해, 혜산, 혜운, 혜원, 혜일, 혜정, 혜창, 혜총, 화범
문 백, 최경조, 박연차, 유대춘, 허종렬, 김영일, 송은복, 박용일, 정용상, 박태문, 안병준, 명재선, 백영현, 박연구, 정재운, 강복희, 김용환, 조영구, 신현웅, 김정수, 민병태, 강호용, 문기학, 배종태, 김정권, 이병목, 박인대
• 執行委員長 대성
• 執行副委員長 덕일
• 執行委員 지현, 청핑, 보륜, 법창, 법화, 청파, 법완, 일경, 도영, 송하, 탁일, 동파, 선파, 의정, 영파, 봉파, 월상, 청파, 신풍, 종파, 기홍, 능산, 경봉, 지허, 주일, 대현, 성화, 해보, 정광, 만법, 법장, 원각, 해공 김해사암연합회 대중, 가락불교청년회, 가락불교거사림회, 기사불자자비회, 김해교사불자회, 김해불교자원봉사단
• 都 監 석공, 정현, 각명
• 乘 法 지원, 진관, 진욱, 원정, 설곡, 선재, 진명
• 儀 典 한파, 원공
• 知 賓 지연, 정여, 상운, 정만, 원정, 정야, 지종, 법일, 홍산, 범어사 선원대중
• 侍 者 석산外 강원대중, 중앙승가대 학인, 동국대 석림회
• 財 務 성남
• 上 座 혜향, 지족, 혜원, 보타, 선공, 고담, 월주, 송강, 정안, 도관, 불공, 능혜, 철우, 대응, 광수, 혜산, 덕수, 법우, 공행, 도현, 월인
• 弟 子 홍산
• 孫 上 座 법용, 진수, 재한, 자현, 화봉, 보각, 석강, 돈오, 돈각, 보운, 심진, 수일, 지월, 보승, 돈수, 덕인, 선법, 월담, 지장, 지허, 지용, 일휴
• 曾孫上座 법봉, 정봉

梵魚門徒 東林寺 祖室 寒山堂 華嚴大禪師 門徒葬 葬儀委員會

人事말씀

梵魚門徒 東林寺 祖室 寒山堂 華嚴大禪師의 永訣式에 元老大德스님과 宗團의 큰스님 그리고 四部大衆을 모신 가운데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紙面으로 심심 감사의 人事를 드립니다.

寒山堂 華嚴大禪師 葬儀委員會
葬儀委員 執行委員 門徒一同 合掌

49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49재	장 소	일 시	연락처
초재	김해 동림사	11월16일 (음10월2일)	(055)337-0001
2재	서울 대흥사	11월23일 (10월9일)	(02)482-1122
3재	선산 문수암	11월30일 (10월16일)	(054)474-0615
4재	김해 장유암	12월7일 (10월23일)	(055)329-2799
5재	14교구 범어사	12월14일 (10월30일)	(051)508-3127
6재	거제 금수사	12월21일 (11월7일)	(055)635-4837
49재	김해 동림사	12월28일 (11월14일)	(055)337-0001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일주문



재소자에 다과 공양

현성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스님은 12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모범 재소자 50명에게 다과회를 열어주었다.



금련유치원 상량식

자용 수국사 주지는 15일 금련유치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금련유치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5백여평 규모로 지어진다.



정토마을 불상 점안

능행 청원 정토마을 원장은 16일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을 초청, '법당 아미타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경주병원 약사협시불 점안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4일 동국대 부속 경주병원 약사전에서 약사여래 협시불 점안식을 가졌다.



성지순례 기획사 열어

조인석 한라불교 상무이사는 10일 불교성지순례 전문대행사인 다도문화기획 · 투어 사무소를 열었다. (064)724-1185



미전 심사위원에 위촉

박명순 동국대 사대부중 교감(한국미술협회 이사)은 14일 제2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장학금 5백50만원 전달

김흥국 불자 가수는 17일 여의도 관광호텔 무궁화홀에서 김시엽외 10명에게 장학금 5백50만원을 전달했다.

"문화재는 제자리 있어야"



석조 문화재 기증 이화자 씨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은 세월의 단절과 아픔을 넘어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 그 숨결이 이어져야 합니다." 조선시대 석조 문화재 40점을 15일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문화재청에 기증한 재일동포 이화자(73)씨. 그동안 개인적으로 석탑과 석등을 수집해온 이씨가 이번에 기증한 문화재는 5층 석탑과 사자석등, 동자석 등이다. 1928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이씨는 68년 일본으로 건너가 나고야에서 한국미술품 전문화랑 '이화(梨花)'를 운영하며 틈틈이 우리 문화재들을 모아 왔다. 여수령 기자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사진 좌)이 한국복지재단 김석산 회장에게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심장병 기금' 1억 전달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16일 심장병어린이 돕기 후원기금 1억원을 한국복지재단(회장 김석산)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1억원은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마음선원 합창제에 참여한 불자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9천1백여만원과 한마음선원의 후원금을 더한 것이다.

기금을 전달한 한마음 선원 주지 혜원스님은 "질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어린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수 있도록 후원기금을 잘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산 한국복지재단 회장은 "아픈 중생을 위해 수많은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모금한 돈이 니만큼 심장병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4면) 김두식 기자



동산반야회 창립 19돌 법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0일 동산불교회관 2층에서 창립 1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前 포교원장 무진장스님, 정토사 주지 설산스님, 건봉사 조실 법천스님 등 400여 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권탄준 교수의 기념강연에 이어 동산인의 밤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불교대 아카데미 입학식

전주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5일 제1기 불교아카데미 입학식을 거행했다.

3개월 단기과정의 초심자를 위한 불교강좌인 불교아카데미는 불자예절, 불교의식, 사찰의 구조 등과 근본불교, 한국불교, 대승불교, 불교와 동양사상, 기도와 생활, 선사상 등을 강의한다.



조동종 단기 연수회 개최

조동종 총무원(원장 심월)은 8~10일 경기도 화성 보문사에서 120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7차 단기 중앙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조동종 종정 지명스님이 '계율'에 관해, 총무원장 심월스님이 조동종의 정통맥에 관해 각각 강의했으며 종단 현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강진군 공무원 불자회 창립

전남 강진 군청불자회 및 경찰불교회가 14일 군민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대둔사 주지 보선스님, 강진사암연합회장 혜일스님 등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군청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불자 82명이 활발한 신행 활동을 서원했다.

"중단된 불교회관 완공 돕겠다"

대구사원련 신도회 초대회장 이정애 씨



"건설 도중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됐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불교회관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 신도회 창립법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정애씨(55 · 보은통상 대표)는 "신도회 출범은 이제까지 스님 중심으로 운영됐던 연합회를 사부대중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단체로 바꿔 놓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불교 대중화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불교회관이 개관되면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예술과 문화재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과 자료실 등을 설치, 시민들이 손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 중 · 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던 이 회장은 "중국에서 전래됐던 선불교의 전통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남아있어 한국 불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외포교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이정애 회장은 경북여고, 이화여대,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0여년전부터 의류유통업체인 보은통상 대표로 있다.

한편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1981년 대구지역 조계종 각 교구 및 선학원 말사 41개 사찰의 주지스님으로 결성된 사암연합회로서 불교대구교육원,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등을 설립 또는 위탁운영해 왔으며 현재 100여개 사찰이 가입해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화 그리며 심신 하나 됐어요"

한국문화체험 지애 스님



"불화와 단청을 하면서 자연스런 마음과 부드러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주최로 열린 제2회 외국인 수행자 한국문화체험에 참가한 지애스님(Somaraki Mana, 그리스)은 "프로그램 가운데 선암사 불화체험이 가장 인상이 남는다"며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 마치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은 듯 기쁘다"고 말했다.

지애스님은 "이번 한국문화체험 행사로 한국사찰문화의 진면목을 느끼게 됐으며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며 "한국선방에 들어가 참선수행에 전념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불교TV 석주 · 석정 스님 서화전

불교TV(회장 성우스님)는 14일 종로 공평아트홀에서 '석주 · 석정 큰스님 서화전' 개막식을 가졌다. 20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석주스님의 글 40여점과 석정스님 그림 103점 등 총 143점이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 총무부장 원택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경불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정련)은 13일 종로구청 강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김동흔 운영위원장은 "부처님의 자비를 모든 이웃과 나누고 인류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법회에는 법장스님(수덕사 주지), 법타스님(평불협 회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제 7회 신행수기 공모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15일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내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7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은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주제 :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 2001년 12월 15일
△당선작 발표 : 2002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대상(유마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우수상(본사 사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 총무원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총화종 총무원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 O사장상 : 상장, 부상
(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취 운 선 원 입 방 공 고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는 **야산 청운 큰스님**의 지도하에 신사년 동안거에 동참 정진하실 재가 불자님과 최신 원룸형 아파트 입주자를 모십니다.

■ 동안거 결제일 : 불기 2545년 10월 15일 (양 11월 29일)
■ 결 제 비 : 50만원
■ 입방 신청마감 : 선착순 50명
■ 입 방 자 격 : 참선수행에 관심있는 남여 재가불자

■ 원룸형 아파트 입주금(영구) 3천만원 관리비(월) 150,000원
■ 편의 : 공양, 난방 및 생활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망시 불교의식에 준해 장례식부터 49제까지 무료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도사 취운선원 종무소 ☎(055)383-6479,
FAX 겸용 : (055)381-097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제28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본 협회에서는 「부처님이 최고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법회 법사님이나 선생님들께서 겨울불교학교를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각종 새로운 정보 및 기능을 습득하실 수 있는 지도자 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함께 하시어 어린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일 시 : 불기 2545년 12월 1일(土) 오후 3시~ 2일(日) 오후 3시
2. 장 소 : 불광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지하철 2호선 잠실역(4번출구) 도보 10분
3. 강좌내용 : · 싱어롱(찬불가 노가바)
· 찬불가 I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찬불가)
· 찬불가 II(새로나온 찬불가)
· 댄스(신나는 레크리에이션 댄스)
· 만들기(실내 놀이에 꼭 필요한 만들기)
· 성불도 놀이(사찰에서 전해오는 불교놀이)
· 게임(겨울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게임)
4. 참 가 비 : 40,000원 (회원은 30,000원 군종병은 20,000원)
5.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문의 및 접수 : ☎ 02-738-7860(代) (협회 사무국)
http://cafe.daum.net/burec (불레협 다음 카페)
7.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포 교 원
불 교 레 크 리 에 이 션 협 회 장 운 광

용산구청불자회 23일 창립

회장 김상헌씨…종로구청도 12월 설립 준비



서울 용산구청 불자회(회장 김상헌 · 한강3동장 · 사진)가 23일 오후 6시 원효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16번째로 불자회가 창립되는 것이다.

김상헌 회장 등 5명의 구청 공무원이 지난 8월말 발기인 모임을 갖고, "부처님의 정법에 따른 불도의 바른 믿음과 정진의 생활화를 통해 따뜻한 용산구를 만들자"는 서원을 세운 지 3개월만에 일궈낸 성과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불자회 지도법사인 원효사 주지 영한스님을 비롯해 불자회 30여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헌 회장은 "어렵게 창립된 불자회인 만큼 매월 정기법회, 교리공부,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아픔을 알고 보살행을 펼치는 참된 공무원 불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종로구청에서도 불자회 창립이 준비되고 있다. 김기선 씨 등 종로구청 공무원 불자들은 8일 발기인 모임을 열고, 내달중에 불자회 창립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종욱 기자



◇서울 · 부산 한빛은행 불자들은 10~11일 직지사에서 첫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한빛불자회 "마음도 하나"

서울·부산 통합후 첫모임

108배 · 화합토론회 가져

부산과 서울의 한빛 불심이 10~11일 직지사에 모였다. 98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통합돼, 한일은행 불자들은 서울지부로, 상업은행 불자들은 부산지부로 발령받아 개별적으로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의 신행을 펴온 이래 첫 합동법회를 개최한 것이다.

부산 서울 한빛은행불자회의 합동법회가 열린 직지사는 행원 불자들의 신심과 정진의 열기로 가득했다. 황의선 서울불자회 부회장, 현등관 조직부장, 이봉수 부산불자회 부회장등을 비롯한 40명의 참석 회원들은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도반애를 확인했다.

합동법회를 주관한 하명찬 부산 한빛은행불자회 회장은 "이번 합동 법회를 통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동안 행원 불자들은 새벽 예불, 108배, 관음정진, 법문 등으로 신심을 다지고 한빛은행 불자회의 발전과 화합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과 서울 불자회는 은행 게시판의 불교동아리방을 활용, 행사소식을 나누고 도반들의 대소사를 챙기는 한편 합동법회를 연중 정례화하기로 했다.

천미희 기자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47리 (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운불련 따뜻한 세상 만들기

대구 · 제주 등 지회 택시 보시함 털어

노숙자 · 무의탁노인 · 소년가장 도와



◇대구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대구운불련 회원들.

운전자 불자들이 택시를 몰며 승객들에게 모금한 성금으로 겨울을 맞는 불우이웃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다. 대전 대구 제주 광주 운불련 등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 산하 20여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불련 보시함에 기탁된 성금은 각 지회별로 연간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이 성금은 전액 해당지역 행정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대구운불련은 8일 대구역에 있는 노숙자 무료급식소를 찾아, 이 곳의 운영을 도맡고 있는 득도스님(죽림사 주지)에게 후원금 1백 만 원을 전달했다.

올해만 11번째. 대구운불련은 회원의 택시에 설치한 보시함으로 연간 2천여 만 원의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무료급식소에 보시한 것.

2일 제주시 제주양로원에 전달된 난방연료 역시 제주운불련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시함의 성금이 있어 가능했다. 연간 3백여 만 원의 성금을 모으고 있는 제주운불련은 경유가 가득 든 드럼통 6개를 양로원에 전달한 것 외에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들을 돕고 있다. 또한 12월 중에는 시에서 추천한 무의탁 노부부 10쌍을 택시에 모시고 제주를 일주하는 무료관광봉사도 할 계획이다.

이러한 봉사는 대전, 수원, 안양, 부산, 광주 등 다른 지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돕고 있으며, 산간오지나 낙도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송년파티도 열어주고 있다.

보시함에는 승객들의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대전운불련의 경우, 아침 첫 수익금을 기꺼이 보시함에 넣는다. 이타행을 실천하는데 자신의 정성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마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방법은 다르지만 다른 지회 역시 보시함의 성금을 결산하면서, 회원들의 수익금 일부를 승객들의 성금에 보태고 있다.

또한 운불련은 후원금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복지 담당자가 지원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회계 담당자는 매월, 매분기, 연간 단위로 보시금 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부산운불련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별에 50여 회원들이 모두 나서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자체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부산지회는 현재 부산 남해재활원과 소년소녀가장 6명에게 매년 3백 만 원을 후원하고 있다.

운불련 김주본 회장은 "운전 불자들은 하루 1백~2백여 승객을 만나고 있어, 포교하고 모금하는 일이 용이하다"며 "승객들의 보시금을 투명하게 운영해, 보다 더 많이 불우한 이웃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ccu@buddhapia.com

포돌이 신행 '신바람'

전국 경찰불교회 발족후 회원 부쩍

당당히 불자신분 밝히고 법회 동참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 청와대 치안비서관)가 창립된 이후 경찰불교회의 정기법회에 참여하는 경찰 불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전국경찰불교회에 따르면 4월을 기점으로 법회 참석자가 평균 1.5배 가량 늘었다는 분석이다.

8일 본청에서 열린 경찰불교회 법회에는 무려 60여 명이 참석, 법당은 물론 복도에까지 들어설 정도였다. 평균 20~30명에 불과했던 예전의 참석 수와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부산, 전남 지방경찰청과 국립경찰병원 등은 물론 대전북부, 대구서부, 수서, 성동, 도봉, 성북, 강남경찰서 등 일선 경찰불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찰불교회 박희영 사무국장은 "전국경찰불교회의 창립을 지켜본 경찰 불자들이 경찰서 내에서 불자임을 떳떳이 밝히고 부담 없이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국경찰불교회 임원들이 각 경찰서 법회마다 동참했던 점도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경찰불교회는 각 경찰서 법회활성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각급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지도법사와 법회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경찰불교회는 경찰불교회의 창립을 직접 견인하는 역할 외에도 이들 경찰불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후견인 역할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우리 모임에선

KAI 법우회 금강경강의

대우종합기계(주) KAI 법우회는 11일 전남 여수 향일암과 흥국사에서 사찰순례법회를 봉행하고 200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우회는 한편 27일 지도법사 원광스님을 모시고 '금강경 강의' 제5강을 진행한다.

석불회 108배 정진

대한중석초경(주) 석불회는 6일 최정사에서 11월 정기법회를 실시했다. 이번 법회에서 30여 회원들은 108배와 정근 등을 하며 신심을 돈독히 하고, 신행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을 서원했다.

성북승무소 송광사 순례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13~14일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사찰체험' 행사를 가졌다. 신심 고양은 물론 회원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법우회 회원들의 부인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도 동참했다.

"생활속 육바라밀 실천"

보현법우회 수안스님법회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불자 사원들의 모임 보현법우회(회장 원점북)가 14일 소식지 〈법우〉 창간 1주년을 기념해 '통도사 축서암 수안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문과 생활불교, 법회일정 등을 수록한 〈법우〉는 거제지역 관공서와 군부대, 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신행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한 몫을 담당했다.

계룡사 주지 지연 스님, 양정식 거제시장, 법우회 회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수안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활속에서 육바라밀을 힘써 행하는 것으로 정진의 근본을 삼으라"며 "앞으로 보현법우회를 중심으로 거제 불교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 02)722-4162

게시판

알림

▲조계사 기초교리강좌=조계사는 '부처님을 향한 처음 발걸음'을 주제로 34기 불교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주야간반은 27일, 토요반은 24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불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불교교리 등의 교과목이 마련됐다. (02)720-1390

모집

▲밑반찬 용기=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밑반찬 서비스 1회용 용기 후원자를 모집한다. 용기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밑반찬을 담는 데 이용된다. (02)2203-3677

▲청소년 진로 교육=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을 위한 집단학습과정인 '학교사회사업'을 실시한다. 진로길라잡이, 진로테스트, 특수인성검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02)421-6077

▲미발달 아동 치료=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정서와 행동 발달상에 어려움을 가진 만 3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실시한다. (02)852-0525

▲노인 의료 서비스=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노인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 상태를 체크하고 직접적으로 환자의 환부를 치료한다. (02)421-6077

▲무료법률 상담=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 민, 형사 관련 일반 법률에 대한 상담이며 사전 접수해야 한다. (051)628-6737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격월간 참여불교 2001년 11·12월호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맑은 종교 만들기'
- 교계 개혁파 뭉쳤다!

값 7,000원
1년 정기구독 35,000원

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 틱낫한 스님

특별기고 종교와 반부패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특집 II 주5일 근무제와 종교계
- 레저문화와의 충돌 불가피
- 젊은 층 끌어들일 프로그램 개발 주력해야

만 남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권두칼럼 주체의 부재와 재도의 문제
-불교계 성명서를 통해서 본 것

생활 속의 명상 자투리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활용하라

교계초점 달라이 라마 2001 방한 왜 무산됐나 ㊙

거사열전 60~70년대 재가불교의 거목 덕산 이한상

종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역할은 커녕 싸우지나 말라,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다는 비아냥도 들려옵니다. 훌륭하신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야 서운하시겠지만 종교계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돈(money)에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벌어졌던 불교계의 난투극, 담임목사직 세습 갈등 등의 내면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우상인 '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money)의 위력 앞에서는 자신들의 절대적 신념체계인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도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이러한 때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NGO들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종교바로세우기의 첫 번째 목표는 '교단재정의 투명성 확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참여불교』 11 · 12월호에서 만나십시오.

□ 특집 I -이 시대 한국종교가 실천해야 할 경제윤리
종교와 자본주의 : 이데올로기적 동조와 종교의 산업화
한국교회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의 청빈 : 역사적 경험과 과제
종교NGO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맑은 종교를 위한 경제윤리헌장
종교NGO네트워크 사업계획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우 110-340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0-6 신화타워 205호
전화 (02)745-7799 팩스 (02)744-5424 buddha21@hanmail.net

新 탄트라
성에서 초의식까지
오쇼

性을 통한 깨달음!

두 권의 책과 CD로 구성된 이 세트는, 5천 년 동안 유일하게 성(性)을 영적인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포용해 온, 종교적인 전통인 탄트라(Tantra, 密敎)의 수행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인간은, 성행위의 접정 속에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먼저, 성행위시 에고가 사라진다. 에고 없음이 창조된다. 잠시 동안, '나'는 없다. 잠시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오르가즘은 하나의 자기 소멸의 상태이다.

성의 경험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잠깐 동안 시간에서 시간 없음이 창조된다. 오르가즘 속에서, 시간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있다.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현재는 영원이다.

인간의 성에 대한 갈망은, 여자의 몸을 향한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열정은 어떤 다른 것을 향한 것이다. '에고 없음'을, '시간 없음'을 향한 것이다. -오쇼-



부록: 파트너와 함께 하는 탄트라 CD



탄트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CD는 성(性)에 명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입문서 역할을 해 주며, 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해 주는 '고대의 사랑의 과학(Tantra)'에 근거하여 오쇼의 제자들인 카비샤, 의학 박사 디안 요기, 와두드, 알비나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적인 환희의 예술(The Art of Sexual Ecstasy)>의 저자인 마르고 아난드뿐만 아니라, <New Frontiers> 잡지의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이 명상법은 아름다운 배경 음악과 함께, 준비와 정화의 단계를 거쳐,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표현되지도, 보여지지도,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았을 그런 황홀경의 에너지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 준다(총 65분 : 1. 지시어와 배경 음악 32:30 / 2. 배경 음악 32:00)

* 세트 가격 18,000원

❋ '탄트라 CD'에는 설명서와 함께 자세한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 www.goldenflower.co.kr/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경전 공부하며 보살행 실천

신행현장

자비행회 1백여 회원

불법에 대한 큰 믿음과 바른 이해의 기초 위에 경전공부를 하면서도, 보살행을 펼치는 모임이 있다. 놀랍게도 '치마불교'의 주역으로 오해받기 쉬운 50~60대의 보살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바로 '대한불교 자비행회'(회장 어수정).

14일 오전 10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

40여명의 자비행회 회원들이 탱화를 므시고 예불과 천수경 독경을 정성스레 올리고 있었다. 30여분의 기도가 끝나자 회원들은 입정(入定)에 들어 〈법화경〉의 권위자인 혜경스님(무설정사 조실)의 등단을 기다렸다. 이윽고 법사인 혜경스님이 〈법화경〉 '견보탑품'을 해설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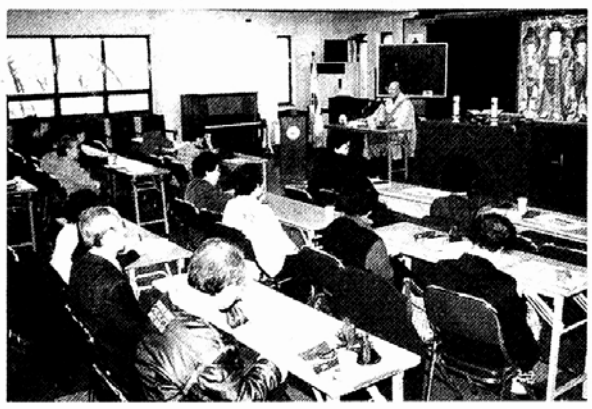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가끔 진신사리 친견법회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사리 조차도 '제행무상'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영원한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경(經)이니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혜경스님의를 강의에 마음을 집중하는 보살들은 스님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적으며 어느새 경전삼매에 빠졌다. 이미 〈법화경〉 강의는 여러번 들었지만, '부처님의 전신(全身)인 법화경을 모든 불상에 봉안하는 이유' 등 실제적인 비유를 곁들인 스님의 설법은 들을수록 깊이가 있다.

자비행회가 창립된 것은 13년전인 89년 3월. 당시 조계사 총무원회관에서 불교 공부를 하던 '관음회' 회원 중 경전공부와 자비행을 병행하겠다고 20여 보살들이 발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보살들은 성지 순례에 나설 때마다 불사에만 관심을 쏟는 사찰과 기복에만 매달리는 불자들의 신행행태에 문제를 느끼고 경전공부와 더불어 사는 보살행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어수정 회장은 "타력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의심이 없어야 부동(不動)의 발심을 일으킬 수 있음을 자각하고 경전공부를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매주 수요일 경전삼매
그늘진 이웃엔 가족처럼

자비행회는 청량리 불교교화원 법당에서 경전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3000원의 회비로 성지순례를 병행하며 신심을 다지기도 했다. 도착지까지 버스 안에서는 예불과 천수경, 염불정근, 찬불가 부르기가 끊임없이 계속된다. 지난 8일에도 적성산 안국사를 참배하고 돌아오면서, 온산에 어우러진 단풍을 보면서 일체가 어우러진 대승의 삶과, 떨어지는 낙엽에서 '무상(無常)'의 진리를 절감했다는 것이 회원들의 이구동성이다.



◇혜경스님에게 <법화경>을 배우고 있는 자비행회 회원들. 회원들은 소쩍새마을 돕기 등 자비행 실천에도 열심이다.

자비행회는 89년 무설정사의 혜경스님과 인연이 닿으면서 공부의 깊이가 더해졌다. 하나의 경전을 오랫동안 일심(一心)으로 들여다 볼수록 실천 없는 신행이란 공허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했다. 그래서 평상심으로 이웃과 조화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장학금 전달, 소쩍새마을 후원, 양로원 돕기 등 자비행도 더욱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

거사 10명을 포함한 100여명 회원들은 8년전부터는 흥사단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한주도 빠짐없이 '부처님과 하나되기' 위해 경전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혜경스님과 박종 법사가 격주로 강의를 진행해, 그동안 부처님 일대기로부터 〈아함경〉 〈원각경〉 〈승만경〉 〈능엄경〉 〈화엄경〉 〈법화경〉 등 주요 경전을 배웠다. 처음에는 기초교리도 몰랐던 회원들이 꾸준한 경전공부를 토대로 한 참선, 염불 등의 수행과 보살행 실천으로 회원 모두가 '일당백 포교사'가 된 것이다.

어수정 회장은 "올바른 수행과 실천은 올바른 불교관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자들이 경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수요강의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011)776-3545

김재경 기자

생활속의 불교

길은 내 안에 있다

길은 안에 있다. 바깥 대상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내가 갈구하는 것, 내가 거부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쫓는 길은 내 안에 있다. 구하고 싶거든 안으로 머리를 돌려라. 없애고 싶거든 지금까지 밖으로 향하던 눈길을 지금부터라도 안으로 돌려라.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안에 있다. 길을 찾는 방법은 내 속에 있다. 밖으로는 아무리 찾아 헤매도 구해지지 않는다. 피할 수도 없다. 밖으로 찾아 헤맨다면, 저항하면 할수록 거부하면 할수록 운명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무리 좇아가고 좋아해도 달라지지는 않는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내가 거부하고 애착하는 것, 그것은 나의 관념이 만들어낸 상황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그려낸 그림일 뿐이지 진짜 풍경이 아니다. 나는 내가 짓고 만든 상황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 거기서 싫다 좋다를 느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길을 찾고 싶거든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무런 군더더기가 붙어있지 않은 순수한 나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그려놓은 상들-나는 어떠해야 한다, 나는 어떻다 를 넘어서 '나'로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나'라고 그려놓은 그림들은 한결같이 외부세계와 짝지어 놓은 것들일 뿐이다. 그것은 나도 아니요 외부세계도 아니다. 그림이 참모습일 수 없듯이 그것은 나의 진면목도 아니요 외부세계의 실상도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덧칠해 놓은 그림 속에 길이 있다고 찾아 헤맬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머릿수 세기와 같다. 자기를 빼놓고 셈을 하니 몇 번을 되풀이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

길을 찾으려거든 '나'부터 세라. 나의 생각 나의 행동부터 되비춰 보아라. 팔자운명이 잘 안풀리는 것은 '나'를 빼놓고 셈을 하기 때문이다. 외부세계만을 셈하고 환경만을 탓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돌뿌리 때문에 넘어졌으니 그 돌뿌리 보고 일으켜 세우라고 하겠는가. 넘어진 자, 스스로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생활속 부처님께 음성공양
불교음악은 포교 한 방편



지허스님
안산 천수사 주지

몇해 전 49재가 인연이 되어 우연히 어느 사찰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엄숙하고 장엄하게 천도의식이 봉행되고 있었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여러 명의 보살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 보살들이 피아노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49재에 무슨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법당에 앉은 불자들이 하나 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불자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그때 나는 "아하! 이것이구나. 음악을 불교포교활동에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제가 살고 있는 안산시에 불교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불자단원 100여명
불교합창단 활동 열심

그러나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 부딪친 지역의 현실은 예상외로 어려웠습니다. 안산시는 10만 불자라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이주해 온 불자들이 많아서 한 두시간 거리쯤은 멀다않고 자신이 다니던 서울의 원찰로 법회를 보기 위해 가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을 만들어 재적사찰에 관계없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을 구성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힘을 합쳐 불교합창단을 꾸렸습니다. 그동안 합창단을 운영해보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소규모의 사찰까지 동참하는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100여명에 달하는 불교합창단이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 안산시민을 위한 불교예술제도 성황리에 치뤘으며, 지금도 각 사찰의 중요 행사 때마다 부처님 전에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악지정 관무지덕(聲樂之政觀舞之德)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노래 소리를 들어보면 그 나라의 정사를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춤사위를 보면 그 나라의 덕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불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음악, 불교문화를 통해서 불교포교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찬불가 소리에 발심하는 불자가 늘어날 수록 불교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불교는 아직도 문화를 통한 포교에는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지역 사찰과 포교당들이 신도와 지역민을 위한 산사음악회와 전시회, 연극공연, 지자체와 연계한 축제 등을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예가 늘고 있지만, 전체 불교를 두고 본다면 이러한 행사는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같은 불교 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많은 대중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을 열어 모두 하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불교를 어렵고,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문화의 원천으로서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사찰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또 너무 급히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자 여러분들도 우리 불교문화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작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행 캘린더

11월 22일 (목)

■성상담 교육=자비의 전화는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2층 제4강의실에서 가족보건복지협회 성교육강사인 김정숙 씨를 초청, '성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02)737-7378

11월 23일 (금)

■한일 다도 교류전=대전 보현문화회관은 오후 7시 회관 법당에서 일본 정국사 주지 타찌바나 마사코 스님 등을 초청,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 기원을 위해 '다도 문화 교류전'을 개최한다. (042)624-6555

■나라사랑 캠페인=나눔의 집은 오전 10시 전북대 구정문 앞 카페 VIVO(비보)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나라사랑 캠페인'을 주제로 한 그림전시회 및 일일찻집을 개최한다. (031)768-0064

■2002년 대학입시 대책 강연=서울은평구립도서관은 오후 2시 '2002년 대학입시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마련한다. 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될 이날 강연은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병덕 평가실장이 맡았다. (02)385-1671

11월 24일 (토)

■김장 나누기 기금 마련 일일찻집=경북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은 오전 10시 경산 오거리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카페 '제로원'에서 자비의 김장 나누기 기금 마련을 위해 일일찻집을 실시한다. (053)811-1347

■3333배 기도정진=경기도 양평 법왕정사는 오후 9시부터 25일 오전 7시까지 '3333배 특별기도정진을 실시한다. 정진에 앞서 '절하는법'에 대해 강의도 마련됐다. (031)771-7745

■홍성흔 선수 팬 사인회=불교기아도움기구는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 두산베어스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주역인 불자 홍성흔 선수의 사인회를 개최한다. 팬사인회 수익금은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02)732-1206

11월 27일 (화)

■불교여성개발원 1주년 기념행사=불교여성개발원은 오후 5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및 〈대장경속 여성불교〉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02)722-2101

■청교련 제주지부 '우리문화자강운동'=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는 오전 10시 한라체육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회 우리문화자강운동'을 실시한다. (064)725-0108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圓滿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癡西翁謹書

■ 주천서



■ 고불송림방장 서옹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부산 051)637-2333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1. 간다라란 무슨 뜻인가?

나는 1999년 7월부터 8월말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린 간다라미술 특별전을 참관하는 지복을 누렸다. 출품된 작품들은 주로 파키스탄의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간다라 불교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재였다. 간다라불상이 그리스예술과 불교정신의 경이적인 만남을 상징하는 고결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간다라불상은 로메테우스와 같이 자신의 고난을 감내한 희생적 영웅의 상징을 모티브로 삼은 그리스예술과 파괴적인 삶을 극복하고 열반을 증득한 불교의 심원한 정신이 조우하여 보여주는 고결한 아름다움과 초월적인 지성을 해탈의 법열(法悅)이 담긴 미소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간다라(Gandhara)란 무슨 뜻인가. 여기서는 간략하게 세 가지 문제만 이야기하기로 한다. 첫째, 간다라는 지명이다. 간다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잘랄라바드 일대와 파키스탄의 폐사와르 분지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더 정확히 현장

'향료의 나라' 의미

불교 예술의 고향

과 5세기의 법현, 8세기의 신라 혜초 스님이 기록하고 있는 간다라는 주로 폐사와르분지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간다라는 남북 약 80km, 동서 약 40km의 분지이지만 문화사적으로는 간다라불교예술이 발견되는 서쪽의 카불분지와 잘랄라바드, 북쪽의 스와트, 탁실라 등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지명으로도 사용한다. 실로 간다라는 B.C 327년의 초여름, 젊은 알렉산더대왕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힌두쿠시산맥을 넘은 이래 그리스예술과 불교의 만남이 이루어진 지역이며 동서를 가로 잇는 무역로의 요충지였으며 불법을 구하는 서역구법승들의 행로에서 빠질 수 없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미 7세기의 현장 삼장은 〈대당서역기〉2에서 '학문과 예술의 고향'으로서 옛부터 뛰어난 불교의 논사(論師)들의 대부분이 이곳 출신이라는 건타라국(健馱邏國)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신라의 혜초 스님 또한 〈왕오천축국전〉에서 건타라국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간다라불교미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프랑스의 인도학자, 알프레드 푸세(1865~1953). 그는 1922~1925년간 조사한 후 저서 〈간다라의 그리스계 불교미술〉에서 그리스문화와 불교문화를 관련시켜 간다라 불교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둘째, 간다라라는 지명은 그 이름처럼 향료(香料)의 나라였으며, 이 사실은 불교의 전파와 고대의 향료무역, 또는 불교와 향료의 관계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제시한다. 불상의 고향 '간다라'라는 지명을 한역하면 '향국(香國)', 바로 '향료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화엄경음의〉 등의 여러 불교경학의 자료에서는 간다라를 향행국(香行國), 향풍국(香風國), 향결국(香結國)이라고 적고 있다.

옛 간다라국은 이처럼 향과 관계가 있는 지명을 갖고 있지만 정작 향료의 생산지는 아니었다. 간다라는 레바논과 시리아와 같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료가 인도와 중국으로 전해지는 향료무역의 중개 무역지였으며 〈책부원구(冊府元龜)〉권971, 〈당회요(唐會要)〉권99, 〈신당서(新唐書)〉권221 등에 의하면 당 개원 12년(724) 토화라의 사신이 당조에 바친 공물 품목 가운데 '건타바라(乾陀波羅, 촙果) 등의 이약(異藥) 2백 여 품'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주요 무역품이 향료였다. 동서 문명 교섭사의 석학, 에드워드 쉐이퍼 또한 필생의 역작, 〈사마르 칸드의 황금복숭아〉에서 "간다라는 불교의 교리, 불상의 주요원산지이기도 하지만 중앙아시아, 중국, 저 먼 극동의 신라, 일본까지 도달한 향료의 주요 공급국이었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불교경전은 향료의 백과사전이며 동시에 고대 동서 문명 교섭의 문화코드가 살아있는 지혜의 광장이다. 〈금광명최승왕경〉의 32향법과 〈법화경〉, 〈화엄경〉의 거의 모든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향의 명칭과 불교적 의미가 갖는 불교문화사, 동양중세의 문화적 의미, 불전 연구상 향료의 명칭과 원산지가 갖는 문제, 불교의례 성립상의 의미, 실크로드와는 또 다른 '간다라'에서 경주 불국사에 이르는 향료의 길'이라는 틀이 큰 이야기는 천천히 하기로 한다.

■경학회 회주

심오한 교리 한 폭 그림에 압축

참물자의 길 — 불화의 의미와 종류

사찰에 가면 여러 불화들을 만나게 된다. 일주문에서부터 여러 전각의 내·외부를 장엄하는 불화들. 그러나 불자들은 대부분 이를 보고 으레 그곳에 있는 그림 정도로만 생각할 뿐 눈여겨보지 않는다. 간혹 몇몇 눈 밝은 불자들만 유심히 살피고 그 의미를 새겨 볼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반 탐방객들이 불화에 대해 질문을 해 올 경우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다. 불자라면 최소한 불화의 의미나 분류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불화는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회화라 할 수 있다. 이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벽화, 탱화, 괘불 그리고 변상도 나눌 수 있다. 불교 전래 초기에는 벽화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벽화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시대가 흐르면서 이동이 가능한 탱화로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화는 종이바탕이나 베 바탕에 그려 벽에 걸게 되는 탱화가 가장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괘불은 실외에서 거행되는 의식에 사용되는 대형 그림이다. 이 괘불은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다. 변상도란 불경의 내용을 변화시켜 나타낸 그림이란 뜻으로 사경의 그림과 경판의 그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탱화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상단(上壇)·중단(中壇)·하단(下壇) 탱화로 구분된다.

상단 탱화는 전각의 상단 즉 불전의 중앙에 모셔진 불보살상의 뒷면에 거는 탱화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대웅전 후불탱화로 영산회상도를 바탕으로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약사불,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좌우에 협시한 구도의 석가모니불탱화, 극락전 탱화로 서방정토에서 아미타여래가 설법하는 모습을 그리거나 대웅전 후불탱화와 같은 영산설법도의 내용을 그린 아미타불탱화, 대광명전 또는 대적광전 후불탱화로 〈화엄경〉의 설법장면을 그린 비로자나불탱화, 약사전 후불탱화로 약사정토의 특성을 그린 약사불탱화 등이 있다. 중단 탱화는 불단의 좌우측에 있는 영가단에 거는 탱화로서 주로 신중이나 호법신 등을 그린 탱화이다. 하단 탱화는 명부전의 지장보살, 시왕

이동 가능 탱화 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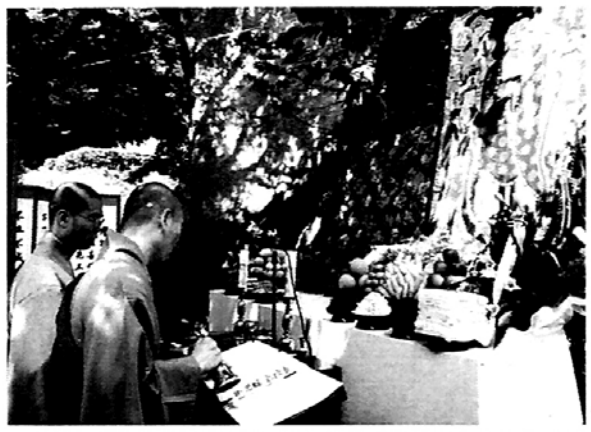
야외서 큰재 올릴땐 괘불

상 뒤에 거는 탱화이다. 대체로 불전의 좌우측 벽면에 설치되는 하단의 전면에 영가의 위패나 사진을 봉안하고 그 뒷면에 감로탱화를 건다.

법당 밖에서 불교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는 괘불은 보통 본존불 뒤에 걸려 있는 후불탱화를 사용한다. 하지만 큰 재를 올릴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법회의 성격에 맞는 내용이 담긴 것을 내걸게 된다.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재 때에는 영산회상도를, 예수재나 수륙재 때에는 지장회상도나 명부시왕도를 사용한다.

변상도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전생을 묘사한 본생도와 일대기를 나타낸 불전도 그리고 서방정토의 장엄도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상도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변상도는 여러 가지 양식의 불교미술에 고루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회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즉 절 안팎의 벽화, 탱화, 경판, 단청 등에 모두 변상도가 그려졌다. 이들 변상도의 특징은 복잡한 경전의 내용이나 심오한 교리의 의미를 한 폭의 그림에 압축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그 뜻을 이해하고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이 변상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김중근 기자



◇불화는 우리 전통 회화로 벽화·탱화·괘불·변상도 등으로 나뉜다. 사진은 심곡암의 괘불 점안식.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㊳ — 이랑중(李郎中)에 대한 답서

도, 찾지 않으면 있고 찾으면 없는 것

"지식인이 이 도(道)를 배움에는 총명하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너무 총명함을 근심해야 하며, 지견(知見)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지견이 너무 많은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8식(識) 속에서 발을 내딛을 뿐, 발 아래의 쾌활하고 자재(自在)한 소식에는 어둡습니다. 삿된 견해 가운데에서도 좀 나은 것은 보고·듣고·느끼고·아는 것을 자기라고 이해하고 다만 볼 뿐이라거나 다만 들을 뿐이라는 것을 심지법문(心地法門)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못한 것은 의식을 이리 저리 헤아려서 선문(禪門)으로 여기고 입술을 놀려서 현묘(玄妙)함을 논하며, 더 심하게는 발광하기에까지 이르러 말을 아끼지 않고 인도말로 중국말로 이것저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가장 못한 것은 묵묵히 비추며 말없이 텅 비고 고요하게 하여 귀신굴 속에 머물러 궁극의 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감각과 지각(知覺)을 관찰하고 파악하여 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치를 연구하고 이해하여 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감각과 알음알이를 딱 끊어버린 텅 비고 고요한 곳에서 비추어봄으로써 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감각과 지각을 관찰하고 파악하여 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본체는 모양 없는 하나이지만 그 작용은 다양하여 눈·귀 등 6개의 지각기관을 통하여 보고·듣고·냄새 맡고·맛보고·촉감을 느끼고·생각한다는 말을 믿는다. 또 마음의 작용은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입에 있으면 말한다 하고, 손에 있으면 잡는다 하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 한다는 말을 믿는다. 그리하여 보고 들을 때에는 다만 보고 듣기만 하고, 느낄 때에는 다만 느끼기만 하고, 말할 때에는 다만 말하기만 하고, 행동할 때에는 다만 행동하기만 함으로써 마음의 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긴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이것은 견해로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의식을 앞세우고 의식의 흐름에 집착하여 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에 막히고 느낌에 막히고 생각과 몸의 움직임에 막히게 된다. 요컨대 의식에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의식에 막혀 있으므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는 때에는 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만 당황해서 이리저리 헤아리며 온갖 견해를 따라다닌다.

이치를 연구하고 이해하여 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경전과 어록을 섭렵하고 세밀하게 그 뜻과 이치를 연구함으로써 그 내용을 이해하는 몇 가지 원리를 터득한다. 그리하여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떤 말에나 행동에나 모두 적용하여 이것도 같은 원리로군 하고 만족해 한다. 이것은 마치 제멋대로 만든 저울을 가지고 온갖 물건의 무게를 재면서 이것은 얼마고 저것은 얼마구나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사량분별이라는 저울로서 세상을 달아볼 줄만 알 뿐, 도는 어떤 저울로도 달 수 없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감각과 알음알이를 딱 끊어버린 텅 비고 고요한 곳에서 비추어봄으로써 도를 알려고 하는 것은, 소위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져들어가는 삿된 길이다. 이들은 감각과 의식과 알음알이는 도가 아니라 마음을 어지럽히는 더러운 먼지요, 티끌이라고 여겨서 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이것들을 깨끗이 쓸어버린 텅 비고 고요한 속에서 마음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지럽고 고요하고 더럽고 깨끗함을 나누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기 때문이다.

도는 감각이나 느낌이나 생각과 몸의 움직임이나 이치의 합당함이나 이 모든 것을 깨끗이 비워버린 공허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도는 찾지 않으면 모든 곳에 있지만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도 있지 않다. http://www.mindfree.net/

선무도 겨울 수련회

禪武道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 간 : 2001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1주, 2주, 1개월단위)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 단체 위탁 연수)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무용, 다도) 불교 교리 강의
▶동 참 금 : 학생(1일 - 2만 5천원, 1개월 - 60만원) 일반(1일 - 3만원, 1개월 - 65만원)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단체 연수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없이 입산 불가)
▶수 련 비 입금계좌 :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준
▶준 비 물 :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 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특히 피로에 지친 입시생들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크다.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14시	오후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학생)
	및 전 대중이 1일 불식)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5시	좌 선	18시	저녁공양
6시	조깅, 등산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쓰기
7시	아침공양(발우공양)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9시	오전수련	21시	점호 및 취침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향한 서원)		
12시	점심공양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3천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수련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지난 10月28日 선무도 대학 생활관을 착공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번지
세계 선무도 협회 대금강문 선무도 대학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4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01년 12월 15일까지
◆개강일시 : 2001년 12월 17일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참나를 찾아 섬으로 떠나는 참선(禪)여행

수련회 안내

- 제11차 송광암 거금선원 겨울 수련회 안내 -

바다! 누구나 꿈꾸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만 밀없는 배를 타면 유유자적, 위풍당당하게 상앰의 바다에서 빈배같이 노닐 수 있습니다. 저기 파도소리가 들리십니까?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도소리를 따라 곧장 들어가십시요.

* 수련일정 및 모집요강 *

차수 ＼ 내용	대 상	기간(3박 4일)목~일	모집인원	회 비
제1차	15세 ~ 60세	2001.12.13~12.16	50명	10만원
제2차	"	2001.12.22~12.25	"	
제3차	"	2001.12.29~02.01.01	"	
제4차	"	2002.01.10~01.13	"	
제5차	"	2002.01.17~01.20	"	

※ 하계 수련회는 7월 18일 ~ 8월 11일에 있습니다.

1. 수련내용 : 묵언, 오후불식, 부처님오훈법, 관음기도(송묵문송) 108참회, 발우공양, 활구 참선 화두법, 행선(적대봉등산, 금장 해수욕장), 수심결 강의, 선체조
2. 접수요령 : 별도 양식없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종교 희망차수, 참가소견을 적어서 우편이나 FAX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준 비 물 : 가벼운 차림, 세면도구
4. 찾아오시는길
(1) 서울 -> 녹동(직통) 강남 터미널 호남선 오전 8시, 9시
(2) 서울 -> 광주(고속) -> 녹동(항구) -> 금진행 -> 시내버스(농협하차)
(3) 서울 -> 순천(기차) -> 녹동(항구) -> 금진행 -> 시내버스(농협하차)
(4) 부산, 대구, 진주, 마산 -> 순천 -> 녹동(항구) -> 금진행 -> 시내버스(농협하차)
5. 회비 납부 온라인 (접수된 회비는 반납하지 않음)
우 체 국 : 501023 - 06 - 006414 (일선) 농 협 : 617073 - 52 - 068116 (일선)
6. 접 수 처 : 우) 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 74번지
TEL : 061 - 843 - 8488 / FAX : 061 - 842 - 7307 홈페이지 : http://www.yescall.com/song/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암 암주 일선 합장

이렇게 들었다

관광자원 개발

"동강을 그냥 흐르게 하라"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대왕이시여, 범행을 행하는 왕은 불을 지르지 말며, 파괴하지 말며, 물을 대지말지니, 이것이 무릇 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살차니건자 소설경>

▨국토와 중생의 은혜는 참으로 크기 때문에 보답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일체의 존재를 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동시에 산, 강, 공기 등 생존에 필요한 일체의 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승심지관경>

댐 건설 백지화로 한숨을 돌리는 듯 했던 동강(강원 정선 · 영월군)이 이번에는 초대형 스키 · 골프 리조트 계획에 밟혀 사지(死地)로 몰리고 있다. 특히 동강 보존에 발벗고 나서는 듯했던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 유치를 앞세워 리조트 건설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조트 파문은 더욱 크게 번지고 있다.

강원도의 리조트 계획안에 따르면 동강 인근 가리왕산에 골프장, 스키장과 함께 숙박시설을 갖춘 복합레저타운이 세워진다. 이는 국내 최대를 자랑하고 있는 용평리조트를 능가하고, 내로라하는 평창군 보광휘닉스파크(객실 897개) 보다도 훨씬 크다.

환경 전문가들은 리조트 완공 후, 연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한 각종 생활하수와 골프장 농약 등이 30분내에 동강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후의 사태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다. 래프팅객을 피해 가리왕산 등으로 숨어든 수달, 비오리 등 희귀 동물들이 이번에는 스키 · 골프 인파에 쫓겨나는 것은 물론 동강의 수질이 엉망이 돼 생태계 전반이 소생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게 자명하다.

동강은 강원도에 있지만 우리 모두의 강이다. 그런데 돈에 눈이 먼 강원도 행정당국에서 '관광자원=개발'이라는 등식을 세운 채 동강의 생태계 파괴는 제쳐놓고 '스키 · 골프 리조트'를 계획했던 관광정책은 졸속 그 자체다.

부처님은 〈사분율〉에서 "일체의 농작물과 화, 초목의 선립 등을 태우거나 파괴하지 말고 물을 빼거나 대지 말며 자르고 베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다같이 생명을 가진 짐승과 벌레들이 있으므로 죄없는 중생들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괴롭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며, 우리에게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셨다.

관광자원을 늘리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을 지키고 멀리서 감상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보다는 자연 그 자체를 보고 교감할 수 있는 마음이 절실한 때다. 후손에게 물려 줄 가장 훌륭한 유산은 '자연'이다.

오종욱 기자

한국교육, 왜 이지경이 되었나

불자 세상보기

교사임용 · 자립형 사립고
수능 난이도 조정 실패
불합리한 교육정책 투성



구승희
동국대 교수
윤리학과

한국 교육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교원 정년 연장, 교원 성과급, 7차 교육과정, 이른바 중초교사 임용, 자립형 사립고, 수능 난이도 조정 실패, 한약학과 문제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불합리한 교육정책으로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멍들지 않는 곳이 없다.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이 모든 혼란은 교육의 기본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는 이 정권의 발상법에 기인한다. 정치권력이 교육계 내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하는 개혁 유도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강제집행 카드를 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공론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개혁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세대간 대화를 통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현장인 교육은 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떡 주무르듯 해서는 안되는 독특한 사회 부문이다. 개혁이 전통과의 과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도와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한 개혁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 도덕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이 된다. 개혁에 지친 이해당사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이라고 빈정거릴 뿐이다.

교대생들의 자퇴 파동을 보자. 초등교원의 부족 현상은 정년 단축, 농어촌 근무기피, 이직 등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만성적인 것이었음에도,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지난 7월 느닷없이 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도까지 35명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교원을 2002~3년에 걸쳐 2만 36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2002~3학년도에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을 한시적으로 초등교사에 임용하겠다는 '중초교사안'을 제시하였다. 돈이 없어 콩나물 교실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약간의 돈이 생겨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교원단체와 교대생들은 왜 반발할까? 최초의 중초교사안에 대하여 교대생들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였고, 교육부는 '단기 교대 학점 이수제도'와 '정규 학사편입제도'로 거푸 양보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편입학 규모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고 나왔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부의 기만적이고 졸속적인 교원수급정책에 실망해 더 이상 정상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적힌 자퇴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에 불려 나와 "불가피한 비극적 선택이었으며", "사사건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거꾸로 항변하는 관리의 모습은 우리를 화나게 한다. 우리는 교대생들이 자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진정 자퇴를 원하면 학교장에게 제출해야지, 왜 대통령에게 내느냐 말이다. 순수해야 할 대학생의 권리 주장이 정치적 행위를 닮아가는 것이 씁쓸할 뿐이다.

이처럼 교대생들의 주장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정부를 성토하는가? 공적 의사결정의 코스트(비용)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이 나라 교육정책을 마치 연습으로 디디알(DDR) 밟듯이, 가볍게 결정해 버리는 공직 윤리를 무시한 무책임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한국 제이티에스 워크숍

실직자 위한 심리적 접근방법

(사)한국제이티에스(이사장 법륜스님)가 14일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실직자 및 실직노숙자를 위한 심리적 접근 방법 평가 및 전망'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고영씨(서울자유의집 정신보건센터장)의 '심리적 접근 전략모색', 방기연씨(그래 심리상담연구소장 · 정토수련원 깨달음의장 진행자)의 '집단수련(상담)의 효과와 전망' 두 발제문을 요약했다.

집단 수련 핵심 '自他不二'



방기연 〈그래 심리상담연구소장〉

실직자 및 실직노숙자들에게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자체보다 그에 따르는 심리적인 충격과 좌절이 더 중요한 문제다. 당장 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심리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수련은 이러한 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정토수련원에서 진행했던 집단수련 프로그램은 좋은 예다. 이 프로그램은 화두선의 원리인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깨달음의 장'과, 열린 분위기에서 각자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들을 꺼내놓고 대화하며 교류하는 '나눔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실직 노숙자 나눔의 장을 열고, 일반인 수련에 실직 노숙자를 참여시켜 집단수련을 시킨 결과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실직자들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깊은 수련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무력감과 자기상실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집단수련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르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친밀감을 느끼며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 진행자의 역할은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진행자나 참가자나 스스로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자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집단수련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노숙자 관리사업 체계화



고영 〈서울 자유의집 정신건강센터장〉

노숙인을 동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기간적 측면에서 보면 장기-일시 노숙인이 있을 수 있고, 공간차원에서는 거리-시설 노숙인이 있으며, 노숙하게 된 요인도 저마다 다르다. 이것은 노숙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노숙인들에게 접근하는 출발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다. 노숙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문제는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노숙인의 심리 · 육체적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하는 연구시설도 필요하다. 현재 서울에서는 '자유의 집'이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화된 '쉼터'를 통해 노숙인 관리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나 자원봉사자의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관, 자활훈련기관 등과의 연계는 노숙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것은 기존의 '쉼터' 뿐만 아니라 지역생활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가정복귀 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의 필요성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기고

"중국 관정스님 한국법회 계기 정토수행법 관심 늘고 있다"

중국의 관정(寬淨)스님이 10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해 한 달 여 동안 몇몇 사찰의 법회에 참가하고 19일 출국했다. 관정스님은 6년 반 동안 선정 삼매에 들어 천상세계 및 극락세계를 참관했고 아미타불게 수기를 받아 정토선 수행을 닦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행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 같은 스님의 이야기가 현대불교신문 11월 7일자(342호) 가까이서 뵌 큰스님 코너에 소개된 바 있다. 다소 상식선에서 거리가 있는 스님의 수행이력이 지면을 통해 소개 된 이후 영취사로 많은 전화가 오고 있다. 현대불교가 영취사 법회를 취재하며 관정스님을 인터뷰 한 인연 때문인 듯 하다. 영취사로 전화를 하는 스님과 불자들은 주로 관정스님의 수행과정을 담은 책 '자성염불 명심견성(비매품)'을 구하거나 스님을 친견 하고 싶어 한다. 또 스님들은 관정스님을 사찰로 초청해 법회를 열겠다는 상의를 하기도 한다.

나는 영취사 신도로서 현대불교 지면을 통해 관정스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에 감사드린다. 그런 가운데 새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 불자들은 법력 있는 스승을 그리워 한다는 것이다. 법력 있는 큰 스승을 친견하고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종교적 갈망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적지 않은 불자들이 수행방법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회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정토수행법이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관정스님을 계기로 관심이 증폭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나름대로의 수행법을 갖지 않은 탓도 있다는 생각이다. 6년 반의 선정삼매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도 크겠지만 큰스님들이 갖는 신비스러운 행장을 통해 종교적 감화를 받고자 하는 불자들의 순수한 열정도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정스님을 다시 초청해 보다 큰 법회가 열리길 바란다.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수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관정스님도 한국의 불자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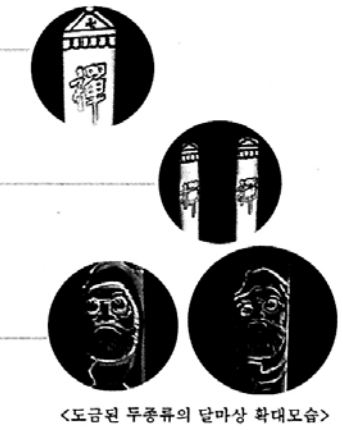
이동일(서울 영취사 신도)

달마가 수저로 간 까닭은?

문의 051) 582-7579
(주)KG-NET 〈金剛〉

저작권등록번호: c-2001-002422 상표등록:40-2001-0048217





<도금된 두종류의 달마상 확대모습>

재질/ 스텐레스 27종
코팅/ 금 (달마상부분과 수저 윗부분)
종류/ 남,여 1Set, 공용수저
여러가지 디자인중에 설문 조사후 결정모델

숟가락 뒷면에 행사내용,관광지이름,사찰 이름등(일정수량이상) 새겨드립니다.

모집
* 지역별 총판 영업하실분
(서울, 경기지역 총괄하실분)
* 불교점, 기념품점등 유통하실분
* 사찰 전문 행사 지원 업체
*사찰내 식당 특별상담
(특별주문 제작가능)

인간이 태어날때 백수를 누릴 수 있도록 태어 났건만, 먹어서는 안되는 것을 먹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을 보고 들어서는 안되는 것을 듣다보니, 백수를 다하지 못해 그 중에 으뜸인 먹는 것을 불심으로 한다면 어찌 백수를 누리지 못하리..

제작지원: (주) 대왕금속 (주)대림산업 달마shop

사·부·대·중

"스님, 약속은 꼭 지키세요"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석불선양회 순례법회의 사전준비관계로 얼마전 시골의 한 사찰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다. 주지스님께 법문을 요청드리기 위해 종무소에 갔다. 담당직원이 "외출하시고 안계신다. 순례법회 날 주지스님이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보라"고 했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차 한잔 마시는데 종무소 옆방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더니 스님 한 분이 나오셨다. 얼른 일어나 반배를 올리며 "주지스님 되십니까?" 물으니 "그렇다. 무슨일로 왔느냐?" 하신다. 순간 종무소 직원은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다. 삼배의 예를 올린 후 순례법회 계획과 법문을 요청드리니 달력을 보면서 "그 날은 다른 일이 없으니 꼭 법문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순례법회날 주지스님을 모시기 위해 종무소에 갔더니 직원이 대뜸 "주지스님께서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출타하셨다. 총무스님을 모시고 들어가라" 한다. 총무스님이 들어오셔서 잠시동안 사찰 창건설화를 설명하고는 나머지 긴 시간을 사찰불사에 동참해 달라는 말로 일관하였다.

종무소 직원의 태연한 거짓말, 재가불자들과의 법문 약속을 바쁘다는 핑계로 사전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주지스님, 책이나 인터넷에 올라있는 사찰 창건설화를 글자 하나 안틀리게 읊으며 불사 동참을 호소하는 총무스님의 안스러운 모습 등의 삼박자에서 이 사찰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운가 그 원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굳이 밝히는 것은 그 사찰 말고도 여러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스님의 가장 시급하고 바쁜 일이 중생제도 말고 무엇이 또 있으랴. 재가불자들이 "스님, 법문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기 전에, 인기척이 나면 맨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주시며 법향을 가득 전해주시는 스님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목탁소리

'자비문중' 이라면서

강 유 신 (취재1부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원들은 13일 11시 조계사에서 천막농성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날 아침 9시 조계종 호법부는 불법시설물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농성용 천막을 철거해 버렸고,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3시간 늦은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렸다.

농성용 천막 철거에 대해 호법부는 조계사 경내에 건축물이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총무원이 경찰에 시설물보호 신청을 해 놓은 터라 조계사 내에 농성용 천막을 치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백번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다. 보건의료산업 노조원들이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6개 지역병원에서 작게는 100여일, 많게는 1000여일씩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을 당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그들은 직장과 청와대, 국회에서 시위를 벌이고 명동성당 등에 도움을 청했었다. 명동성당이 시위장 제공에 난색을 표하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조계사까지 찾아왔다. 부처님 품안에서 도움을 받기위해 온 것이다.

불교계가 생존권을 지키고자 도움을 청하는 그들을 응당 따뜻하게 맞이해야 함은 인지상정이다. 조계종이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구차한 이유로 자비심을 포기한다면 또다시 불교계에 질타가 쏟아질 우려가 높다. 이미 불교환경연대, 실천승가회 등 9개 교계 단체는 "비록 보건의료노조가 농성장 사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한 점은 있지만,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그들의 농성장을 통보도 없이 철거하고 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한것은 자비종단 답지 않은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초겨울 떨고 있는 중생을 보듬어 안아주는 불교다운 아량이 기다려진다.

제도개선 시민위

국립공원 보존 100대 개혁의제 선정

사찰 수행권 보장-입장료 철폐-주민보상

스님, 시민, 사회단체대표, 지역주민들이 모인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가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100대 개혁의제를 선정하고 정부가 관련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공동대표 원택스님 이경재 최열, 이하 시민위)는 15일 각계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가가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역사문화유산, 야생 동식물보존 및 보호 등을 제 1원칙으로 하는 100대 개혁의제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100대 개혁의제는 자연생태계, 역사문화유산, 시설 및 탐방, 법제 행정 재정 개선, 지역사회 주민, 미래를 여는 과제 등으로 세분화되어 △국립공원내 사찰스님의 수행생활보장 △지역주민보상 방안 △입장료 철폐 △ 자연공원법 개정 등의 영역별 개선내용이 제시됐다.

시민위는 100대 의제를 추후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재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된 주제영역별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식물 보고 지키자"

자연생태계

국립공원에는 또 우리나라 총 서식동물 중 포유동물 75%, 파충 양서류 70%, 조류 71%, 담수어류 71%가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지정 특정 야생동물도 53종 가운데 45종(85%), 천연기념물 53종 37종(70%)을 차지하며 희귀 멸종위기 동물은 1409종 가운데 84종(60%)이 살고 있다.

식물도 총 157과 752속 2,369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식물상의 64.3%에 해당한다.

자연식생면적도 373㎢로 전 국토의 0.4%에 해당되나 그 면적의 90% 이상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다

국보·보물·사적 등 산재

역사문화유산

국립공원에는 조계종 교구본사 7개, 전통사찰 96개를 비롯한 약 313개 사찰이 소재하고 있다. 313개 사찰과 그 주변에는 국보 41점(56.1%), 보물 73점(65.3%), 사적 및 명승 3개소(66.7%) 등 전체 문화재의 약 16%가 산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문화재의 대부분이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오히려 개발 대상으로

시설 및 탐방

현 공원시설은 1967년 자연공원법을 제정하면서 규정했던 시설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자연공원법이 공원법으로 바뀌면서 자연공원이 개발의 대상으로 변질돼 오히려 각종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립공원은 우수한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을 지정 관리하는 곳이므로 관광지나 도시공원에서 조성하는 문화 체육시설을 축소하고 정비해야 한다.

체계적 관리 급선무

법제·행정·재정 개선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부터 도립, 군립공원까지 포괄하고 있어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저해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정책기능은 변화된 공원관리의 목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재정의 경우도 1년 관리예산 총액이 약 450억 원이며, 이중 정부출연금은 130억원에 불과하다.

토지등 국유화 추진



◇국립공원 제도개선시민위원회는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주민

국립공원구역 국유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입, 신탁, 토지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공원구역내 거주주민의 친환경적 생활패턴의 연구와 생활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 또 공원운영위 설치 및 공개토론방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공원지정 타당성 검토

미래를 여는 과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신규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하고, 20개 국립공원별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지정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국토 생태축을 연결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만큼 '국립공원의 날' 지정이 요구된다.

김원우 · 김철우 기자

"불합리한 제도 반드시 개선"

인터뷰 제도개선시민위 대표 원택스님



"현행 국립공원 관련 법률은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공원 내에 있는 불교문화유산이 잘 보존되도록 정부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100인 워크숍'에서 원택스님(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립공원 내 사찰환경과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물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의 원칙을 정부가 지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혁의제 선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다"며 "사찰소유 토지의 80%인 1억여 평 정도가 국립공원 안에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수행환경과 문화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현행 관리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공원 내 사찰의 개·보수 및 한국전쟁 때 소멸된 사찰과 폐사지 복원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우 기자

■국립공원 현황

산악형·해안형 등 20곳
공원내 사찰토지 10%

우리나라는 1967년 12월 19일 지리산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지역의 산과 바다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전국 국립공원은 지리산 설악산 치악산 한라산 오대산 속리산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등 산악형 국립공원 16개소와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등 해상·해안형 3개, 사적형국립공원으로 경주 국립공원 등 20여 곳이 지정돼 있다.

16개 산악형 국립공원의 면적은 총 3백82만5천㎢으로 전체 육지면적의 3.8%를 차지한다. 이중 한라산과 태안반도를 제외한 국립공원내 313개 사찰의 토지는 총 31만7천여㎢(9596만 여평)으로 10여%를 차지한다. 공원 내 사찰토지의 80%는 조계종 소유이다.

사찰이 국립공원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가야산이 41.54%(3만3천여㎢), 주왕산이 34.98%(3만 6천 여㎢), 내장산 27.44%(2만1천여㎢), 오대산 19.10%(5만7천여㎢), 월출산 16.07%(6만7천여㎢) 등의 순이다. 국립공원내 사찰 소유 토지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산림, 계곡, 명소나 공원의 주 출입로를 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원지역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원우 기자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아버지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헹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견성체험

"견성 체험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체험을 포착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수행도 뒤따라야 하겠지요(돈수와 점수)."
"아무리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도 방법을 모르면 성과는 미약하기 마련, 견성은 노력 없는 경지이기 때문이지요."

은담명상체험수행법

▪ 1단계(해오) :
지식적인 이해의 단계로 2-3일 소요됩니다. 단순한 삼매경험으로만 삶의 고뇌와 제행무상의 법을 통찰할 수 없겠지요.
▪ 2단계(돈오돈수) :
올바른 삼매 집중과 무위상태를 경험하는 단계로, 정확한 정심행처(正心行處)가 이루어지면 분별하는 마음은 쉬고 선심일체처(善心一切處)에 머무르게 되어 진아를 일별할 수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3단계(돈오점수) :
보임 단계로 초기 견성을 했다고 하여도 이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번뇌를 여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가 어떻게 수증(修證)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몫이 되겠지요. (2-3일 소요)

* 본 선원에서는 전통적인 틀에 입각하여 현대 서구 심리치료요법과 기타 치유기공 등 여러 명상법을 병행하여 수행자 개인에 맞춰 쉽게 그리고 1대 1로 전수합니다.
* 수행 총기간은 10일정도 소요되며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합니다. (지방이나 장거리에 계신 분들은 본 선원에서 숙박 가능).
* 수련비는 300만원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031-742-9859 으로 전화 주십시오.

은담명상체험교실·종익 합장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 하세요
현대 결혼 연구원을 믿어주신 은혜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잠시 어려운 중에 있어서
불자님의 결혼을 돕기 위하여
12월부터 당분간 서류대 전화비조로
상담후 등록회비를 40%만 받겠습니다.
뜻 있으신 분은 등록하시어 결혼 시즌에
혼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기본 30만원의 회비를 받고 운영하였으나
12월 부터 다소의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금액을 삭감하여 보시하는 마음 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정에 가득하시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합장

■ 大卒, 초·재혼신원 확실하고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입구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 679-5902
연구실 : 032)679-5902
휴대폰 : 011) 288-2944

- 목초 수액 시트 -
발 건강법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아침이상쾌해집니다



▲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 밤을 자고나서 수분(노폐물)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발에 붙이면 온몸이 상쾌해지며 일본에서는 매일 1만명 이상이 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이런분들은 더욱 좋습니다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굽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455-6944, 02]453-5851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③방편품 ❶십여시

방편이란 '방법, 교묘한 수단, 편리한 수단, 진실에 바탕을 두고 진실의 세계로 인도하는 수단' 등으로 해석되며,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 설한 가르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여러 가지 사연(種種因緣)과 갖가지 비유(種種譬喩)와 이론적인 이야기를 널리 펴서 말한 것(廣演言敎)'이라고 방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진리란,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此法不可示 言辭相寂滅) 방편을 통해 진리를 나타낸다고 한다. 천태 대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설법을 적문(迹門)이라 하고, 모습도 이름도 없는 진리 그 자체로써 진리를 설하는 부분을 본문(本門)이라 하며, 이렇게 무한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직까지 아무도 얻지 못한 최고의 진리를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勇猛精進 名稱普聞 成就甚深 未曾有法), 그 진리를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설하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隨宜所說 意趣難解)"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보살이 갖추어야할 일체지(一切智) 즉 평등상(平等相)에 대한 설법이 바로 십여시(十如是)이다. 십여시란, 일체의 현상(現象)을 열 개의 카테고리로 묶어 설명한 것이다. 즉 1)사물마다의 모습(如是相) 2)성질(如是性) 3)체상(如是體) 4)능력(如是力) 5)작용(如是作) 6)원인(如是因) 7)보조원인(如是緣) 8)결과(如是果) 9)과보(如是報)가 10)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사실은 한결같이 평등한 것이다(如是本末究竟等)는 말이다. 즉 현상계(有爲)의 모든 것은 천태만상이지만, 그 현상은 일시적인 인(因)과 연(緣)의 모임에 지나지 않을 뿐, 그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생명(眞理), 즉 절대(無爲)이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만물만상이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일체지를 증득토록 하여 보살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법화경〉은, 부처님이 임시로 범정(凡情)에 순하여 세간의 욕락(欲樂)에 수응하는 교설(世界悉壇)이나, 중생의 근기를 살펴 각각 근기에 맞는 각각위인설법(各各爲人悉壇)이나, 번뇌 · 악업 따위의 중생의 미망을 없애는 대치설법(對治悉壇)이 아닌, 제일의(第一義)의 이치를 설하여 진증(眞證)에 들어가도록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정직히 방편을 버리고 오직 위없는 깨달음만을 설한다(正直捨方便 但說無上道).

▩무설정사 조실

보살로 거듭나게 하는 가르침

현상은 인연 모임, 실상은 하나의 대생명

말한다. 그리고 〈법화경〉은 부처님이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그 뜻에 맞도록 가르침을 설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근기에 관계없이, 묻는 사람이 없는데도 몸소 증득한 것을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 즉 무문자설(無問自說)인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적문의 부처님이신 석존(釋尊)께서는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어, 그 지혜의 법문 즉 설법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諸佛智慧 甚深無量 其智慧門難解難入), 일체의 성문과 독각(獨覺)인 벽지불은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一切聲聞 支佛所不能知).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수많은 부처님들을 섬기면서 갖가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많은 부처님들이 행하신 모든 수행을 그대로 몸에 익혀(所以者何 佛曾親近 百千萬億 無數諸佛 盡行諸佛 無量道法) 온갖 장애를 용맹스런 마음으로 완전히 극복해 정진하니 그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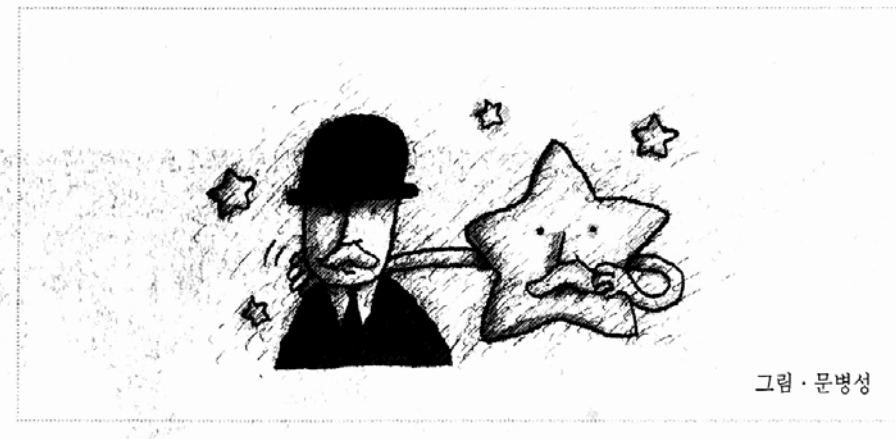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변화에도 如如… '별의 해탈'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주 ❺

불안정과 맥동

북극성 부근의 카시오페아 자리에 있는 델타 세페이드라는 4.5등급의 별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별은 5.4일을 주기로 밝기가 4등급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5등급으로 어두워 졌다를 되풀이한다. 이렇게 별 자체가 주기적으로 수축, 팽창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맥동 변광성'이라 부른다. 이 별의 경우에 크기는 10%(약 백만㎞), 밝기는 2배정도 변화한다.

맥동 변광성에서는 별 중심부에 발생한 핵 에너지가 별의 표면층 부근을 지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별 자체가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는 맥동 운동이 일어난다. 맥동 현상은 별이 처음 탄생해서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또 별 내부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메뉴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며, 늙어 가면서 팽창하여 큰 별이 되면 외층 물질에서 내부 에너지를 밖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원만치 못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별들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 형태의 맥동으로 밝기가 변화하는 변광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동 현상은 별이 태어날 때의 초기 질량에 따라 어떤 진화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광이 일어날지가 이미 결정된다.

별

주기적 수축 팽창 통해
안정될때까지 밝기조절

별은 불안정해지면 맥동운동을 하거나 또 밖으로 물질을 방출하면서 안정을 찾아간다. 따라서 별의 경우에 불안정한 상태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안정을 회복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맥동에 의한 변광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주기적으로 수축 · 팽창함에 따라 밝기도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고, 변광이 완전한 주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기성이 전연 없이 변광하기도 한다. 별이 노년기나 쇠퇴기에 접어들면 주로 비주기적인 변광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별의 변광주기는 수일 이내의 단주기에서부터 수백일에 걸치는 장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태양도 50억 년쯤 지나면 하루 정도의 변광주기를 가지는 맥동변광 단계를 거칠 것이다. 이때는 태양 중심부에서 헬륨이란 음식을 만들어 먹는 단계다.

인도의 용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고 있는 것은 간다." 이것은 변화상태('가고 있는 것')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진행된다('간다')는 뜻으로 만물이 유전 변천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별의 맥동현상도 별이 태어나 늙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주어진 변화에 순응하며 적응해 가기 위한 것이다. 인간도 별처럼 에너지(양식, 영양분)의 공급률이 변하거나 에너지의 전달 과정이 원만하지 못하면 불안정 상태를 맞게 되는데 과연 별만큼 변화에 순응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여러 종류의 불안정한 상태를 만나게 된다. 소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러한 불안정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외부의 영향으로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별의 경우와 달리 인간에게 닥치는 불안정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생활하면서 외부로부터 양식을 얻는 과정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때문에 불안정의 주기성이나 그 형태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의 질 자체가 대체로 정신과 육체의 복합적 상호관계에서 기인하므로 별과 달리 정신적 불안정과 육체적 불안정이 상호 증폭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 별처럼 밝기가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변화의 조화를 인간의 불안정 상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즉 밝기가 변한다는 것은 불안정이 생기면 이에 순응하여 에너지를 최소로 쓰면서 가장 안정된 상태로 회귀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표현일 뿐이다.

인간

유리하고 편한것 찾다
말년에야 순리 깨달아

편한 것이 있으면 불편함이 있고, 안정이 있으면 불안정이 있듯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는 상반되는 것이 거의 짝으로 나타난다. 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안정이나 불안정이 닥치면 자동적으로 그에 순응하기 때문에 편함과 불편함을 분별치 않으며 여여(如如)하게 지난다. 다만 과정마다 순응, 적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간의 경우는 어떠한가? 불편함을 피하며 편한 것을 찾고, 불안정을 두려워하며 안정을 선호한다. 그래서 불안정이 닥치면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기적인 방법으로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지나온 과거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만사가 다 그렇고 그렇다"는 여여함을 느끼면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자세가 변화에 대한 최소작용의 원리가 곧 불법임을 익혀 가는 올바른 수행의 길일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뉴욕테러 슬픔줬지만 종교간 화해 모색 계기

미국에서 종교간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종교의회(Parliament of World Religion)의 더크 피카(Dirk Ficca) 집행이사는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은 수많은 미국인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지 연구위원 청월 스님이 10월 30일 세계종교의회 시카고 본부에서 더크 피카 집행이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 정리했다. (편집자)

세계종교의회 더크피카 집행이사 인터뷰

지구촌 불교

◆미국 테러 참사 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국의 응징방식이나 대외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테러 피해국이기는 하지만, 군사보복 행위가 미국을 위해 올바른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폭력은 더 악화된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계는 '보복 공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이는 아랍계 나라 전체가 미국과 탈레반 정권의 전쟁에 참전하는 비극적 상황을 부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계종교의회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화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미 테러 이후 미국 내 아랍계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랍계 사람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총질을 한 백인이 "미국인으로서 할 일을 했다"며 떳떳이 말할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기독교계와 비기독교계의 분열은 물론 백인과 그 외 소수민족간의 갈등



"다른것 존중하고 서로 내몸과 같이 대해야 화합 싹터"

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종교의회는 국민들에게 테러리즘과 종교의 차이를 알리는 행사를 통해 양측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종교의회 시카고 본부에 '핫 라인'을 개설, 미국인들에 의한 아랍계인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아 해결하는 일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테러 이후 세계종교의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 테러 이후 뉴욕 한 이슬람 사원에서 개최한 '철야 화합 범종교인 모임'에는 2천여 뉴욕 시민이 참여, '평화와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세계종교의회 시카고 본부에는 지금까지 수천통의 감사 편지와 격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미 테러가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간의 이해와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이슬람협회 세이드 모하메드(Sayeed Mohenmed) 회장 역시 저와 같은 생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우선 모두가 서로 연관돼 공존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서로 존경하고 내 몸과 같이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티베트의 종교지도인 달라이 라마의 "다른 것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이 종교간 화합의 첫번째 강령인 것이죠. 결혼하지 않으면 성직자가 될 수 없는 시크교나 칭정 수행자의 길을 따르는 불교의 만남, 고기를 먹으면 악업을 짓는 것으로 믿는 힌두교와 '고기는 삶'이라는 아프리카 토착종교의 만남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제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꿈달리니, 메간과 텍회 차크라개발, 에너자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필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황인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필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필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전화주시면 (서비원구의 제품을) 수제처의 카다로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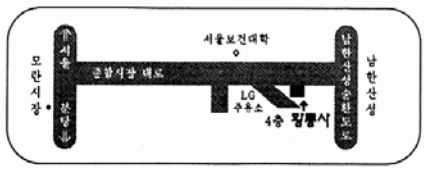
마인드테크 : (02) 888-2142

영가 천도재(49재) 안내



불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사정상 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지 못한 분들의 동참을 원합니다.
사업, 상업, 취업 각기 소원성취와 질병, 재난등의 해소를 위한 조상, 일가, 친척들의 천도재 입니다.
특히나 수자 영가(낙태아) 특별 천도재를 발원하니 산부인과 집도의사 그가족 해당 어머니들의 동참 원합니다. 성불 합시다.

● 입 재 : 2001년 양력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시예불 ~
● 결 재 : 2001년 12월 22일 회향(동지날)
[영가 1인당 5만원
[수자영가 1인당 3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666-21-0285-909 예금주 지덕용



황룡사 주지 금해

三論宗 中興祖 大汕大宗師 舍利塔
除幕 및 1週忌 追慕大法會案內

귀의삼보 하옵고,
본 종단의 중흥조이신 대산당 이혜봉 대종사의 사리탑 제막식 및 1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종도와 문도스님과 교계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45년 11월 25일 (음력 10월 11일)
◇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539-21 우암정사
◇ 주 최 :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대산문도회
◇ 후 원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 문의처 :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 02)433-9780
우암정사 : 043)852-3000, 4000

불기 2545년 11월 14일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석 혜 승
대산문도회 회장 정추봉
대산문도회 일동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대은 낭오 율사로부터 전승돼 온 금란가사를 수하고 있는 수진 율사.



◇해동율맥 제 10대 율사인 법홍스님(왼쪽)이 불자(拂子)를 제 11대 수진율사에게 전수하고 있다.

해동율맥 전수식 57년만에 재현

청정계율의 소중함 일깨운다

"입으로는 말을 삼가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며, 몸으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 삼업의 도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곧 불도이니라."

부처님 성도 후 12년까지는 계율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송을 규범으로 삼았다. 그런데 얼마 뒤 수디나가 음행을, 단니가가 도둑질을, 미가란카가 살인을, 바구강변의 비구들이 큰 거짓말을 범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계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불교는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청정하게 할 것을 강조하는데, 몸이 청정한 것은 율이요, 입이 청정한 것은 교이고, 마음이 청정한 것은 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를 제대로 지키는 불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10일 전남 담양 용화사에서 해방이후 57년만에 처음 거행된 해동율맥 전수식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만 가는 계율의 소중함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금란가사·의발·경전·염주 등 전달
원로스님들 증명 속 여법하게 진행

태고종은 물론 조계종 원로 스님들의 증명과 축하 속에 여법하게 진행된 이날 율맥 전수식은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 해인사 무관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이 증명한 율맥 전수식에서 해동율맥 10대 율사인 법홍스님(원효종 종정)은 용화사 주지 수진스님에게 율맥을 전수했다.

태고종의 구족계 및 보살계 수계법회에 이어 진행된 율맥 전수식은 3사(법홍, 혜초, 수진 스님) 7증사(천운, 지허, 운곡, 대운, 남파, 춘곡, 운산 스님)를 옮겨 모시는 이운(移運) 의식으로부터 시작됐다.

삼귀의례, 조인훈 용화사 신도회장의 화환 증정, 수진스님의 봉헌삼배가 끝나자 법홍스님이 9대 율사였던 묵담 대종사로부터 해동율맥의 상징으로 받은 법의(法衣)인 금란가사(金襴袈裟)와 의발(衣鉢, 가사와 바리때을 비롯 불자(拂子), 경전, 비로자나불인장, 염주 등 묵담 스님의 유품을 수진스님에게 전달했다. 수진스님이 금란가사를 수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3배를 올리자, 법홍스님은 율맥전수를 증명하는 족자를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수진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에 해동율종 제11대 율사가 된 수진스님은 봉대사를 통해 "해동율맥을 전수받게 이끌어주신 제방 율사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청정계율을 심명봉대하고, 윤리도덕을 회복해 지상불국토를 건설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게송을 올렸다.

"온전한 마음이 계요(全心是戒), 온전한 계가 이 마음이로다(全戒是心). 마음을 여의니 따로 계가 없고(離心無戒), 무계인즉 마음도 없음이로다(離戒無心)."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의 격려사,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의 축사에 이어 법홍스님은 전계사를 통해 "30년 전 전주 관음선원에서 묵담 대종사로부터 조촐하게 공식 법회의식없이 율맥을 전수받았으나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큰스님의 유언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다. 시절인연이 도래해 청정율사인 수진스님에게 계맥을 전하게 되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해동 전통율맥은 조선후기인 1826년 하동 칠불선원에서 대은 낭오스님이 7일7야의 걸계(乞戒) 기도과정에서 정수리에 부처님의 서광을 받고 '서상수계(瑞像受戒)' 하자, 그의 스승인 금담보명 스님이 상좌 대은스님에게 대계(大戒)와 구족계를 전수함으로써 비롯됐다.

대은 낭오스님이 결익 율사, 자장 율사, 진표율사 등에 의해 선양되어 온 해동율맥이 희미해져 감을 탄식하고 계를 구하는 기도에 들어갔듯이,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계율을 소홀히 하는 현실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경전에는 '선이란 부처님 마음이요(禪是佛心), 교란 부처님 말씀이며(敎是佛言), 율이란 부처님 행동(律是佛行)'이라 강조하고 있다. 즉 선과 교와 율은 세 모습을 갖고 있으나 결국 불법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기에, 선과 교와 율을 분별하여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닦아 나가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도를 깨달으려는 자가 반드시 닦아야 하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 역시 이를 강조한 말에 다름 아니다.

이번 해동율맥 전수식을 계기로 자발적인 도덕율인 '계'와 승가의 타율적인 규칙인 '율'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청정 수행기풍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이날 법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리라. 담양=김재경 기자(kjk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증명법사인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등 3사 7증사가 법단에 오른 가운데 거행된 율맥 전수식.

한국 율종(律宗) 약사

백제율종(百濟律宗)의 시조인 겸익(謙益) 율사가 성왕4년(526) 인도에 건너가 상가나사(常伽那寺)에 주석하면서 율을 연구하다가 인도승 배달다삼장(倍達多三藏)과 함께 산스크리트 율문(律文)을 갖고 귀국, 흥륜사에서 국내의 명승 28인과 함께 율문 72권을 번역한 것이 해동 율종의 시작이다. 이를 바탕으로 담욱(曇旭) 혜인(惠仁) 두 스님이 율소(律疏) 36권을 지어 백제불교의 계율이 정립되었다.

뒤이어 자장(慈藏) 율사가 635년 당나라에 들어가 종남산 운제사의 도선(道宣) 율사에게서 율을 수학하고 643년 귀국 후 대국통(大國統)으로서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설립, 남산종(南山宗)을 전립(傳立)했다.

그뒤 신라 경덕왕(742~764) 때 진표(眞表) 율사가 금산사에서 계법(戒法)과 점찰법(占察法)을 수행하고 속리산 법주사, 팔공산 동화사에서 법상종(法相宗)의 종지를 크게 선양했다.

조선시대에는 추사 김정희가 지은 '백파긍선 비명(白坡亘旋 碑銘)'에 "해동 칠불암에서 7일7야 '계'를 구하는(乞戒)' 기도에 임할 때 이마에 상스러운 빛이 내리고 저절로 향에 불이 붙어 '서상수계(瑞像受戒)'한 것이 오늘날 전래된 해동율맥의 연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대은낭오의 계맥은 스승인 금담보명에게 전수되고 초의의순(草衣意詢, 1786~1866),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 제산정원(霽山淨圓), 호은문성(虎隱文性), 금해관명(錦海瓘英, 1856~1926), 묵담성우(默潭聲祐, 1896~1981), 혜은법홍(慧隱法弘, 1915~) 율사에게 전해져 제 11대 수진스님에 이르고 있다.

백제 겸익율사서 비롯
대은낭오의 계맥 이어져

9대 율사 묵담스님



평소 "계율은 삼세제불이 출현하신 큰 법규이고, 사부대중이 성위에 오르는 중요한 문"이라고 강조한 묵담(默潭, 1896~1981)스님은 현대 불교사를 대표하는 청정율사로 손꼽힌다. 1896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한 묵담스님은 1906년 장성 백양사에서 순오 선사를 은사로 출가득도 후 백양사 불교 전문강좌를 졸업하고 제방선원에서 70여 안거를 성만했다. 태고종 종정을 다섯차례 역임하고 81년 담양 용화사에서 세수 86세, 법랍 75년으로 입적했다. "수행자에게 있어 계율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정각을 이룰 수 없고 부처도 이룰 수 없다"는 묵담스님의 법어는 현 승가의 수행상을 돌아 보게 한다

10대 율사 법홍스님



이번 율맥전수식을 위해 대전 보문사에서 100일 묵언수행을 마친 법홍스님은 87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시자를 두지 않고 손수 빨래를 하는 등 청정계행을 지키고 있다. 1915년 서울에서 출생한 스님은 23년 안양 삼막사에서 출가, 30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운학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35년 영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36년 건봉사에서 대교과를, 40년 일본 동경 입정대학 종교과를 수료했다. 51년부터 부산 금수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62년 원효종 초대 총무원장, 76년 일본 보림사 주지, 97년부터 원효종 제2대 종정을 맡고있다. 53세의 나이에 일본에서 천태종 전교대사 밀교수행을 120일간 마친 후, 2년후 다시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280군데의 절과 불상을 참배한 회봉수행을 마쳐 일본 불교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11대 율사 수진스님



율맥 전수식까지 100일 관음기도를 마친 수진스님은 조선중기 이후의 화담, 금해, 묵담스님으로 이어진 복장(腹藏)의식을 물려받은 이 분야의 권위자다. 예수재, 수륙재 등 불교 전통의식에도 능한 수진스님은 1948년 전북 완주에서 출생했다. 69년 전주 영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묵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 보살계를 수지했다. 73년 해인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77년까지 해인사, 봉도사 극락암, 서울 백운암 등에서 참선정진했다. 77년부터 81년까지 묵담스님으로부터 불교 전통의식을 전수받고, 90년부터 담양 용화사 주지, 담양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세라돌 염주 세트

「 피라닷 구조로 되어있으며 산부의 빛으로 알려진 원적외선을 발생, 방사이어 영계 활성화 및 자정작용 등의 효능이 있으며 착용만으로 체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건강유지에 효과적이며 제 4의 금메리 입증되는 천지파를 차단하는데 뛰어난 효능의 제품입니다. 」



남성용
· 구 성 염주 + 단주 + 핸드폰줄
· 재 질 세라믹
· 규 격
· 염 주 405mm(구슬갯수 90개)
· 단 주 162mm(구슬갯수 36개)
· 핸드폰줄 76.5mm(구슬갯수 17개)
· 가 격 : 30,000원



여성용
· 구 성 염주 + 단주 + 핸드폰줄
· 재 질 세라믹
· 규 격
· 염 주 405mm(구슬갯수 90개)
· 단 주 162mm(구슬갯수 36개)
· 핸드폰줄 76.5mm(구슬갯수 17개)
· 가 격 : 40,000원

한방 속옷 세트

「한방팬티는 옛부터 전해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한방의류로서, 기존의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으로 염색한 의류와는 전혀 다른것, 황토, 숙등 인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약재로 염색 처리한 한방내의 입니다. 」



남성용
· 소 재 면 100%
· 구 성 숯, 황토, 쑥
· 사이즈 95, 100, 105
· 특 징 건강을 위하여 최음부분에 옥기루 부착
· 가 격 : 29,000원



여성용
· 소 재 면 100% (60수)
· 구 성 숯, 황토, 쑥
· 사이즈 85, 90, 95
· 가 격 : 29,000원

Mahamall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www.mahamall.co.kr 문의전화 : 02)732-1520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청허선사 '聲覩'

선사의 법명은 휴정(休靜), 법호는 청허(淸虛), 서산(西山), 자는 현응(玄應), 속성은 완산 최씨이며, 중종 15년(1520)에 태어났다. 선사가 3살 되던 해 부처님 오신 날 아버지 세창은 낮술에 취하여 마루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 때 괴상하게 생긴 한 노인이 나타나 "아기 스님(小沙門)을 뵈러 왔습니다"고 말하고 두 손으로 아기를 받쳐 들고 경(經)을 외었다. 노인은 독송을 한 후 아기를 내려 높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아기의 이름을 운학(雲學)이라 하고 소중히 키우시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였다.

선사는 아홉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열 살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었다. 고아가 된 선사를 안주목사 이사중이 양아들로 삼았다. 선사는 양부를 따라 한양으로 와서 유학을 공부하였으며, 15세에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했으나 떨어지자 동료 문생들과 삼남(三南)의 산천을 유람하였다.

두류산, 지리산, 청학동, 칠불암 등 산과 절로 6개월여를 돌아 다녔는데 영원암에서 한 노숙(老宿 : 법이 높은 선사)을 만났다. 노숙은 선사를 보고서 "그대의 용모를 보아하니 심공급제(心空及第 : 마음이 허공처럼 광대하면서도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대자유의 경지에 올라간 것)를 하면 영원히 세상의 명리를 끊고 고통을 떠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선사는 "어떤 것이 심공급제입니까"라고 물었다. 노숙은 눈을 꿈뻑(瞬目)하며 "알겠느냐"고 물었다 선사는 "모르겠습니다"고 대답했다. 다시 노숙은 "심공급제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야"하고는 〈전등록〉, 〈화엄경〉 등 수십 권의 경전을 주면서 "부지런히 읽고 생각하면 점차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선사는 한양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열심히 경전 공부를 시작했다. 6년째 되던 어느 날 경전 속에 숨겨진 오묘한 가르침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각문(覺門)

忽聞杜宇啼窓外(홀문두우제창외)
滿眼春山盡故鄕(만안춘산진고향)
汲水歸來忽回首(급수귀래홀회수)
靑山無數白雲中(청산무수백운중)

홀연 들려온 소쩍새 소리에 창밖을 보니,
봄빛에 물든 온 산이 모두 고향이구나.
물 길어 오는 길에 문득 머리 돌리니,
수많은 청산이 흰 구름 속에 솟았네.

선사는 도솔산으로 가서 학묵 선사 회상에 나아가 수참하여 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리산 삼철굴, 사불산 대승암 등 여러 선방에서 몇 년을 보낸 후 남원에 사는 벗을 만나러 가는 도중 한 낮에 닭 우는 소리에 확철대오하였다.

천언 만어의 경전들
본시 하나의 빈 종이

성관(聲覩 : 소리에 볼타를 보고 깨우쳤네)

髮白非心白(발백비심백)
古人曾漏洩(고인증루설)
今聽一聲鷄(금청일성계)
丈夫能事畢(장부능사필)
忽得自家底(홀득자가저)
頭頭只此爾(두두지차이)
萬千金寶藏(만천금보장)
元是一空紙(원시일공지)

머리는 세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사람이 이미 말했네.
오늘 닭 우는 소리 들으니,
대장부 할 일 다 마쳤네.
홀연히 네 집을 발견하니,
모든 것이 모두 이것이어라.
천언 만어의 경전들이,
본시 하나의 빈 종이였어라.

선사는 운수납자로 유유자적하시다가 선조 37년(1604) 1월 원적암(圓寂庵)에서 가부좌를 한 채 입적하였다. 세수 85세, 법랍 67세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은사이신 해안당 대종사 행적비 앞에 선 혜산 스님. 감동적일 만큼 두터운 사제의 정을 '수행 도량 만들기'로 이어오고 있다.

혜산 스님은? 1933년 전북 정주에서 나신 스님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후 해안 대종사를 은사로 내소사로 출가하셨다. 1973년에 내소사에서 해안 대종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이듬해에는 해인총림 선원장을 지냈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규정원 규정위원, 총무원 사회부장, 서울 조계사 주지, 부산 동명불원 주지 소임을 두루 거쳐 현재는 내소사에 주석하신다.

이처럼 수행과 행정 양면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지만 '성불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적자가 아니다'는 해안 스님의 뜻을 받들어 어떤 소임으로 살든지 수행이라는 본분사를 지키기에 흐트러짐이 없으시다. 그 뜻의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선원을 열어 '하안거' 결재를 했고 지금은 동안거를 날 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수행 도량으로서의 사격을 갖추고자 하신 노력이 거의 결실을 본 것이다.

또한 스님께서는 젊은이나 재가자들의 수행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일찌기 전국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지도 법사단장을 맡기도 하셨다. 현재는 해안 스님 생존 당시에 결성한 '전등회'의 회주 일도 겸하고 계신다.

"성불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혜 산 스 님 (내소사 회주)

세상에서 물러나는 방식(出世間)으로 세상과 화합회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스님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격하지만 중생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애롭기를 발원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스님이다. 그래서 모든 승가는 종파를 불문하고 '자비문중'일 수밖에 없다.

고우면서도 유약해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도 고즈넉함을 잃지 않는 절, 내소사. 언제 보아도 갓 쓸고간 싸리비 자국처럼 정갈한 도량이다. 이런 곳에서 스님을 뵙는 일은 참으로 기쁘다.

'격의 없음'의 높은경지

마지막 가을 햇살이 색색의 단풍으로 빛나는 내소사 뜨락에서 혜산 큰스님을 뵈었다.

"성불하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단풍놀이삼아 절 구경 온 듯한 아주머니 한 분이 합장 인사를 건네자, 스님 또한 허리구부려 맞아들이신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행운이라면 행운이다. 백 마디 법문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 산 공부인 셈이다.

스님을 따라 단풍 고운 경내를 한 바퀴 돌았다. 슬며시 다가와서 무례(?)하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모델(?)이 돼 주신다. '격의 없음'의 높은 경지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스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대해 주셨다. 그런데 가까이서 그런 모습을 지켜 보는 나는 오히려 수시로 매무새를 가다듬게 된다. 진정한 권위란 외형적 위엄이나 위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

그렇다면, 현실 속의 이러한 스님의 면모가 순전히 스님의 개성이나 수행 공력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그밖의 다른 무엇이 있는 걸까? 이 대목에서 우선 스님을 둘러싼 많은 것들, 이를테면 출가 인연이나 수행 이력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고교 시절에는 교회에 다녔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는 데 회의가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년을 헤매다가 교회 나가기를 그만 뒀지요. 의심이 가시지 않으니까. 그 당시 나에게 '절대절명'의 과제는 오로지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 어느 절에서 우연히 해안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접하게 됐어요. 서문을 읽는 순간부터 가슴을 치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거다 싶어서 밤새도록 베낄 정도였지요."

그야말로 우연히 인생의 전환점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출가 수행자로서의 시절 인연은 도래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해안 스님과의 인연은 움을 틔우기 시작한다.

"대학 졸업 후 은사 스님(해안)과 서신 왕래가 시작됐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편지로 여쭈었지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자상하게 답변을 해 주곤 하셨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은사 스님께서는 법문하실 때 간혹 편지를 꺼내 보이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삼년 동안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오늘날처럼 전화가 흔한 시절도 아니었으니 그 사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절했을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전부 이럴 수 있다면,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반목과 다툼은 발 붙일 자리조차 없을 텐데, 하는 상상(?)을 해 본다.

시절 인연은 무르익기 시작하고, 드디어 스승과 제자는 상봉의 날을 맞는다.

"은사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지장암(내소사 부속 암자)에서 '특별 정진 법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정진 법회란 뭔고 하니, 스님들처럼 안거를 할 형편이 못되는 불제자를 위한 정진의 자리였어요. 이걸 두고 요즘와서는 '재가선방'의 효시라고들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디 은사 스님께서는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승속 불문이셨어요. '본래면목'을 보는 것, 이것이 불교의 근본 종지라는 점에 누구보다도 투철하셨지요. 안거가 불가능한 보통의 신도라고 해서 심인을 증득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견성하지 못하면 온전한 불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스님께서는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발심의 동기 또한 단순한 흥미 이상이다.

"은사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어요. 못난 놈도 일 주일이면 깨친다고요. 이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나는 그때 '확철대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진 법회가 끝나고도 절을 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가느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그랬죠. 일을 못 마쳐서 못 갑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머리를 깎았어요.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안 스님에게서 혜산 스님으로 이어지는 내소사라는 절집의 '가풍'을 읽을 수 있다. 재미삼아 스님의 지난 얘기를 들춘 게 아니라, 바로 그점을 얘기하기 위해서였다. 그 하나, 성불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인연 닿는 중생 모두에게로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한국 불교가 정화의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승속을 불문한 일종의 수행 결사체인 '전등회'를 만든 것이 좋은 예다. 지금은 면모를 일신한 서울 성북동의 전등사도 해안 스님 당시에 서울

KBS 아침마당 목요초대석 출연!!
설산스님의 맑은 영혼과 사랑 이야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순수한 알몸이 되어 간다
알몸이야기
설산 스님 시집
마음의 평온이 어디서 오는가?
뭇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던 설산스님의 '알몸철학'을 만나십시오!!

신국판변형/
170쪽/6,000원
알몸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천진 무구 순수 어린이의 마음
그 세계는
아무 걸림없는 무애의 세계
자비를 탄생시키는
절대 초발심의 그릇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곧
자신을 편케 하는 것이다
알몸으로 세상을 연다
-본문 중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즐거운 아이처럼 알몸이 되리라
3 백만문화사 대표전화(02)325-5176 팩스(02)323-76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 422-2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기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윤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걸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집몽 총론)〉 〈태몽, 그 출생의 비밀〉 〈꿈풀이 삶풀이〉
■ 부록 〈길흉 부부궁합〉

정현우 박사 지음/신국판 /값 17,000원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흉운을 길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집생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와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자까지의 뜻

문길여 著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원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택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운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 정현우 저 /정가 17,000원
17. 명가홍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저 /정가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출가전 '무엇이 진실이냐' 의문
해안스님의 '금강경 강의'
서문 읽는 순간 가슴 뭉클

지역의 불자들을 위해 수유리에 터를 마련한 것을 혜안 스님께서 70년대 말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기반을 다지게 된다. 지금도 내소사에서는 매년 3월 초하루부터 해안 스님의 기일인 7일까지 특별 정진 법회를 연다. 내소사의 이런 가풍은 이렇듯 뿌리가 깊다. 약간의 침소봉대를 무릅쓰고 시간의 저편으로 거슬러올라 가 보자.

내소사의 창건은 백제 무왕 34(633)년 해구 두타(惠丘頭陀) 스님에 의해서다. 두타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시작부터가 오로지 불도를 닦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 도량이 바로 내소사인 것이다. 그후 조선 인조 11(1633)년 청민(靑旻) 선사가 중건을 하고 구한말(1902년)에는 대강백이자 율사이셨던 관해 선사가 당시 땡초의 소굴로 전락한 절의 면모를 일신했다. 이후 만허, 해안, 그리고 오늘날의 혜산 스님으로 그 맥이 이어진다.

은사스님 기리는 '해안집'

그럼 여기서 잠시, 혜산 스님의 성불론에 귀기울여 보자.

"불제자라면 마땅히 성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엄두가 안나면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성불 못할 이유가 없다' 하고 말이예요. 만약 불가능 요인이 있다면 그건 인과 때문이예요. '본래부처'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처의 삶이 어려운 것도 그것 때문이예요. 그런데 선의 차원에서 보면 이런 말이 군소리로 들려요. 하지만 중생의 편에 서서 보면 방편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할(喝) 방(棒)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중생은 아직 깨치지 못한 부처예요. 다만 무시이래로 지녀온 습성 즉 습기(習氣) 때문에 경계에 부딪칠 때마다 그 경계에 따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말이예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때리면, 이 또한 어느 생에선가 내가 그 사람을 때린 과보로 알고 먼저 '미안하다' 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인과를 아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평생 살다 보면 최소한 고의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금생의 선행으로 다생의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지요.

숙세에 걸친 이 '습기' 라는 걸 쉽게 말하면 '버르장머리' 예요. 이걸 고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과' 의 도리를 확실히 알고 성불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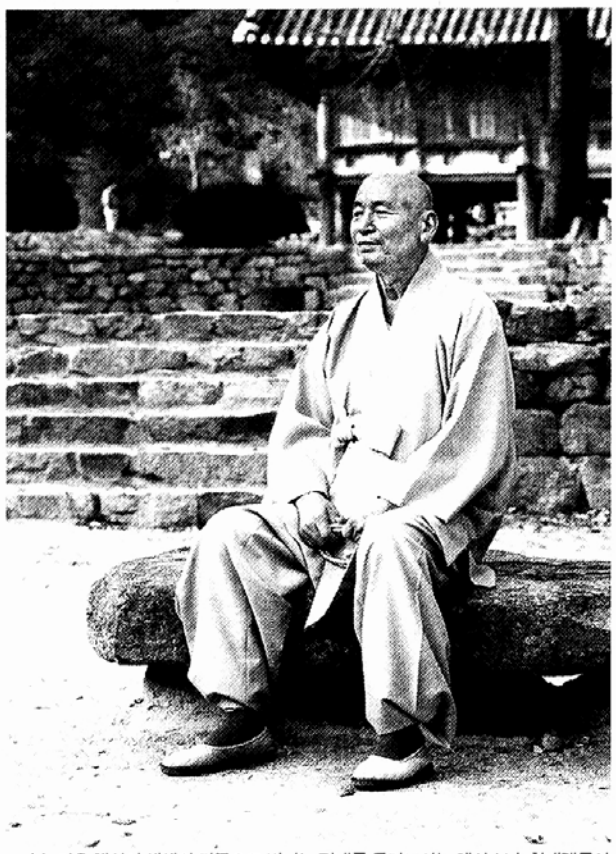
여기서 또 내소사의 가풍 하나를 읽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쉽게 불법을 전한다는 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체득해야 합니다. 체득하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싹 가셨으니까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가다가 돌아서고 가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합니다. 소용없는 '앎' 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일찍이 쉬운 법문을 주창하셨어요. 금강경과 반야심경, 십현담에 대한 해설도 탁월하시지만 강의 노트를 보면 거의 순 한글이예요.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계합한단 말이예요.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법을 설할 수 없어요. 한 예로, 대부분의 〈반야심경〉 번역문을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를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하는데 해안 스님께서는 '깊이' 라고 번역하셨어요. 단 한자 차이지만 뜻을 새겨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는 단순한 번역 기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계합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법문은 쉽고 시원합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바로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법문을 하고, 게송도 한글로 하고 그럽니다."



◇늦가을 햇살이 색색의 단풍으로 빛나는 경내를 둘러보시는 혜산스님. 참배객들이 무언가를 물을라치면 사소한 것까지 자상하게 일러주신다.

혜산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사 스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자주 언급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두 분의 모습이 포개지기 때문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의 정이 너무도 도톰다는 점이다. 이 또한 내소사라는 절집의 돋보이는 점이다. 어느 절집이고 안 그런 데가 있을까만 내소사는 각별하다.

누구에게나 쉽게 법문

"이번에 은사 스님이 남기신 법문이나 경전 번역·해설을 모아서 〈해안집〉이라는 이름으로 세 권의 책을 냈어요. 입적하신 지 27년만의 일이지요. 20년전 쯤에 1권을 간행했습니다만 거기에 담지 못한 글과 녹음을 이번에 정리했어요. 60년대 초중반부터 스님을 모시면서 법문을 하실 때마다 녹음을 했는데, 스님 가신 햇수가 더할수록 참 잘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승에 대한 태산 같은 신뢰가 듣는 이의 가슴까지 뜨겁게 한다.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사제의 정을 내소사에서 본다. 또한 그런 관계가 혜산 스님과 제자들과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물러나는 인사를 올리고 나니 어느새 저녁 공양 시간이다. 사중 스님들의 배려로 큰스님 곁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스님께서는 반 정도 밖에 안 담긴 밥을 다시 반쯤 덜어내 놓으신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절밥이 꿀맛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스님께서는 덜어낸 밥을 다시 그릇에 옮겨 마저 드시는 게 아닌가.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들고 분위기를 살피니, 다른 스님들은 이미 숟가락을 놓고 정좌 중이었다. 혹시나 내가 민망해 할까 봐 일부러 밥을 더 드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배보다 가슴이 먼저 불러왔다.

윤제학 기자 yunjh@buddhapia.com

선행닦아 성불원인 심어야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과거 생의 과보로 알고 반성



◇이제 곧 겨울이 오면 내소사 선원에는 방장산 만큼이나 기개 드높은 수좌들이 도여들 것이다.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자용 스님

불교방송의 어린이프로인 '룸비니동산' 을 듣던 나는 진행자의 간지럽고도 낭랑한 목소리에 그만 웃고 말았다. 저 보살은 목소리가 저렇게 간드러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여기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비구니 자용 스님이라고 했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웃었더니 왜 그러냐고, 허파에 바람이 들었냐고 한다. "방송만 듣고선 아무도 스님인줄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요상한 목소리를 내고 그래요? 하하하!!" "그래? 내 목소리가 어때서! 스님처럼 억센 목소리로 방송 하면 애들이 다 도망가겠다. 소위 스님같이 어린이 법회를 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어쩌누? '눈높이' 몰라? 내가 '룸비니동산' 맡아 진행한지가 언젠데 이제야 듣고 전화하면서 무슨 잔소리람."

맞는 말이다. 방송용 언어가 반드시 있을 텐데 어련히 알아서 했으련만 괜히 한마디 던졌다가 지청구만 들었다. 스님은 중앙승가대학 선배다. 선배 스님이지만 내겐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다. 오래 전 여수포교원에 계실 때 여름불교학교를 도와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포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넘쳐나든지 내가 그 불길에 델 것만 같아 그만 뒷걸음치고 싶었을 정도였다. 스

'룸비니동산' 의 목소리
스님 나서면 만사형통

님은 포교원의 모든 스케줄과 어린이·중·고등법회와 청년법회, 거사법회까지 보살피고, 불교도서관내에 방과 후 공부방까지 운영하며 아이들 간식과 늦은 밤 야식까지 손수 만들어 먹일 정도로 의욕이 대단했다. 새벽시간엔 입시생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깔아놓은 이불 위에 잠시 꽃잎처럼 몸을 뉘었다가 바로 나가버리기 일쑤였다. 철인 삼종경기가 아니라 철인 10종 경기에 출전한 사람 같았다. 여수 근처에 있는 사찰들의 법회까지 봐주러 다니고 있었으니 내가 놀란 것은 당연했다. 열정에 감동한 나는 몇년간 들락날락하며 여름불교학교 일을 도와드렸다. 그 후 스님은 전주 귀신사를 거쳐 지금은 평창 극락사에 계신다.

작년 겨울에 그곳을 찾아갔다. 낡고 퀴퀴했던 유치원을 새로 신축하여 원생이 130명이 넘는다고 했다. 평창은 아주 작은 곳인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니다니! 놀랍다고 하자 자용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여름불교 할 때는 300명쯤 모이거든. 그 녀석들 절반은 교회 다니는데 여름불교학교만 하면 와. 난 그게 굉장히 신이 나요! 내가 극락사 오기 전엔 다 여름성경학교에 갔던 애들이니 해마다 녀석들을 극락사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게 환희심 날 일 아냐?"

스님은 마치 고만고만한 아이들과 같은 말투로 신이 나서 말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서인지 이럴 때의 스님은 정말 아이같다. 유치원을 한바퀴 돌고 나자 자용 스님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고 바람을 말했다.

"불교계에서 교구본사 단위로 운영하는 종립학교들이 곳곳에 있었으면 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까지만이라도 불자들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닌, 수준높은 학교를 세웠으면 해. 그런 날이 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텐데… 오겠지, 그런 때가!"

종단의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그 신나는 불사를 이룰 수 있겠지만 아직은 요원한 일처럼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일까? 스님에게 요새 비슷한 일이 맡겨졌다. 중앙승가대학 부설로 운영되어오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실장이란 소임을 맡게 되셨다. 신문에서 운영부실과 재원부족,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니 그 대책으로 아마 스님에게 맡긴 것 같다. 92년부터 그곳을 졸업한 이들이 1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최고의 투자와 시설을 갖추었어야 했던 사업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던 바



다른 학교와의 경쟁력에서 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스님이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본 궤도에 올려 놓을 지 걱정이 앞선다. 어떻게 힘이 되어드릴 순 없나 싶어 만났는데 대뜸 하는 말.

"스님, 아는 이들 중에 집에서 노는 사람 있으면 공부하라고 좀 보내라. 직업으론 최고잖아? 보낼꺼지? 그렇게 알겠어! 그리고 요새 엄마들이 문제야, 엄마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부모입네 하면서 아이들 마음을 너무 몰라줘.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거든, 이런 사람도 보육교사 공부 좀 해야 한다고 봐. 아이들의 행동 저 너머에 무슨 생각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좋은 엄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졸업하면 취직도 다 시켜줄 수 있으니 보내주라, 사람들!" 그러면 그렇지, 자용 스님이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벌써 나부터 스님 생각에 공감케 하도록 만들었으니 보나마나 위기의 보육교사교육원은 조만간 많은 불자들로 넘쳐날 것이다. 스님의 그 불타는 정열의 불꽃으로 안암골을 환하게 빛내시리라 믿는다.

서울 반야사 주지

사람을 찾습니다



▪성 명 김종조
▪나 이 41세 (1960년)
▪신 장 173cm (체중 60kg)
▪가출일시 2001년 4월

■특 징 : 스포츠머리 당시 야구모자를 쓰고 다님

"종조야 부처님을 좋아 하니까 혹시 절에 있으면 전화좀 해다오. 찾는 것이 싫으면 찾으러 안가도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 엄마는 더 감사드린다. 부디 전화해다오."

어떤 절이던지 스님께서 김종조 보셨으면 전화 좀 해주세요.

어머니 김복점

■연 락 처
·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망천) 44번지
TEL. 041) 951-6848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대우경남 APT 203-207
TEL. 031) 674-1961

목초액수액시트

"발바닥에 붙여 몸속 독을 빼는 배독요법"
일본 화제의 상품!!

효과 없을 시 환불!



◆판매가
3O매 44,000원/국산
6O매 85,000원/국산
5O,000원/30매 일본산
9O,000원/60매

▶ 발과 불편한(목, 어깨, 허리, 팔, 무릎등)부위에 사용 경쾌하게 합니다.
▶ 자고나면 몸속 노폐물이 누렇게 변한 것을 직접 확인
▶ 발에 붙여서 상쾌하고 쾌적하게 하여 주는 건강상품
▶ 일본 히트 상품 / 국내 인기 상품

인터넷 : www.gaja.tv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께 효도선물
몸이 붓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피로하신 분, 종일 서서 일하는 분(매장근무), 산후조리, 운동 선수 / 항상 피곤한 분, 각종 사고 후

가자목초
(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이수열

모 집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딜러

참나체험 chamna chehum

하루가 부족합니다.

불교의 참나, 주인공,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선도의 상제, 동학의 한울님
등으로 불리는 참나체험

하루면 충분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먼저 공부한 분들과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한마음의 바다에서 그대의 업장을 녹여
참나를 발현케 하므로….

그대는 수많은 전생을 통해 수행 해 왔으므로
찰나가 영겁인 진리의 바다에서
하루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하루가 부족합니다

수행문의
대전본원 : 042)533-0569
서울 강남지원 : 02)543-2849
신촌지원 : 02)392-5165

*영가의 장애
원인모를 질병
신기가 있는 분
일이 잘 안되는 분
짧은 시간에
극복이 가능합니다

생활참선 제 5의 수행법

참나체험 www.chamna.net

3일안에 깨쳐라!

마음과 육체 없음을 체험!
마음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내적평온. 모든 정신적 심리적 얽매임으로
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경지를 얻습니다

時空 없음과 生死 없음을 체험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
(유전자)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조상님들의 영혼을 천도하며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실현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됨을 체험
참마음 수련 중 오랜 질환도 다스려져
새로운 건강과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위치 : 강원 홍천 공작산 (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문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춤마음수련원
心田堂 (구 대광사)

가을 끝자리 화랑에 가면

열리는 눈과 마음

쌀쌀해진 날씨가 겨울을 재촉하는 이맘때 쯤이면 화랑가를 찾는 이들의 발길도 한결 뜸해지게 마련이지만, 요즘 화랑가는 생동감이 넘친다.

파격적인 불상 작품을 선보이는 안성금씨의 '전시중 - 전시중(戰時中 - 展示中)전', 불교 목조각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볼 수 있는 '목조각 전승전', 법주스님의 '달마선묵전',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 '퇴계 이황전' 등 다양한 전시회가 잇달아 열린다.



◇12일 대구 관음사에서 열린 '달마선묵전' 개관식에서 직접 달마도를 그려 보이고 있는 법주 스님. 사진=대구 손법천 지사장

목조각장 전승전 · 달마선묵전 · 퇴계 이황전 등 열려

▲ '변상도전' = 국립중앙박물관은 11월 '이달의 문화재'로 변상도(變相圖) 세 점을 선정, 2층 로비에서 한 달간 전시한다. 고려시대 작품인 '대방광불화엄경 제47권 변상도'를 비롯, 조선 태조의 셋째 아들 방의가 악안대군 시절 정혜옹주와 함께 시주한 '묘법연화경 제5권 변상도', '화엄경 행원품신중합부'가 선보인다. 02)398-5077

▲ '전시중 · 전시중전' = 불상과 화엄경, 스님 등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을 선보여 온 작가 안성금씨의 전시다. 12월 9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도 안씨는 불상 연작과 컴퓨터를 이용한 설치작품 25점을 선보인다. 02)720-1020

▲ '목조각장 전승전' = 제3회 목조각장 전승전이 30일까지 여주 목아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지정 5년을 맞은 박찬수씨의 '관세음보살좌상'을 비롯, 송근영씨(전통문화재조각회 회장)의 '석가모니불좌상' 등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031)885-9952

▲ '달마선묵전' = 달마선원 주지 법주스님의 '달마선묵전'은 30일까지 대구 영남대학 관음사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달마도를 비롯해 포대화상도, 산수도, 경명주 사관음도, 한산습득도 등 150여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053)472-6268

▲ '퇴계 이황전' = 12월 9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퇴계 이황'전은 조선시대 위대한 도학자 퇴계 이황(1501-1570)의 삶과 문학, 예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퇴계 탄신 500주년을 겸한 이번 전시회에는 '유계(遺戒)', '계산잡영(溪山雜詠)',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매화시첩(梅花詩帖)'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02)580-1513

▲ '풍경전' = 서울 신문로 성곡미술관이 마련한 김보중 초대전 '풍경'은 보잘것 없는 나무줄기, 플랙이는 낙엽과 마른 흙바닥에서 움직이는 생명의 경이를 담은 전시다. 숲을 주제로 한 김씨의 최근 작품과 와선(臥禪)하는 티베트불교의 이미지를 담은 90년대 작품 등 회화 · 설치 · 드로잉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30일까지. 02)737-7650

▲ '시간의 빛깔전' = 청주대 김택상 교수의 여덟 번째 개인전이다. 맑고 투명한 색채들이 조금씩 배어들고 번져나간 형상을 통해 감각적이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추상화 1백30점이 전시된다. 12월 13일까지 서울 청담동 카이스갤러리에서 열린다. 02)511-0668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교계 첫 불교만화 공모전

12월 1일~내년 1월 20일



◇사이드스코프에서 개발한 '동방지국천' 캐릭터.

만화는 이제 더 이상 일부 마니아 계층의 문화가 아니다. 이미 인터넷과 캐릭터, 홍보 사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만화를 불교 포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개원한 불교만화연구소가 새로운 포교문화의 장을 열 교계 최초의 불교만화 공모전을 연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제1회 불교만화 공모전은 미래불교의 희망인 청소년 불자들이 즐겁고 창의적으로 불교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적 소재가 담긴 모든 장르의 만화로 단편, 네컷 만화, 일러스트, 만평 등 장르와 편수의 제한은 없다. 공모기간은 12월 1일~2002년 1월 20일이다. 신청서는 불교만화홈페이지(www.okbuddha.com)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053)474-8228

이은자 기자

주제가 있는 여행으로 초대

관광공사 '가볼만한 곳 100선' 펴내

한국관광공사는 내국인들의 국내여행을 장려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추천 〈2001년 가볼만한 곳 100선〉 책자 5,000부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2000년 가볼만한 곳 100선〉에 연이은 시리즈로서 2000년 중 추천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월별 테마여행지 100곳을 선정, 국내의 여러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겨울 베낭여행 코스로 칠갑산 장곡사와 수덕사, 강진 백련사, 화순 운주사 등을 꼽았고, 단풍철 유적 답사지로는 고성 건봉사, 월보산 각연사, 천태산 영국사, 호구산 용국사, 영광 불갑사, 서운산 석남사 등 을 선정했다. 또 전통마을 탐방 코스, 장터기행, 꽃나들이, 숲나들이, 그리고 연말에 가볼 만한 추억의 일몰명소 등 월별로 특색 있는 주제 아래 교통, 숙박 정보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관광공사가 단풍철 유적답사지로 추천한 건봉사.

문화소식

불교음악 창작곡 발표회



우리 찬불가를 창작 보급해 온 중앙대 음대 정부기 교수(사진)의 '불교음악 창작곡 발표회'가 26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삼보불교음악협회가 창작 찬불가 연구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수행의 노래(오페라 아미타불 中)', '사은가', '니르바나의 노래', '혼자 있을 때' 등 정교수가 작곡한 찬불가 20여곡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교계 합창단에서 지휘자와 단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황민정, 연정숙, 바리톤 박성규, 김성규 씨 등 불자 성악인 7인이 출연해 노래한다. 이외에도 가릉빈가합창단이 '찬불가', '무명을 밝히고' 등의 합창곡을 연주한다. 02)532-6584

정재만 교수 승무 공연

우리 전통 춤의 맥을 잇고 있는 숙명여대 정재만 교수가 22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정재만 전통춤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정교수의 승무예능보유자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승무와 학춤, 살풀이춤, 태평무를 비롯한 전통춤이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정교수는 승무를 11명의 무용수와 함께 군무로 재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02)516-1540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보르헤스의 문학세계 (4)

시대 흐름따라 고정관념 탈피 모든 사고 재해석

창문 밖 벽을 타고 올라가면 담쟁이덩굴의 마른 잎이 그려놓은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난히 빨갛게 물들었던 그 잎들은 이제 시들어 말라가고 있고, 일부는 벌써 땅에 떨어져 제법 쌓이기 시작했다. 계절은 담벼락이라는 화폭 위에 그렇게 자연의 그림을 그리고 지우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같다.

보르헤스는 세계를 한 권의 책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책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썼다가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쓰기를 계속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영원한 미정고(未定稿)이다. 그는 자신의 이런 생각을 〈베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라는 단편소설을 통해 그려보았다. 여기서 등장하는 메나르라는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는 보르헤스가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메나르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은 〈돈키호테〉라고 한다. 그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하여 일생을 바쳤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작품과 다른 〈돈키호테〉를 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원전과 완전히 일치하는 작품을 집필하려고 하였다. 17세기 스페인 사람인 세르반테스가 당대의 모국어로 〈돈키호테〉를 쓰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20세기 프랑스 사람인 메나르의 입장에서는 고어체 외국어로 〈돈키호테〉를 다시 쓴다는 과제는 너무도 어려웠다. 세르반테스 사후 300여 년에 걸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정보들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다시 쓴 메나르의 〈돈키호테〉는 —비록 그 내용은 원작과 똑같지만— 세르반테스의 작품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풍요로운 의미를 담고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 메나르는 결국 자신의 혼이 담긴 그 원고를 찢어 불태워버리고 만다.

보르헤스는 메나르의 작품을 일종의 '양피지사본(palimpsest)'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종이가 귀하던 시절엔, 양피지 위에 한 번 썼던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이 흔했다. 말하자면, 하나의 현학적 종교적 이론은 처음엔 절대적으로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화석화되어 시대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보르헤스는 모든 경전들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는 양피지사본이라고 봄으로써,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나 혹은 한 자의 오류도 없다는 도그마에 속박되는 인간정신을 해방시키고자 했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면서 강요되는 수많은 이념적 폭력들 앞에서, 모든 경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거의 고정관념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보르헤스의 풍자는 권위의 걸림돌을 치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보면 자성(自性)이 없는 자연과 인간도 결국 하나의 양피지사본이 아닌가? 불교의 무아(無我) 사상과 특히 "정신을 속박하여 자유를 가로막는다면 부처님과 조사들마저도 베어버린다"는 임제 선사의 처절한 '살불살조(殺佛殺祖)' 정신을 대하고 보르헤스가 크게 감동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르헤스가 파악한 불교의 핵심은 '자유'이다.

■문학평론가

마음 맑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부처님께 재를 털면

어느 사람이 탐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65, 737-8881 팩스: 737-0667

"바른 생각 머무는 곳 거기가 진실한 세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생각이 머무는 곳이 정말로 아름답고 진실한 세상'이라는 소중한 진리와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전용찬 경북경찰청장. 그가 그 동안 불자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린들을 모아 수상집 〈아침풍경〉(우리)을 내놓았다.



책은 '잃어버린 달을 찾아서' '꽃피고 새 우는 계절' 등 모두 4장으로 나눠 40여 편의 글이 실려 있는 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 즉 인연에 대한 글이 유난히 많다.

인연의 소중함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는 지은이는 "순리를 거스르는 인연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의 일 분 일 초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를 '한 눈 뜨고 자는 포돌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남다른 인연관을 갖게 된 것은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신행해온 결과이다. 전 청장은 신행뿐만 아니라 전법활동에서 남다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서울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경북경찰청장으로 옮긴 이후에도 경찰불자들의 안락한 신행활동을 위해 청사내 교육관 밀에 법당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경승의 활성화를 위해 불국사, 은해사, 직지사, 고운사 등의 스님을 경승으로 모셨다. 그는 골골마마 사찰 등 오래된 문화재가 많은 경북지역의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것은 "문화경찰임을 자임하는 경찰관으로서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런 그가 신행의 지표로 삼는 것은 평상심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가르침이다. "바로 옆집도 마음이 없으면 발길이 안 가지만 천만리 먼 데라도 마음만 있으면 달려가듯, 답답할 때 마음의 절에서 부처님 뜻을 헤아려 보는 평소 마음(平常心)이 곧 부처님의 마음(佛心)임을 알아야 한다."

잠자리 머리맡에 메모지와 연필을 늘 두고 사는 전 청장은 지난 92년 〈우리문학〉에 시(詩)로, 93년 〈문예사조〉에 수필로 등단한 작가다. 현재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문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사찰을 찾을 때면 늘 글을 쓴다. 〈아침 풍경〉에도 경주 분황사와 불국사 등을 참배하고 쓴 시가 실려 있다.

"어지러운 마음 찾아와/ 여래의 팔만 사천 법문 듣고/ 개안과 발심 솟구쳐 중생심 다 버리고/ 자기 발 아래 어둠 살펴서/ 참된 생각, 선한 행동으로/ 육도윤회 바른 길 찾아가는 무한 도량이라네…."〈 월산 스님 열반 4주기 날 문화회관 개관식 날 지은 '문화성전 앞에서' 중에서〉

김중근 기자

책과 삶

수상집 '아침풍경' 펴낸

전 용 찬 경북경찰청장

인연관련 글 40편 실어

'평상심이 불심' 신행지표

25년전 세간으로 나왔던 법운

보림위해 산으로



지난 79년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만다라〉(깊은강)가 22년 만에 개작되어 나왔다. 절판돼 시중 서점에서 볼 수 없었던 〈만다라〉는 다시 독자들 곁으로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은이 김성동(54) 씨는 깊은 산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의 오대산 속으로….

지은이가 환속 25년 만에 산으로 들어간 까닭은 무엇일까. 이를 놓고 지인들은 이번 개작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초간본은 주인공 법운이 피안행 열차표를 찢고 속세로 달려가는 것으로 결말이 난 데 반해 개작판에는 법운이 피안행 열차표를 들고 정거장으로 걸어가는 것으로 결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성동 개작 '만다라'

개정판을 탈고한 후 강원도 산속에 머물다 14일 처음으로 서울에 모습을 나타낸 지은이는 이에 대해 "확고한 진리를 얻었다고 해도 20대의 젊은 수행자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깨달음 이후의 보림의 필요성을 지은이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깨닫게 된 셈이다. 사실 지은이는 처음 〈만다라〉를 내놓았을 때 스님들로부터 '왜 작위적으로 주인공을 속세로 나오게 하느냐, 산으로 들어가서 더욱 공부에 전념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 그 때마다 "당신들이 문학을 아느냐"며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시대는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불교의 깊고 넓은 세계를 20~30대의 젊은 열정으로 다가갈 수 있겠는가. 법운이 다시 산문으로 들어간 까닭도 공부(정진)를 더 한 다음, 속세로 나와 그 깨달음을 중생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소설의 완결 구조에 더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은이는 작은 깨달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세속으로 곧바로 나오지 말고 보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공부 더한후 다시 속세로
중생위해 깨달음 회향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판은 지은이의 연륜과 수행 그리고 지적 성찰의 집적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초간본에 비해 불교적 성찰의 형상화를 위해 훨씬 많은 공을 들였다는 데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지산 스님의 감상적인 방황 부분을 가지치기하거나 다듬은 점, 뼈를 깎는 지산의 참선과 단식 부분이 더욱 밀도 있게 그려졌다. 이 밖에도 진지한 성찰의 흔적들은 보다 튼실한 구도 소설로 비치게 한다.

만다라의 주인공 법운은 곧 작가의 분신이라고 말하는 지은이는 다시 오대산으로 향했다. "진정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것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비워내지 않고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적이 끊어진 깊은 산골 농막에 '토굴'을 마련하고 문학적 해탈을 위한 정진을 시작한 지은이의 올 겨울 화두는 요승으로 일컬어지는 신돈을 역사적으로 복권시키는 것이다. 내년 봄 내놓을 장편소설 〈마하 신돈〉이 바로 그것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동양 고전해독의 열쇠



'허사대사전' 연세대 펴냄

한문경전을 모본으로 하여 출간된 우리말 경전들이 많다. 하지만 상당수 책들이 번역에 있어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그 대표적인 것이 '허사(虛詞)'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사를 고전 해독의 열쇠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경전번역에 있어 허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연세대학교 허사사전편집실에서 펴낸 〈허사대사전〉(성보사)을 권해 본다.

모두 1,534개의 표제자를 싣고 있는데, 이 중 순수하게 허사로 쓰인 것은 1,443개이다. 값 4만8천원.

김중근 기자

우리가 살아야할 현실 '가상공간'

'디지털시대의…' 고려대장경硏 지음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는 컴퓨터는 특히 가상 현실 또는 가상 공간의 분야에서 인간의 의식과 생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상현실은 비록 허위이지만 그 효력마저 허위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에 시달리던 환자가 절벽이나 고층 옥상에 홀로 서있는 가상 현실을 체험하여 고소공포증을 해소한다.

가상현실을 여러 영역에서 조명한 〈디지털 시대의 문화변동〉(고려대장경연구소)이 나왔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지난해 9월 실험적으로 개최한 세미나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문화 변동'의 결과물이다. 과학·예술·철학과 종교 전문가 12명은 자기 분야와 디지털 기술의 관계와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문화 변화추이를 실례를 통해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망도 시도한다.

불교분야는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인도 전통 종교와 불교에서 가상 현실의 의미'를 싣고 있다. 정 교수는 "불교나 힌두교에 있어 가상 공간·현실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주체와 능력을 탐구하는 것이 힌두교와 불교의 최대 관심사이자 쟁점이었다"며 가상현실이 만들어내는 문제와 그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존재이자 無인 시간의 비밀

'시간의 철학적 성찰' 소광희 지음



철학자 소광희(67) 서울대 명예교수가 '시간'에 관한 〈시간의 철학적 성찰〉(문예)을 내놓았다.

책은 시간에 대한 상식적·과학적인 견해를 살핀 '일반 시간론'과 시간에 대한 그 동안의 철학적 견해들을 다룬 '철학적 시간론'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일반 시간론에서는 시간에 대한 인문학적 또는 사회학적 관찰과 함께 과학적 차원의 시간론을 다루고 있다. 달력과 시계의 제작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시간개념, 태양계 안의 생명체와 시간과의 관계 등이 연구의 중심이다. 철학적 시간론에서는 시간론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신화적 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 하이데거의 시간론과 동양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사상적 바탕이 된 불교의 시간론을 탐구한다.

소 교수는 "불교의 시간에 대한 논의가 경전이나 종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철학적 측면으로 단순화해 살펴보면, 불교의 많은 경론소는 삼세(三世)에 걸친 의식(知·識·念)과 그것의 대상(境)과의 성불하는 방법 또는 성불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불교에서의 시간은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존재에 의존해서 있다는 얘기다. 값 2만8천원.

김중근 기자

기도는 苦의 해탈법

성일 스님 '현대 관음기도…'



성일(경기도 화성 신흥사 주지) 스님이 '10년 관음 기도'하는 동안 가피를 입을 이야기를 담은 〈현대 관음기도 영험록〉(불광)을 내놓았다.

책은 기도의 의미를 적은 '기도에 대하여'를 비롯해 '두문불출 10년 기도 가피' '가난과 질병에서 살아난 이야기' '자식을 위한 기도' 등 6부문으로 나눠 120여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성일 스님이 관음기도를 통해 직접 체험한 실화들이다. 스님은 기도 성취가 불교의 근본 목표는 아니라고 조언한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불이고, 성불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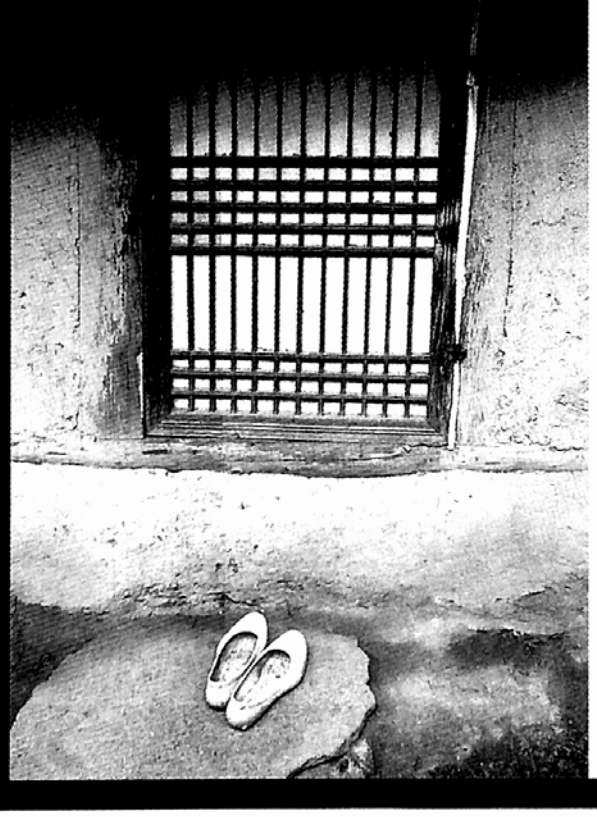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금강경 강의	각 묵	불 광
2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 터
3	꽃담	해 만	시공사
4	찻잔 속에 달이 뜨네	지 운	법공양
5	무상심요법문	박 건 주	운주사
6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7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족사
8	생활수행 이야기	법 상	불 광
9	거울	원 성	이 레
10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제	관불교재교육원부	근본불교학교

도서 안내:(02)737-0695

전화(02)588-0833 팩스(02)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외딴 섬 스님이 일구는 따뜻한 삶의 뜰



스님은 얼핏 수줍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큰 스님들의 훌륭한 인품과 고된 수행 모습에서 느끼는 감동과는 또 다른
순수한 감동을 읽는 이에게 선사한다. —조선일보

스님은 무척이나 솔직하셔서, 가끔씩 빙그레 웃음 짓게 만듭니다.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 이야기의 경우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스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었겠어요?
읽다 보면 이분이 스님이란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pssmm(YES24 독자서평)

내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글 속에 묻어나 있는 진솔함 때문이었다.
갖가지 소음과 사람에게 치일 대로 치인 내게 그 책은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빛망울(모닝365 독자서평)

|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

꽃담

해만 스님 지음 |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

각박한 세상살이,
하루하루 등 떼밀려 가듯 숨 가쁩니다.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법을 알려 줍니다.

벽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마음 틈으로 욕심 들어온다

이옥태 외 지음 | 신국판 | 269쪽 | 값 7,000원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에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거울과도 같이 마음을 비춰 주는 책.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

유동호 외 지음 | 신국판 | 251쪽 | 값 6,000원

느림과 여유로 돌아보는 나와 세상.
나를 바로 찾고, 세상을 바로 보고,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한 몇 가지 대답들.

"의천사상 종합적 평가 필요"

제4회 천태 국제학술대회서 한 · 중 · 일 학자들 한목소리

천태종 개창조(開倉祖)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 900주년과 이 달의 문화인물 선정을 기념하는 제4회 한 · 중 · 일 천태 국제학술대회가 '대각국사 의천과 동아시아 불교'란 주제로 16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렸다.

천태종과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국내 · 외 학자 7명은, 그간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업적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 머무름으로써 의천 스님의 불교 사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때문에 화엄종과 천태종의 관계, 천태종과 선종의 관계 등 아직도 혼란을 빚고 있는 주제에 관심이 모아졌다.

중국 인민대학 불교종학이론연구소 장풍뇌 교수는 "〈대각국사문집〉을 살펴보면 그가 종종 교관(敎觀)을 언급할 때 가리키는 것은 화엄교학이지 천태교관이 아니었다"며 "의천이 비록 해동 천태종의 개산조이지만 그 자신은 전통적인 천태 교관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고, 화엄을 주로 전하며 천태를 함께 전했다는 것이 의천 불학의 총체적인 성격이다"고 밝혔다.

의천불학의 성격 "전통적 천태교관 완전 동의 안했다"

— 中 장풍뇌 교수

하지만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사상'을 발표한 지창규(동국대 강사) 씨는 "〈문집〉을 보면 화엄종 색채가 두드러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대각국사의 사상을 화엄사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며 "천태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유 · 불 · 도 삼교융합과 교관쌍수 같은 천태의 융합적 특징이 의천의 불교 사상의 중심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지 씨는 또 당시 교종의 대표적인 종파로 화엄종이 있었는데도 천태종을 개립하였던 것은 선종의 계도를 위해서라는 주장을 폈다. 지 씨는 "기존의 화엄종이 선종을 포함하기에는 관문(觀門)이 빈약하므로 관문이 떨어지지 않는 천태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화엄종 있는데 천태종 개립 까닭은 선종 계도 위한 것"

— 韓 지창규 씨



◇대각국사 의천 열반 900주년 기념 제4회 천태국제학술대회가 '대각국사 의천과 동아시아 불교'를 주제로 16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렸다.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는 대각국사 이후의 법권을 고찰한 주제 발표에서 "선종의 다섯 산문의 고승들이 초기에 7백여 명이나 참여했고, 의천 문하에 직접 참여한 무리도 3백여 명이었다"며 "의천의 법을 계승하려는 천태 법권은 이들 1천여 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이어 금석문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의천→교웅→덕소→요세'로 이어지는 법맥을 정리했다.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사적 위치'를 발표한 최병헌(서울대) 교수는 요세 이후 의천의 불교 전통이 단절되고 만 이유에 대해 "천태종 창립과 4개 종단 체제로의 불교계 개편이 엘리트 불교, 종파 불교적 성격을 띠다 보니 지방에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교단 내 성차별 여전"

세등 스님, 8경법 폐지 주장

불교 교단내 성 차별적 제도와 관습이 공론의 장으로 불려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소장 정자환)가 20일 '페미니즘이 종교를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연 학술발표회에서 세등 스님(사진)은 한국 불교의 제도와 관습 속에 살아 있는 남성우월주의를 직접 거론했다. 세등 스님은 '8경법의 해체를 위한 페미니즘적 시도' 주제 발표를 통해 "성 평등적 핵심 교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의 제도와 형식 속에는 불교의 대표적 성 차별적 규정인 8경법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지적하고 "사부대중 공동체로서의 다양적 교단 건설을 위해 8경법은 해체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8경법은 '여성 출가자(비구니)가 남성 출가자(비구)에게 지켜야 할 8가지 공경의 법'이다.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이를 불교 교단의 남성우월주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해 왔다.

8경법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는, 우리 나라 불교학계의 지배적 주장을 문헌 자료를 통해 반박한 세등 스님은 이어 8경법이 현실적으로 사장된 것이라는 통설에도 "백세 비구니라 할지라도 신참 비구에게 예를 올려야 하는 것은 25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한국불교의 현실"이라며 반론을 들고 나왔다. 수계의식, 안거제도, 종단(조계종단) 운영체제 등 제도화를 통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8경법의 규정이 가장 확실하게 실행되고 있는 제도로 꼽은 것은 수계의식의 '(비구니는)이부중(二部衆)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즉 비구니는 비구니 대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후 다시 비구 대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아야 완전한 수계가 이뤄진다는 제도 때문에 "비구승가에 의존하지 않고는 누구도 비구니가 될 수 없으며, 비구니 승가는 비구승가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세등 스님은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 부지서 발굴된 통일신라 인공 연못.

분황사 동쪽서 통일신라 인공연못 발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경북 경주시 구황동 분황사 동편 외곽의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 부지에서 발굴중인 통일신라시대 인공 연못 유적을 13일 공개했다. 통일신라시대 인공 연못이 발견되기는 경주 안압지와 경주 연강동 연못에 이어 세번째다.

서기 7세기 후반 이후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 연못은 호안(護岸, 돌을 쌓아 연못 벽을 만든 시설) 길이 180m, 면적 325평 규모로, 연못 안 남쪽과 북쪽에 각각 57평, 112평 짜리 인공 섬이 들어서 있다.

왕궁이나 사찰 건축에 사용됐던 귀면와(鬼面瓦), 연꽃무늬 막새 등 기와와 벽돌류 444점, 관병(官甁, 관에서 쓰는 병)이라 적힌 토기와 그릇 67점, 금동제 판불(板佛, 판에 조각한 불상) 등 모두 545점의 유물이 함께 출토됐다.

〈삼국유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사료 기록, 출토된 토기와 기와편,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 제작됐던 판불 등이 출토된 것으로 봐 8세기 초반 즈음에 축조된 것으로 연구소 측은 추정했다.

규모는 안압지의 약 1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조형미가 뛰어난 인공 연못의 성격은 현재로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7세기 중엽 선덕여왕이 왕실 원찰로 창건한 분황사의 동쪽 연못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왕궁의 부속시설일 가능성 등도 연구소 측은 배제하지 않았다. 연못의 성격이나 정확한 연혁 등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는 2003년까지 계속된다. 권형진 기자

"산수화 출현은 선종 영향"

김대열 교수 제기

17일 한국불교학회 가을 학술발표회서 '선종사상과 산수화 형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김대열(동국대) 교수는 "노장 사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지금까지의 견해와 달리 산수화는 선종 사상의 영향으로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인화가 화가의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상고 시대의 회화는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며 "문인화 역시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종교 자체가 반야 · 열반 등 비교적 외부의 이상을 좇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성격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직접 깨닫고 체험하는 자성성불(自性成佛)로 변화된 이후에야 문인화에서 작가의 심경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불경보다는 불경의 체화와 각오(覺悟)를 중요시한 선종은 인간에 대해 궁극적 가치를 부여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묵 산수화를 통해 형태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자아와 만물기상의 성정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산수화가 크게 발전한 당말~오대는 바로 혜능의 선종이 흥기한 이후"라며 "선종이 문인화로 스며든 이후 문인화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원묘국사와 백련결사

요세(了世, 1163~1245)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개창한 천태종을 부흥시킨 인물이며 보조국사 지눌의 수선사 결사와 더불어 고려후기 양대 결사운동인 백련결사를 일으켜 당시의 불교계에 참신한 기풍을 일으킨 고승이다.

스님은 지방호족의 수장인 호장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고도 당시의 유학에 한계를 느껴 12세에 출가하였다. 천태사상을 수학하던 스님은 36세 되던 해인 신종 1년(1198) 봄 천태종 사찰인 개경의 고봉사에서 개최된 법회 분위기에 크게 실망하고는 동지 10여 명과 더불어 명산을 유력하다가 지눌 스님의 권유를 받고 수년간 함께 수행하였다.

46세 되던 해인 희종 4년(1208) 전라도 영암의 약사사에 머물 때 스님은, 중국의 영명연수(永明延壽) 스님이 〈선종유심결(禪宗唯心訣)〉에서 지적한 120가지의 병을 극복하려면 천태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들과 함께 비록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일지라도 쉬는 일이 없이 날마다 53불 주위를 12번이나 도는 참회행을 실천하였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스님을 '서참회(徐懺悔)'라 불렀다고 한다.

그 뒤 스님은 최표 · 최인 등의 거사들이 마련하여 중창한 강진의 만덕사에서 고종 19년(1232) 보현도량(普賢道場)을 열어 법화삼매(法華三昧)와 구생정토(求生淨土)를 닦으며, 천태의 법화삼매참회

날마다 53불 12번 도는 참회행

천태사상 바탕 사회정화 운동

(法華三昧懺悔)에 의해 참회행을 실천하였다. 마침내 고종 23년(1236)에 스님의 문도인 천책 스님으로 하여금 백련결사문을 짓게 하여 명실상부하게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이보다 앞선 1190년에 지눌 스님이 정혜결사문을 반포하여 수선사결사를 전개했던 것과 동일한 운동이다.

스님은 항상 세 벌의 옷과 바루 하나로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법화경(法華經)〉 1부, 〈준제신주(准提神呪)〉 1천 번, 미타불을 1만 번이나 염송하였다. 스님의 이러한 결사운동은 염불을 주로 수행으로 한 중국 동진의 혜원(慧遠, 334~416)스님의 백련사(白蓮社)의 결사운동을 표방한 것이지만 염불과 더불어 천태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범부의식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또한 지눌 스님이 지혜력(知解力)을 갖춘 근기를 가진 자만이 수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스님은 비록 막중한 죄를 지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탈할 수 없는 범부일지라도 수행하여 해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귀족은 물론 일반서민층에 이르기까지 교화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백련사 2세 정명국사 천인(1205~1248)스님과 백련사 4세 진정국사 천책(1206~?)스님으로 이어지면서 천태종 사세를 진작시키기에 이른다. 이렇듯 스님이 전개한 결사운동은 당시 개경중심의 귀족화 보수화된 불교계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도생활로 부처님 본연의 길을 닦고자 한 사회 정화운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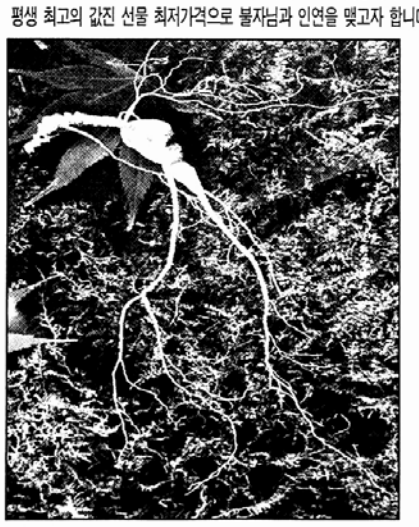
황인규/동국대 강사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협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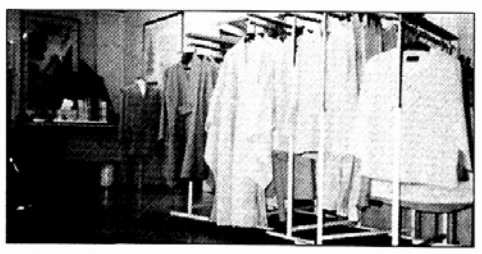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 · 여	150,000
	두 루 막	남 · 여	130,000
	통 방	남 · 여	120,000
누 비	上 下	남 · 여	190,000
	두 루 막	남 · 여	160,000
	방 한 복	남 · 여	130,000
	보 온 복	남 · 여	70,000
장 삼 (조제중 태고종)		남 · 여	220,000
손 가 방		中	28,000
		小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 화 : 053)764-4114 H · P : 011)9850-4400

스스로의 本性 속에서 道의 씨앗 찾으라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56〈끝〉

(55) 도는 마음이 없는 경지에 이른자에게로 통하느니

달마가 입멸한 지 3년 뒤 양 무제(梁武帝)는 달마를 기리기 위해 보리달마대사송(菩提達摩大師頌)을 인각한 석비와 묘탑을 웅이산 기슭에 세웠다. 약 1천자가 새겨져 있는 석비에는 문장마다 달마를 추모하는 무제의 절절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석비는 달마의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달마가 혜가에게 전한 것이 일진(一眞)의 법, 곧 하나(一)의 진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달마가 혜가에게 전한 하나(一)의 가르침은 이른바 현관일규(玄關一竅)를 개혈(開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현관'이란 '지현지묘지관문(至玄至妙之關門)'의 준말이다. 지극히 오묘한 기운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사는 집의 경우 현관을 통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도 현관이 있으며 그곳을 통해야 참다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양무제가 세운 달마석비

'일규'는 한 구멍이라는 뜻인데 출입구가 '하나'임을 일컫는 것이다. '현관일규'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說)이 있다. 그러나 달마가 비전(秘傳)한 그 자리는 두 눈썹 사이의 한가운데다. 그 한 구멍을 바르게 개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성구자(自性求子)의 옳은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법이다. '자성구자'란 스스로의 본성(本性) 속에서 씨앗을 찾으라는 뜻인데 〈삼일신고(三一神誥)〉를 보면 그 씨앗은 강재이뇌(降在爾腦) 즉 머릿골 속에 내려와 있다고 쓰여 있다. 달마는 바로 이 현관일규를 혜가에게 명지(明指)해 줌으로써 도를 잇게 했던 것이다.

달마가 소림사를 떠날 때의 에피소드는 새삼스럽게 전법(傳法)의 실상을 웅변해 주고 있다. 달마는 도부(道副), 이총지(尼總持), 도육(道育), 혜가 등 출중한 제자들을 불러모아 질문을 했다.

"그 동안 오랜 세월 이 소림사에서 함께 선(禪) 공부를 해 왔다. 깨달은 바를 말해 보아라."

도부가 제일 먼저 나섰다.

"스승이시여, 제가 깨달은 바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不執文字), 문자를 여의지 않는 것(不離文字)을 도의 작용(道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피부를 얻었구나(汝得吾皮)."

두번째로 이총지가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제가 깨달은 바는 경희(慶喜) 보살이 아축불국(阿閦 佛國)을 보았을 때 한 번 보고 다시는 보지 않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달마 대사는 빙긋이 웃으면서 응수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도다(汝得吾肉)."

다음에는 도육이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제가 깨달은 것은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가 본래 공한 것(本空)이기 때문에 몸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色) 감각(愛) 지각(想) 마음작용(行) 등 오음(五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도다(汝得吾骨)."

맨끝으로 대답하게 된 혜가는 조용히 일어나서 달마 앞으로 나아갔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큰 절을 올리더니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달마는 다른 제자들을 한번 둘러본 다음 혜가에게 말했다.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도다(汝得吾髓)."

이런 전법의 방식을 일컬어 흔히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도 한다.

하나의 진법은 현관일규를 통해서 선천(先天)의 기운을 받아 견성(見性)하는 지름길이다. 선천의 기운이란 수태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받는 생명의 진기(眞氣)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천(後天)의 기운이란 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난 뒤 받는 기운을 일컫는다.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얻는 기운은 모두 후천의 기다. 가령 단전호흡 같은 것은 후천의 기를 받아 건강을 도모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자가 선천의 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운용할 줄 모르면 어떤 경지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현관일규를 도외시 하면 아무리 수행의 공덕을 쌓아도 '자성구자'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달마의 행법(行法)은 〈세수경(洗髓經)〉과 〈역근경(易筋經)〉에 담겨 소림사에 전해지고 있다. 〈세수경〉의 원본(原本)은 오늘날 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오직 높은 경지의 스승들에 의해 구전(口傳)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역근경〉은 원전(原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행법도 비교적 자세히 전해지고 있다. 이 〈역근경〉조차도 한동안은 전설(傳說) 속의 책으로만 여겨져 왔다.

하지만 〈역근경〉이란 책을 구해서 읽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행법의 어려움 때문에 난해한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역근경〉을 난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가 손꼽힌다. 하나는 〈역근경〉의 공법에 도가(道家)적인 트릭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행법을 익힐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역근경〉의 행법은 기(氣)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는 완전하게 터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흔히 역근경이라고 하면 소림사 무술의 교본 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역근경〉은 단순히 무공(武功) 또는 외공(外功)만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내공(內功)도 외공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공 쪽에 〈역근경〉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지적되고 있을 정도다.

달마 선법의 핵심은 바로 〈역근경〉에 내장되어 있고, 현관일규를 견성의 통로로 삼은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옷소매에 감춰진 수인법

오늘날 소림사에 모셔진 달마 석상이나 웅이산에 세워진 달마 석상은 일반적인 불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 차이점은 특히 두 가지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는 수인법(手印법法)이다. 달마의 석상에는 '수인'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옷소매 속에 감춰져 있다. 이것은 다른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의 숨겨진 수인법을 알면 곧 달마의 선법을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달마의 수인법은 천부(天符)의 수인 또는 일자(一字)의 수인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런 수인법은 단군의 천진(天眞)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도 상통한다.

둘째는 좌법(坐法)이다. 달마의 앉아 있는 모습은 결가부좌의 좌법이 아니라 궤좌(跪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좌법을 일컬어 일자(一字) 좌법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좌법은 우리 나라의 고구려 고분벽화나 발해의 석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달마가 9년 면벽하기 위해 찾아 들었던 소림사 뒤의 소실산 석굴의 본래 이름은 '치우' 동굴이었다. 치우는 우리 역사상 단군보다 앞선 환웅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치우가 수행한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一)의 진법이고, 그가 앉은 좌법은 하나(一)의 궤좌법이었다.

이것이 달마선법의 핵심인데, 그것은 우리 전래의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의 수행법과 별개가 아닌 것이다. 달마는 일(一)은 무극(無極) 중의 일점(一點)의 영성(靈性)을 말하는 것이며 석가모니 부처의 진경(眞經) 중의 진경이라고 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일(一)은 동토(東土) 즉 동녘 땅에서 비롯된 것으로 만물은 모두 이것에서 생성된다고 밝혔다. 나아가서 삼계(三界)는 일(一)로써 이루어졌다고 간파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달마선법이 결코 별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와 인연이 매우 깊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달마의 진법은 우리 나라에 정맥(正脈)이 이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혜능의 머릿골 海東으로
달마진법은 우리나라에
正脈이 이어지고 있다



◇청정 스님 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하나의 예증으로 거론되는 것이 육조(六祖) 혜능(慧能)의 진신불(眞身佛)에 얽힌 설화이다. 진신불이란 육신 그 자체가 부처라는 뜻으로 육신 그대로 성불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므로 등신불(等身佛)이라고도 하고, 금강불괴지신(金剛不壞之身)이라고도 부른다.

혜능의 속성은 노씨(盧氏)이고 남해의 신주(新州) 사람이다. 이곳은 옛 백제 땅이므로 혜능은 백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혜능이 오조(五祖) 홍인(弘忍)을 찾아 구법하자 양자강 남쪽의 오랑캐는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 그러나 혜능은 당당했다.

"사람이 태어난 곳에는 남북이 있겠지만 불성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한 마디에 혜능은 홍인의 제자가 되었다. 결국 심인(心印)을 얻어 의발과 법을 받고 법통을 잇게까지 되었다.

달마가 예언한대로 의발을 전수하는 전통은 혜능을 끝으로 단절되었다. 혜능은 입적하면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배와 노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당황한 제자들이 물었다.

"정법안장(正法安藏)은 누구에게 부치십니까?"

"도 있는 자가 얻고, 마음이 없는 경지에 이른 자에게 통하게 되었느니라."

혜능의 이 한 마디는 제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후에 무슨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내가 간 뒤 5~6년이 지나면 내 머리를 가져가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혜능이 열반에 들자 제자들은 스승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다. 혜능의 진신불을 탑 속에 안치하면서 철엽(鐵葉)과 칠포(漆布)로 목을 튼튼하게 감쌌다.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했다.

그런데 어느날 밤, 스승의 진신이 안치된 탑 속에서 쇠줄을 끊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이 놀라 뛰어가 보니 이미 혜능의 목은 도둑맞은 뒤였다. 관가에 비상이 걸렸고, 얼마 안 되어 범인 장정만(張淨滿)이 체포되었다. 범인은 신라승 김대비(金大悲)에게 금 2만 냥을 받고 육조대사의 머리를 넘겨주었다고 자복했다. 육조 혜능의 머릿골은 그가 예언한 그대로 해동(海東)의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기록에 따르면 혜능이 열반한 해가 단기 3천46년(서기 713년)이고 유골이 도난당한 것은 단기 3천55년(서기 722년) 그리고 그 유골이 이 땅에 돌아온 해는 단기 3천56년(서기 72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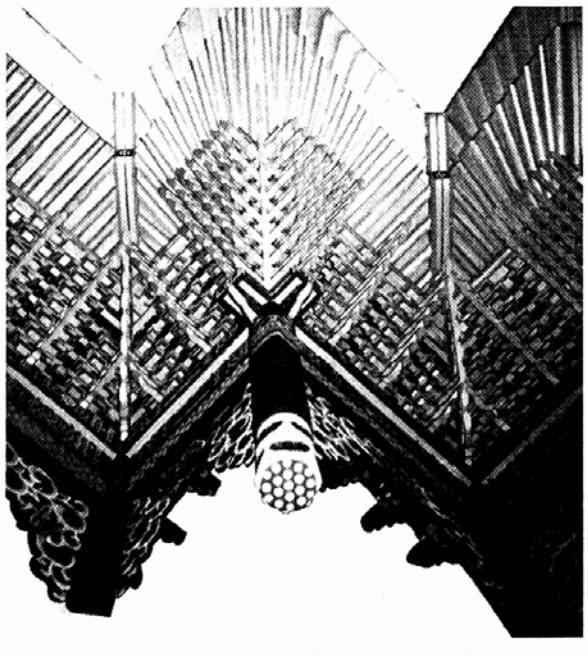
그러나 유골의 존재는 거의 천년 동안이나 비밀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 사실이 공개된 것은 단기 4천1백95년(서기 1862년) 쌍계사 주지 용담 선사에 의해서였다. 용담 스님은 목압사(木鴨寺)에 보존되어 있던 유골을 쌍계사로 옮겨와 육조정상탑(六祖頂上塔)을 세우고 크게 불사를 일으켰다. 이때 육조정상탑에선 신묘한 빛이 발광하여 온 누리를 대낮같이 밝혔다고 한다.

유골의 존재 천년간 베일

우리 나라엔 비단 육조의 두개골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두골사리도 존재한다.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자장법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직접 그 유골을 받아 이 땅에 가져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一)의 진법이 시원(始源)한 곳에 귀일(歸一)하는 오묘한 이치인저.

이번 호로 달마이야기 연재를 마칩니다. 그 동안 달마이야기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재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필자(02-722-9831)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공방



수미단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공방 : 031)543-7073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상담문의 원주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암 소설산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진 합장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活人專門天役者用
사주명리 오행술 한계 극복 활인전문천역자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주문안내
六壬來情秘法 革新版 注文案內

아래 내용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행(五行)을 잘 모르는 활인 천역자를 위해, 오행(五行)에 능통한 전문가를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썼습니다. -효사-

이 책은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으로써, 새로 잘 만든 책입니다. 60갑자 60일 중 그 날짜치 한 장을 바인더식으로 된 본책에서 빼내 책상 위에 올려 놓기만 하면 하루동안에 오는 모든 사람, 전화해 오는 여러 사람, 내가 가서 만남 사람의 비밀한 속사정을 그 해당 시간만 보면 무엇이든지 환히 알수 있게끔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맞느냐고요?

틀림이 없습니다! 육임은 신시(神示)입니다. 천문을 보는데는 태을(太乙), 지리를 아는데는 기문(奇門), 인사(人事)를 밝히는 데는 육임(六壬)입니다. 그래서 육임을 오술지중제왕(五術之中帝王)이라고 까지 하고 있지요!

활인 천역자의 고민을 해소시켰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십시오. 오행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종래의 「래정비법」 개정·증보판도 잘 만들어진 책이긴 했으나 「일목요연」 함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 「혁신판」은 그 문제를 완전 해소시켜, 子시에서 亥시까지 한 장에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는 시간만 보아, 그 해당 시간에 줄줄이 써진대로만 말하면 틀림없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귀신, 어떤, 빌미·부정, 누구 산소 탈 인지를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형이상 세계의 위해(危害)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하므로써 천도제·구병시식·부적·굿 등의 수법제의가 쉽게 이어지고, 그 행한 수법(修法)은 반드시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일이 되는 날(日), 달(月), 이사 길일(吉日)을 딱 부러지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육임에는 「응기비법」이 있어 이 공식에 입각해 그 일의 되는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자신있게 밝혀 놓았습니다.
또, 이사가서 좋을 방위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때, 이사 날짜도 확실한 원칙대로 정해 져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이사 가서 어느 년도, 어느 월에 재산을 모으거나, 승진이 되거나, 사업이 바빠질 것인가가 딱 정해 집니다. 이를 밝혀 놓았습니다.

육임 1년 신수(身數)풀이가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고 정확한 육임 신수풀이가 수록되어 있어, 매년마다 아주 귀한 상담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전 내용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문자 토를 달았습니다.

(또, 본 책 부록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요약 발췌되어 있어 사안별로 즉시 보고 말할 수 있도록 다듬어 놓았습니다. 이것들은 시간만 보아 신속히 판단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정확히 적중되는 것들입니다.)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낳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치료가 순조로울지 더딜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행사 당일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온다면 몇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위 책에 대한 설명회가 아래 지역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사오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편리한 곳으로 참석하셔서 활인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전주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원주 017-377-7005

-「발 문」중에서 -



금번 효사 선생께서 심혈을 기울여 써낸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비서(秘書)에는 참으로 귀한 것들이 밝혀져 있는데, 그 중 특히 귀신과 빌미·부정과 산소 탈을 알게 해 놓은 것이 백미인 것 같다. 수만 억겁이 윤회하면서 낳고 죽는 것이 반반 되어 천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해탈없이 죽은 자의 원혼이 어찌 산 자의 삶을 엿보지 않으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팔만대장경 속에도 이같은 안타가운 사연들이 많거니와, 오늘날 문물이 조금 진보했다고해서 이 사바세계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鬼書가 경시되고 있으나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귀신들의 훼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생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간의 전쟁 역시 원귀들의 장난이 틀림없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조상만을 논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조상이 어디 한 두 분이겠는가? 수천·수만 일진대, 구체적으로 어느 조상, 누구 산소를 명시해서 제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될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 점을 효사 선생은 잘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빈도가 그동안 이를 신중히 적용해 보니 틀림이 없었다. 그것이 보람이라면 보람이겠다.

이 진서(珍書)가, 귀신들이 제 설곳을 찾아가는데 영락없이 쓰여졌으면 싶다.

나무지장보살!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건봉사 주지 정 영 도 합장

월장 亥 월건 寅 (점시(占時)가 월장을 충(沖)하면 재앙(災殃)을 방비해야한다) 甲子日 각 시간별 래정(來情) 공망(空亡) 戌, 亥

■ 본 월장 사용기간은 우수 日이 되는 時·分부터 (본세 사용시기) 춘분 日이 되는 時·分 전(前) 까지로 한다. 寅 기궁 : 점시(占時)가 기궁과 충(沖)되면 신변 동요와 이별사가 있다. ■ 오늘은 갑자 4中 첫째 날이므로 귀인 역행(-) 일때는 10일후 재정단하이 귀행 순행(+)될 때 수법을 행하라.

시보 공망 표시	정단 正斷 시간	국수 局數	일의 順逆과 修法 可(+) 否(-)	점시가 갖는 천장 天將	점시에 의한 래정(來情)	과체로 본 래인(來人)의 전체적 정황	초전 동정 動靜	초 사 (점자에게 던질 첫 말)	길흉속지 모망사 可·否 利害得失 여 부	선 ○인 보통인 △ 악 ×인	점자가 저지른일 남으로부터 당한일.	옛날일 근래사 반복사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일의 시작과 그 결과 판단 시작	중간	결과	귀신침범 여 부 어떤 귀신인가	산소 탈 을 떠 묘지상태 여부(누구 산소인가)	빌 미 부정여부 (띠 별)	家相 吉凶 이사 可否	이사 吉方 및 택일	소송 승패 국가	수상	원고 개인	수하	피고	응 기 일이 되는 일. 월	피해를 가해올 날여 방 위	사 과 삼 전 요 해 (了 解)
比	子 ① 卯	2	+	태을 生	매사가 막히거나 지체되고 금전의 손해, 여인과의 관계된 일이다 사업 후원사에 관련된다	비용과(比用課) 누가지 일에 희의상이 있다 자기 의사를 필수가 없다	子 인수	하나는 앙이도 둘은 모르네? 물구당이에 화전 격이야! 뭘 잃어버렸군! 조금만 참으면서 신불에 기도하면 경사가 있게 될꺼야!	亥 ○	×	아 발동사 후회 원행 중요 심정 외사가 내 임원	반복사	올일	子 ○	亥 ×	戌 ×	남 시 兎 / 여 午 巳 申 / 방 寅 卯 辰 巳	남 寅 申 巳 未 / 여 寅 卯 申 巳 / 방 寅 卯 辰 巳 未	凶 이사	寅 卯 方 / 목합日	○	○	○	寅 辰 日 月	남 方 시 / 방 方 시	音書不至
二貴 合·鬼	丑 申 ②	3	+	태을 財	귀인사에 관여, 수상존장이 발탁하는 일 또는 고민사 관직에 관련된 일 혹은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일이다 처·재사 상업사에 관련된다	비용과(比用課) 누가지 일에 희의상이 있다 자기 의사를 필수가 없다	戌 재성	후회하는 일이 있겠는데, 옛것을 버려야 좋겠어! 묘자가 나쁘네! 이것을 하거나 기도를 정성껏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야 전 흉사의 귀신이 씌었군	○	타 발동사	구 사	올일	戌 ○	申 ×	午 ×	남 시 여귀 兎 / 여 午 未 申 / 방 접 흉사 부정 鬼	남 子 午 卯 酉 / 여 午 未 申 酉 / 방 子 午 · 辰 酉	凶 이사	卯 辰 方 / 목합日	○	○	○	卯 酉 日 月	남 方 시 / 방 方 시	必因自招其禍
困 辱 · 馬	寅 ③ 巳	4	+	태을 比	원행·이동사가 있다 직 목돌 구하는 일이거나, 입신살 또는 이동이다 윗 사람의 방재가 있다	원수과(元首課) 직선이나 기도 부하를 쓰면 모는 일이 준단이 되는 사건이다 단 하급자는 불리하다	酉 피해 불가	가정에 파가 들었네?(남자) 는 첩전을 밖에 생겨어, 일조심이 첫째이고, 먼데는 출행 금지이! 움동이와! 전 흉사 귀신이 들었군 -여자의 부정이 들었군 -전 흉사 귀신이 붙었네?	午 ○	탄 발동사 육전사 내사가 출 외원	반복사	일어난 일	午 ×	卯 ×	子 ○	남 시 움직 악질 兎 / 여 辰 未 戌 卯 / 방 丑 · 未 巳	남 辰 未 戌 卯 / 여 辰 未 戌 卯 / 방 丑 · 未 巳	凶 이사	辰 巳 方 / 목합日	○	○	○	辰 日 月	남 午 方 시 / 방 午 方 시	于土網先官災
刑	卯 ④ 午	5	발 + 망 원	낮 + 구 比	낮 관의 근심이 있거나 급속건이 있다 여자가 상한다 처 재앙사이다 혈관 재앙의 근심을 방비할 필요가 있다	중심과(重審課) 직선·직역을 해야 선을 후결하는 사람이어나 당면 안에 손을하라	申 피해 불가	男 남의 부인을 유혹하여 내 것처럼 쓰고 있군요 女 남편을 배반하고 이익도 없이 남의 남자와 재앙의 근심을 방비할 -여자의 부정이 들었군 -가택신이 노했군!	○ 승 火	×	아 발동사	구 사	올일	戌 午 ×	午 ×	寅 ○	남 시 도로 兎 / 여 午 未 申 酉 / 방 가택신 鬼	남 寅 卯 辰 巳 / 여 午 未 申 酉 / 방 寅 · 辰 巳	凶 이사	巳 午 方 / 목합日				巳 日 月	남 方 시 / 방 方 시	利舊事 乃家人事 宜長者 利見大人
財	辰 ⑤ 未	6	+	구진 財	병재 및 실탑의 건이거나 직의 침범사이다 재·상업 여인사에 관련된다.	지일과(知一課) 누가지 일로 기도에 선 사단이다 가깝고 친한 사단으로 선성해야 한다	寅 비견	집안이 어째 기울어 가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다가는 뭣 사람에게 속을 것? 변사자 귀신이 발동했네? -원귀가 붙었군! 男 돈이나 여자로 흔이 나게 생겼네?	未 이익 가능	○	탄 발동사 육전사 내사가 출 외원	신 사	일어난 일	寅 ○	酉 ×	辰 ○	남 시 변사 兎 / 여 午 未 申 酉 / 방 전사 鬼	남 子 午 卯 酉 / 여 午 未 申 酉 / 방 子 酉 · 午 · 巳	吉 안정	子 未 方 / 목합日	○	○	○	寅 · 酉 日 月	남 酉 方 납지 / 방 酉 方 여지	梁 折
干合 劫殺	巳 ⑥ 辰	7	+	구진 財	도난·파재 손모 상해사가 있거나, 모든 일이 급속히 진행된다 자손사·박관 실직사에 관련된다 재앙이 일어난다	반음과(返吟課) 매반하거나 매신당하는 일정으로 고등을 받고 있는 사단이다 침이 안되고 있다	寅 비견	일은 자꾸 반복되고 일은 겁쳐도 목적달성이 안되네? 어디 가시게? 마음이 있어! -도로귀신의 시기가 가득하네? -가택신이 노했어!	午 손해 불가	∧	아 발동사 후회 원행 중요 심정 외사가 내 임원	신 사	일어난 일	寅 申 寅	午 ×	寅 ○	남 시 도로 兎 / 여 午 未 申 酉 / 방 가택신 鬼	남 辰 未 戌 丑 申 / 여 辰 未 戌 子 · 午 · 巳 · 卯 申 / 방 辰 未 戌 子 · 午 · 巳 · 卯 申 未	凶 이사	申 酉 方 / 목합日	○	○	○	申 日 月	남 方 시 / 방 方 시	亂動無益 有重重變怪
沖	午 ⑦ 酉	8	+	구진 財	병재 동요 불안건이거나 타인으로 부터의 침범사이고, 유리전패사가 있다 자손사·실직 박관 실직사에 관련된다	지일과(知一課) 누가지 일로 기도에 선 사단이다 가깝고 친한 사단으로 선성해야 한다	子 인수	진퇴양난이네? 작은 일이 큰 흉이 되고 있어! 일은 지체되고, 이랫 사람에게 주치를 당하게 생겼군요?	巳 손해 불가	×	아 발동사 후회 원행 중요 심정 외사가 내 임원	반복사	올일	子 ○	巳 ×	戌 ×	남 시 지살 兎 / 여 午 未 申 酉 / 방 女 수 鬼	남 寅 卯 辰 巳 / 여 午 未 申 酉 / 방 巳 · 亥 · 未	凶 이사	寅 酉 方 / 목합日	○	○	○	申 日 月	남 方 시 / 방 方 시	財喜亨通
貴合 合·喜	未 ⑧ 寅	9	+	구진 比	귀인사에 관여, 수상존장의 발탁사 또는 관직건이다 뜻밖의 방해를 받아 일이 지체되고 있다 전도 분묘 불사에 관련된다	원수과(元首課) 직선이나 기도 부하를 쓰면 모는 일이 준단이 되는 사단이다	辰 습 木	이사부터 빨리 해야 되겠네? 살 집이 못됐! 이사한 뒤 치성을 드리면 귀인이 도와 일이 잘 되겠어! 그렇게 하세요! -도로귀신이 붙었어! -가택신이 노했어!	辰 이득 노력	○	탄 발동사	구 사	일어난 일	辰 申 子	申 ×	子 ○	남 시 도로 兎 / 여 午 未 申 酉 / 방 가택신 鬼	남 子 午 卯 酉 / 여 午 未 申 酉 / 방 子 · 午 · 申	凶 금충	卯 酉 方 / 목합日	○	○	○	卯 酉 日 月	남 方 시 / 방 方 시	阻不亨通
合祿 乙殺	申 ⑨ 亥	10	+	구진 刑	매사가 불성하고 만들은 상한다 병재 관재 침범사로 원수가 된다 이별사가 있다 ※ 집에 죽은 사람이 있네?	중심과(重審課) 직선·직역을 해야 선을 후결하는 사단이다 당면 안에 손을하라	卯 산살	변화가 심하군요? 관재송사가 붙겠어! 주거에 고심이 있으니, 가택이나 생업을 변동할 수 밖에 없는데 뜻대로 안되겠어! 귀신의 침난으로 시작은 있어도 끝은 안보이네! ※ 도로 귀이! -가택신이 노했군!	寅 이득 가능	∧	아 발동사 후회 원행 중요 심정 외사가 내 임원	신 사	올일	申 亥 寅	×	×	남 시 도로 兎 / 여 午 未 申 酉 / 방 가택신 鬼	남 辰 未 戌 巳 丑 / 여 辰 未 戌 卯 · 酉 · 未	吉 안정	辰 方 / 목합日	○	○	○	未 · 申 日 月	남 方 시 / 방 충 方 납지	退 亡
合祿 破	酉 ⑩ 辰	11	낮 -	밤 +	낮 사 巳	밤 유 酉	파재 또는 실주건이다 남녀 불문하고, 색정사에 관련된다	중심과(重審課) 직선·직역을 해야 선을 후결하는 사단이다 당면 안에 손을하라	辰 재성	부부 다 같이 삼각관계에 휘저 있네? 男 남의 부인을 유혹해서 끼고 사네? 女 남의 남자를 후렸네! -여귀의 부정을 탔어! -전 흉사 귀신이 붙었어!	寅 이득 노력	×	아 발동사	구 사	일어난 일	辰 午 申	×	×	남 시 여귀 兎 / 여 午 未 申 酉 / 방 전 흉사 鬼	남 寅 卯 巳 丑 / 여 午 未 申 酉 / 방 寅 · 午 · 申	吉 안정	子 巳 方 / 목합日	○	○	○	巳 日 月	남 方 시 / 방 方 시	防因姻而訟
胎 ●	戌 ⑪ 巳	12	+	태음 空亡	매사가 불성하거나, 실재·실탑의 일이 있다 재·여인사에 관련된다 납비 금전 유통의 저해가 있다 관공사가 기한다	중심과(重審課) 직선·직역을 해야 선을 후결하는 사단이다 당면 안에 손을하라	辰 재성	앙이니 밤이나 모두 불평 부족하네? 처음은 어려워도 크게 움직여서 근심걱정은 풀리겠는데? 그런데 돈이 나하고는 인연이 없게 생겼어!	丑 이득 가능	○	아 발동사 후회 원행 중요 심정 외사가 내 임원	구 사	일어난 일	辰 巳 午	×	×	남 시 흉상 兎 / 여 午 未 申 酉 / 방 흉상 鬼	남 子 午 卯 酉 / 여 午 未 申 酉 / 방 子 · 午 · 卯 未	吉 안정	丑 午 方 / 목합日	○	○	○	午 日 月	남 方 시 / 방 方 시	連 種
●	亥 ⑫ 午	1	+	태음 空亡	매사가 불성하거나, 실재·실탑이다 관재 침범사에 철 몽중은 입신이고 침사에 철 몽중은 결혼사가 있다 상인의 병재가 있다	복음과(伏吟課) 상하가부가 막히서 고민하는 사단이다 심중이 자유롭지 못한 갑이 특징이다 자기 과신으로 재난이 있다	寅 비견	운세가 기복이 있게 생겼네? 일장시면 안돼! 장 형 송사를 주의해야겠어! -여귀가 붙었네? -전 흉사귀가 발동했어!	子 이득 가능	∧	아 발동사	신 사	일어난 일	寅 巳 申	×	×	남 시 여귀 兎 / 여 午 未 申 酉 / 방 전 흉사 鬼	남 辰 未 戌 丑 申 / 여 辰 未 戌 子 · 午 · 巳	吉 안정	寅 未 方 / 목합日	○	○	○	辰 · 巳 日 月	남 충 方 납지 / 방 충 方 납지	入 期

• 월에는 밤에서 낮으로 가는 시간이고 酉시는 낮에서 밤으로 가는 시간이므로, 이 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양시각(陽時刻)이 갖는다

• 공망 의 진 술 축 미시에 해당되는 만사는 대성에 무방(無益)하다
• 초전이 점시를 극하면 심동우검(心動憂檢)이 된다
• 역마공망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한다

• 상대 사귀 희망사도 모든 「길흉속지 법」 같이 되고 앞이고 좋고 나쁘고 하고 있는 점단사를 보라 (예 : 묘 辰 巳 「주인」이 재물 같은 초전 · 중전 · 말전에서의 재극(財剋) 여부를 보라 이로서 동태 주이 결과를 내다

• 일간과 초전 · 중전 · 말전의 생 비 재 극 설 · 공망 (예 : 묘 辰 巳 「주인」이 재물 같은 초전 · 중전 · 말전에서의 재극(財剋) 여부를 보라 이로서 동태 주이 결과를 내다

• 변이부신의 낮나옴 구별법 (예 : 묘 辰 巳 「주인」이 재물 같은 초전 · 중전 · 말전에서의 재극(財剋) 여부를 보라 이로서 동태 주이 결과를 내다

• 국가와 개인을 「묘 辰 巳」 중 어느 것인지 구분 구하는 묘 辰 巳 의 숫자

• 위 우측기는 말전 에 의해 따라 되고 안되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하 (예 : 묘 辰 巳 「주인」이 재물 같은 초전 · 중전 · 말전에서의 재극(財剋) 여부를 보라 이로서 동태 주이 결과를 내다

• 왕상(旺相) 휴수(休囚) 구별법 : 춘하(春夏) 월에 목화(木火)가 왕(旺)하고 토(土)는 사계(四季)월에 왕하고 금수(金水)가 왕하고 추동(秋冬)월에 왕하다

주문(注文)만 받겠습니다.

이 책 한권이면, 오행을 전혀 모르는 활인 천역자일지라도 대가(大家)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문하십시오! 활인천역자의 가장 긴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도서출판 복문
주소 :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사업자등록번호 : 210-90-78770
출판사등록 강북 제9-00076호

주문전화 (02) 993-8680
입금구좌 한빛은행 813-041583-13-101 도서출판 복문

가격 : 930,000(구십삼만원)

본 책은 월장별 12권으로 분권, 60 갑자일을 매일별로 바인더 처리, 부록(보는 요령과 제법비해), 비디오(재제작 된 것)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카드로 장기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상담(相談) 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명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뒷면에는 사과 삼전표, 천지반표, 과·격 풀이, 년면상신법 및 묻는 사항에 대해 즉시 답변해 줄수 있게끔 항목별 길흉성부단정(吉凶成否斷定)을 실어 놓았습니다.

정신보다 물질 치우쳐 세상 어수선

같이 한자리하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무시하고 물질계에만 치우치게 되니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불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정신계에 빠른 길로 들어가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란, 일체 만물 만생의 생명이 불(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행하고 배우고 물리가 터지고 하는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불교가 어느 한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진리를 생각 해보십시오. 하여튼 어느 종교든 지구 대기권, 즉 말하자면 공기주머니 안에서 같이 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림 · 최주현

주인공 믿고 관할때 대뇌로 통신돼 정수에 입력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마음이라는 뜻도 모르고 또는 일체 만물 만생이 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우주 삼천 대천세계가 우리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세상이 가설이 돼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설이 돼있기 때문에 모두가 통신이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이 끊임없는 사실을 초월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뼈 한 무더기를 보시고 절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생의 어버이신데 어찌 뼈 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형성되고 거푸거푸 돌아가며 나투면서 이렇게 왔는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돌아서 나왔으니 이 뼈 무더기는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는 할머니일 수도 있으니 어찌 그냥 지나간단 말이냐"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하기를 수 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나왔는데 오늘날에 볼 때에, 초월해서 본다면 삼만 년 전이래도 현실이고 삼만 년 후래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고, 현재의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초월해서 본다면 바로 수 없이 미생물에서부터 어버이가 되고 자식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해온,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볼 때 모두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모두가 그런고로 일체 평등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계의 50%를 따진다면 뿌리가 있어서 나무들이 살듯이 사람도 역시 자기 종자 뿌리가 있음으로써 육신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물질계로만 치닫지 정신계 50%는 빼놓는 까닭에 융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살기가 어렵고, 걸리는 게 많고 일일이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나는 책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래서 영어로 다 저렇게 말하고 끊고 말하고 끊으면 말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항상 여여하게 사시면서도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업이니 어쩌니 하면서 야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편안하게 사시려면 착과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놓느냐, 이게 문제겠죠.

사람들이 죄다 업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한다고 합니다. 자기 몸뚱이 아닌 뿌리, 즉 말하자면 불성, 자부처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관할 때 바로 대뇌로 통신이 됩니다. 대뇌로 통신이 돼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하달됩니다. 하달이 되면 즉시 정수에, 지금 여러분한테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되면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이 돼서 나오는 용도는 다양하죠. 우리의 삶에 의해서 일거수 일투족이 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죄가 있다느니 업이 있다느니 내 팔자는 왜 이러냐는 등 이러한 소리하지 마시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밀고 넘어가는 그런 믿음과 자세를 취하셔야 앞서 나쁘게 입력됐던 것이 다 지워지고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면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체만물 생명이 佛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말로 알지 마시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해보셔야 체험을 하시고 "아, 이런 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심성의학도 될 수 있고 심성과학도 될 수 있고 심성 천체물리학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하죠. 없는 게 마음이죠. 그 마음이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도 없는 까닭은 여러분 몸 속에 생명들이 많으시죠? 생명과 모습과 많은 의식들이 어디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내 마음이 안으로 모든 것을 믿고 거기에 입력될 때 거기서 다스림을 받게 되죠. 쉽게 말하자면 각자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의 교차로를 증명해주고 자기를 따라주는 것이 영혼이지마는 에너지를 배출시키고 움죽거리지 않는 자기의 주인공, 그대로 불기둥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 속에 있는 의식들이 주인공에다 놓으면은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밀어 가는 응신이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자기 모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등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죠. 인간으로서 좀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서로 연결돼서 산다는 사실을 아느니 만큼 우리는 먼저,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더할 수 없는 보배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보디가드가 될 수 있고 이끌어주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해결사가 될 수 있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주는 사람도 없을 테고 대신 아파 주는 사람도 없을 테죠, 또 밥 먹어주고 잠을 자주고 똥을 눠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깨달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홀로 와서 길을 걷다가 길에서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이 살얼음판 같다, 파도치는 바다와 같다는 말을 하죠. 그건 왜 부처님께서 비유했느냐 하면… 몸은 배로 비유를 하시고요, 또 몸 속에 들은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하시고, 또 주인공은 선장으로 비유했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지금 인생 길을 노젓고 가는데 파도가 치고 그런다고 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주해신하고 바깥으로 찾아 봤자 그거는 오히려 배가 뒤집힐 징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마음을 집중해서 안으로 놓으면은 선장하고 콤비가 돼서 배는 그대로 유유하게 가는 데까지 다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대성인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라면 못났든 잘났든 너 먼저 알아야 하느니라. "네 믐뚱이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를 이끌어 가는 운전수가 참 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 모습은 참 자기가 이끌어 가는, 즉 말하자면 불가에서 시자라고 그러는데 종이나 마찬가지죠. 종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은 자기가 형성시켰고 자기가 진화를 시켰으니까 자기 몸이죠. 자기가 자기 몸을 이 세상에 형성시키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빌어서 이 세상에 출현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현실도 그냥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너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니 애들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자기가 살면서도 정신과 육신이 같이 콤비가 돼서 100%로 돌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50%만 자기라고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걸려서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정신계를 아예 생각지도 않거든요.

정신계로 회복되는 길은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마라 잠을 자지 마라, 먹지 마라 입지 마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운전수가 차를 이끌고 다녀요. 기름이 없어도 운전수가 넣어줄 것이고 찌그러뜨려도 고칠 거고 고장이 나도 고칠 거고…, 모두가 그러한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만이 나의 주인공이 모든 것을,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그냥 거기다 맡기고 부지런히 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사람이 살려면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일거수 일투족 각양 각색으로 닥쳐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일임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맡기고도 걱정이 안 되죠. 걱정이 안되고 그냥 밀고 넘어가는 그 마음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말로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마음으로 휘어잡을 수 있어야 만이 나가다가도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데는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를 볼 때에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관하면, 즉 말하자면 일임하고 관하면서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줘라,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돼요. 모두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신경질이 나면은 아무 데나 막 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말고 속에서 분이 치밀어도 '너만이 치밀지 않게 할 수 있어, 너만이 화목하게 살 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떠밀어서 일임하는 것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참선을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참선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움죽거리지 않는 믿음과 움죽거리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말하기를 앉으면 좌선이요 서면 입선이요, 누우면 와선이요, 일을 하면 행선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이 돌아가야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오온에 근거가 돼서 참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유하기를, 좌선을 하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일어나니까 어떠한 선지식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는데 어찌 일어나느냐" 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하되 참선이 아니라 좌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좌선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했다가 일어나면 좌선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가 앉으면 돌아가고 일어나면 지구가 멈추나요? 세상이 다 멈추나요?

그래서 모두가 일분 일초도 쉬지 않고 초월해서 돌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린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잘 알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났고 돈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못났든 잘났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모르고 없고 또는 못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대하게 보이고 그러는 거지 전부 공생이면서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이 세상을 다 살게끔 되는 거죠. 산에도 고목이 있어야 예술적으로 아주 좋게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수 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를 해서 형성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됐다는 그 사실을 한번 더 상기시켜드릴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평등해야 된다, 그 평등이 어디서 오느냐? 보시를 한다 해도 남을 위해서 하면 좋다고 이렇게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못났을 때의 내 모습 같고 내 아픔 같고, 나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그러니까 초월해서 이 마음 공부하는데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정신계를 모른다면 물질계에도 혼합이 되지 않고 물질계에도 영 살 수가 없는 정도죠, 고가 많다고 하고요.

나는 주인공의 심부름 꾼이니 맡기고 부지런히 뛰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보심으로써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갈 겁니다. 통역을 하니까 뒤바뀌어서, 나는 글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꾸 내 뜻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다 이해해서 들으시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정신계를 불어넣기 위해서 서로 모인 겁니다. 무슨 장난이나 하려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자리를 하시면서 듣는 게 어설프더라도, 양면을 다 하려니까 상당히 이상스럽게 얽히네요. 허허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앞으로, 지금 서울에서는 한 달이면 세 번씩, 즉 말하자면 남자들만 모이는 법회가 있고 다 같이 한데 모여서 하는 법회가 있고 또 연구진들 법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여기서 처음 만났는데 내가 말을 해줬다고 생각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형상을 믿고 이름을 믿고 기도를 하고 이러지 마시고 법당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부처님이 내 모습이요, 내 몸이요, 내 마음이요, 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둥글게 예배를 올리고서 돌아설 때는 다시 자기가 둥글려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역하는 말을 듣다보니까 내 말은 끊어져 버리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 그러니까 미국 분들 따로 한번 모이시고요, 한국말 하는 분들 따로 모이시고요, 이렇게 한번… 서로 모여서 질문을 하시고요. 모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허허허. 나무 뿌리가 있으면 저 줄거리로 가야할 거를 이 줄거리로 가게 되고 아주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술적인 강설이라면 적어 가지고 와서 하는 거죠. 허지만 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비틀비틀, (대중 웃음) 그러나 그렇게 들으셨어도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생활에 요긴하고, 모두가 생활이죠. 뭐 나가서 활약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체험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즐겁답니다.

누가 미국에서 말입니다. 전화를 들이대고요, "하혈을 하는데 병원에 가도 멈추질 않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알았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인제 멈췄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런 거를 생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거수 일투족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용도대로 주입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드 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시련이 좀 더, 어떤 사람은 이러거든요. 그냥 생활이 참선입니다. 그냥 생활이 참선이에요, 자고 먹고 똥누고 그냥 일하고요. 그래서 앉아서 혹시나 여유가 있을 때 한시간이고 우리 스님네들도 참선을 합니다, 좌선하는 게 아니라 참선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합니다. 그렇게 관하고 모든 면에서 확실히 내 나무는 내 뿌리를 믿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꼭 하신다면 정말 살기가 아주 용이할 겁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죠, 이게 말이 헛갈려서요, 종잡을 수가 없이 돼요. 그러니깐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같이 날짜를 따로따로 정해서 양쪽을 다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한서너 너덧 분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만 생각지 마세요. 그 뒷면에는 뜻이 있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바로 불빛이 있으니까요.

▲사회자: 스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시통역을 위하여 삼백 개의 이어폰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오백 분을 넘는 바람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법문을 하시는 스님과 청중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행 및 시간을 감안하여 사전에 질의의사를 표명하신 분을 중심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 째 질문하실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 평정돼야 참선

▲질문자1: 스님, 이렇게 먼길을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90년 5월에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 스님께서 방문을 나서는 저의 등에다 대고 "주인공을 찾아" 라고 하신 말씀이 오랫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참 나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자신이 오랫동안 해오던 방황과 외로움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누구도 어떤 가르침도 저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금 시카고에서 월급쟁이 내과의사로서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막 밀려들 때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생각이 흐려져서 잘못 판단을 내릴까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생활 참선법을 응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환자의 하소연을 저의 참나가 듣고 낫게 해주며, 나는 내 몸과 내 지식을 이용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믿고 환자가 낫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것을 참 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환자를 보고 다음 환자를 보는 사이에 다만 10분의 1초라도 낫기를 관해 보면서 다시 제 자신을 새롭게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진 환자를 만납니다. 그때는 의사로서의 좌절감과 동시에

☞ 20면으로 계속

너의 치유능력 함께 하면 더 빨리 나아

☞ 19면에서 계속

참으로 많은 연민의 정을 느끼곤 합니다. 2년 전에 한 여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신경성 대장염으로 하루에도 설사를 수없이 하여서 약으로 치료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술의 권유를 받고 있었으며, 그 병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병의 임상적 경과를 잘 알고 또 다른 환자의 케이스들도 많이 봤으므로 제 자신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환자에게 "약과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있는 치유 능력을 함께 해보면 더 잘 치유되지 않겠냐" 고 했더니 그 환자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의식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만 그 의식을 넘어서서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모두 관장하고 있는 너의 뿌리, 즉 참나가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라고 일러주고선 그리고 모든 걱정을 우선 쉬라고 했습니다.

집착 벗으면 苦 멸해

그때 사실 제 자신도 참 나의 치유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환자가 너무 안되었고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몇 달 전에 그 환자가 다시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시키는 대로 기도했더니 병이 완전히 나았고 약도 스스로 끊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대로 행한 결과 그 낫기 힘든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여자에게 나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참 나의 치유능력에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그 뒤로는 더욱 확신 있게 마음공부를 다른 환자들에게, 특히 불치의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의사로서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마음이 어떻게 물질적 차원인 육체에 작용을 하여서 불치의 병이 낫거나 나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일러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내내 그렇게 대치를 하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식구들도 대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깐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그렇지 않아도 무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될 수 있어' 하고 관해 보세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찾아와서 태아가 거꾸로 섰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한 모양이지, 뭘" 그러면서 관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와서 하는 소리가 병원에 가보니까 "거꾸로 섰던 게 바로 섰대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고 누가 대신 행복을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자신을 믿고 밀고 가는,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소 떼가 강을 건너는데 악어들이 욱시글득시글하니까 앞서, 즉 말하자면 소 떼의 왕초가 먼저 건너가야 다른 소 떼도 들어설텐데 물에 들어서질 않으면 못 들어가죠, 뒤로 물러서죠. 근데 왕초가 딱 물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물에 들어서 악어 잔뎅이고 머리고 딛고 그냥 비호같이 건넜답니다.

그거와 같은 생각으로 해야하는데 '이런 건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안되는데…" 이런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고 안되는 게 많고 그러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조그만 걸 가지고도 그래요. 싸우고요. 그런데 거기다 일임하여 관하면 편안하게 싱글싱글 웃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몸뚱이를 오히려 혹사시키면서 병이 들게 하면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음에 대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죠, 듣는 것도 고정되지 않구요. 또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움쭉거리는 것도 자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리를 확 알면 고가 따로 있나요? 내가 고라고 생각하니깐 고지 고가 없다면, 고라는 이름이 없다면 집착도 없을 겁니다. 고가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이름 가지고서 집착을 하니까 진짜 고가 되죠. 집착만 벗어지면, 그 이름을 가지고 탓을 안하면 그냥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다, 고가 멸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여하죠.

> "정신계 자성속에 일체만법 있어
> 자유자재로 화해 나투고 돌아가니
> 苦도 病도 붙을자리 없어 걱정없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내 자성이 말입니다, 내 자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하는 얘기죠. '정신계의 내 정신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 소리예요. '내 자성으로 하여 내가 여여하게 사는 삶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거예요. 또 내 불성으로 하여금,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주인공으로 하여금 '내가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자성으로 하여금 자유자재 하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정된 것도 없고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나투면서, 그런데 고가 붙을 자리가 있고 병이 붙을 자리가 있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차가 망가지면 폐차시키고 다시 차를 꺼내면 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위 조상으로나 밑의 자녀들이나 아주 평탄하고 좋거든요. 다들 물어보세요,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이나 또는 뉴욕, 워싱턴 어디든지 사람들이 아주 적극 공부하거든요. L.A도 접때 갔는데 뭐 여간 적극적이 아니에요. 또 적극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해보니까 벌써 나타나거든요. 마음 편안하지 스트레스 없지, 또 생활이 좀더 윤택하게 되지, 또 어디 회사에 다닌다면 유유하고 편안하게 슬슬 이끌리지 아, 이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이 뭐 별다른 거 있나요?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고 화목하고 또 남한테 꾸러가지 않고 그럭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못났든 잘났든 나부터 믿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러고 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밥 한 그릇 가지고 일체 만물 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 남느니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네가 너 자신을 믿고 타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공덕이 되느니라, 타의의 이름을 믿거나 형상을 믿으면 도깨비 장난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귀신주머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일이냐? 각자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면 좋을 걸 나를 믿지 않고 하니깐 지혜가 부족했던지 각자 자기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각자 소릴 안 해서 그렇죠, 그래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그렇게 도깨비 장난과 같고 귀신같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부터 믿어야 순서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50%의 예수님 모습으로 그냥 달려들은 겁니다. 그러니 정신계의 50%는 간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르칠 수 있는 재료도 반이 뚝 끊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기껏 가르쳐 놓으니깐 딴청하고 있죠. 가르치면 딴청하고 스님네들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스님네들이 머리 깎고 입산했을 때는 그래도 속가에서 사는 것 보다 절반이상 삼분의 이는 벌써 마음이 귀결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습게 알거든요, 우습게 알면 우습게 아는 대로 벌써 보이지 않는 데서 가고 음이 없이 딱딱 입력이 돼서 자기들한테 떨어지니 손해죠.

하여튼 이렇게 횡설수설했지만 여러분은 횡설수설하지 마시고 하하하, 침착하게요, 아까 저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한테 오는 병자… 하여튼 고치지 못하는 병이든가 고치는 병이든가 다 읍니다. 그러나 고치는 병도 만약에 열흘 갈 거라면 단 일주일도 안가고, 또 일주일 갈 거라면 단 사흘도 안가고, 단 사흘 갈 거라면 단 하루도 안가고, 하루 갈 거라면 일초도 안 걸려요. 우리가 어떻게 병만 가지고 야단을 하겠소. 병뿐이 아니라 모든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고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어저께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고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비 안 맞고 설법하고 설법을 들으면 됐지 뭐 걱정이냐" 그랬어요. 오늘 비 맞으신 분 없죠? 허허허.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없으면 안되는, 자기가 없어도 안되고 자기가 없는 반면에 모두가 없는 거고 자기가 있는 반면에 모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상대성을 어떻게 알며 또는 세상을 어떻게 알며 종교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교 저 종교 따로따로 그러는데 결국 하나의 진리입니다. 공기주머니를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 바로 생명체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우주 삼천 대천세계를 한 찰나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차원이 높아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에너지가 없게 되면 뭘 가지고 사느냐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면 높은 데 있는 에너지를 끌어쓸 수 있다는 겁니다, 허공에도 꽉 찼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조금조금 체험해 보시면 아주 신기할 겁니다. 그러고 삶음에 대한 맛이 날 겁니다. 모두 여러분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인공, 주인공 이름만 알지 진짜로 자기 뿌리의 주인공이 자기와 콤비가 돼서 돌아간다는 걸 모를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미국말 하는 분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있네? 허허허, (대중 웃음)

※위 법문은 1997년 6월 21일 시카고 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 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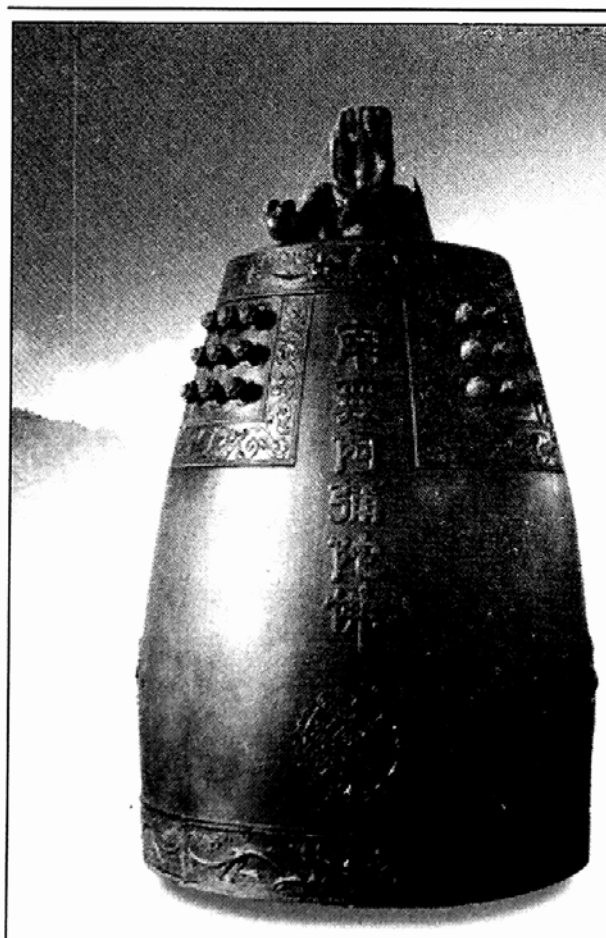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심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구운 마늘환
100% 토종 구운 마늘
- 심한 피로 / 정력 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 / 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 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기도하실부전스님 모십니다
기도하며 함께 사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 관음도량
011)855-1116
055)552-4542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전국 CCTV카메라 설치 및 A/S 렌즈 전문 업체
사찰, 학교, 은행, 공장, 숙박업소, 병원, 주차장, 아파트, 슈퍼마켓등등.
055)365-5073
011)881-8105

기도스님, 행자님
공기 맑고 숲이 있는 정법도량에서 오로지 수행으로 기도하실 분
(사미스님 환영합니다)
▷ 대구광역시
011)9317-9181

사찰에서
(공양주, 처사)
부부가 함께
계실 분을 모십니다
전화 033)635-1401
H·P 016)308-2827

원조 농산 (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 삼백초 차 (건조 600g) **4인가족 1달분 4만원**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011)479-0633
대리점 모 집

기도스님 구합니다
(조계종 스님)
▷ 위치 : 진해
055)552-5111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철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특 방 (特方)
두손두발든 해수, 천식 3개월 완치
갑상선 및 일체 간질환 3~6개월 완치
모든 난 · 불치 부인병, 소아병의 근본적 치료법을 상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상담문의(24시간)
011-9800-0922
밀레니엄 건강 마을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소원성취되는
벼락맞은 대추나무
예부터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여기 지리산에서 600년된 진품이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주 6만원 단주 5만원 인감도장 5만원
소원성취 귀중한 물건을 소장용으로 목각, 낙관등 특별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은 청년고철 목적 물시지금으로 쓰여집니다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011)9585-4903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효도상품 - 부모님께 건강을 찾아드리세요!
木목醋초 수액원기시트 의약품 외 용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약물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지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중 풍** :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불계감이 없어져 몸이 기분합니다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 H·P : 011)397-2715

포대화상

"HONG MOC ART는 고급품을 만듭니다."
높이 25cm - 가격 50,000원
재질 - 노송(오래된 소나무) "완만한 크기"
포대화상을 소장하면 재물이 따른다는 풍습이 옛부터 전해오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02)444-2822 018)292-2823
서울 판매처 조계사앞 길상원 [02-722-4435]

달마도를 무료로 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소승이 1000일 기도를 회향서 10가지 발원을 세우고 달마대사도를 하루에 10점씩 그려 청정한 마음으로 불보살전에 삼배올리며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이생에서 맺은 아름다운 인연이 다음생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달마도를 원하시는 분은 우표(170원) 한장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소승이 기도중 정성껏 그린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내실곳 우 618-230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34외 1번지 수도암 정암 스님
전화 : 051)972-5687

다도명상법 강좌
- 茶에 대한 기본교육(차마시는 법등)
- 차를 통한 명상법 강의
- 1박 2일, 2박 3일 과정
- 여행 + 교육(숙식제공)
- 대상제한 없음

055)833-9321
지리산 다도학당 (영목다컨)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포교원개원 청담 1동
www.bulljichon.com 한글도메인 수산스님.com
무료 역학 상담 氣치료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 원앙예식장 후문 맞은편 4F
문의처 02)3444-4376
02)3442-4194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립 및 재즈와 클리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리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도연피아노학원
■ 연주를 듣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시옆
02-741-2214/018-272-2815
송장인주(법회 · 산사 유악회 · 결혼식)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근교 (강남에서 40분 거리)
- 대 지 : 1,100평
- 법 당 : 45평(목재 포집)
- 요 사 : 80평(2층 백불)
- 산신각 : 10평(목재) ● 양도가 : 6억
※ 아주 좋은 계곡이 있으며 산세 종음
- 위 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대 지 : 150평
- 법 당 : 20평(목재+황토)
- 양도가 : 6천만원
※ 수행 정진 할 토굴로써 아주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절터, 기도터
- 울주군 상북면 간월산 5,000평, 건물 60평 기가 막힌 계곡
-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1,000평, 법당 50평 공사중 중단(90%진척)

018)563-9575
www.pungsu-serve.com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 부지 : 1,000평 하천부지 : 500평
- 건물 : 법당, 용왕각, 산신각, 요사채 있음
- 가액 : 1억 4천

055)271-922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대지 : 400평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24평
- 특징 : 계곡을 끼고 물이 유명함
- 가액 : 1억 5천(절충가능)

017)845-1553
055)835-1553

중국추나사 자격취득!!
12월 16일~ 23일(7박8일)중국연변대학의 학원에서 중의학기초(경락,경혈),추나요법(발관리, 마사지)인체해부(실제사체)를 배우고 중국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추나사(안마사)자격취득기회, 선착순 10명
054)885-6461/011)522-1122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를 보내드림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3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온천장 근교
- 법당 : 삼존불, 지장 108불
- 특징 : 교통 및 조경 조건 최적 45평, 큰방 2개, 대형응접실, 주방, 부산포교적지
- 보증금 : 3천만원 월 20만원 2천 5백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800만원

011)563-445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평리동
- 평수 : 30평 아파트 밀집지역 옥상도 사용가능 함
- 가액 : 전세 2,200만원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1)819-411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건평 : 60평
- 2층 법당 : 24평
- 요사채 : 1층 36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보증금 천만원부터 월세 가능)
- 시설비 비품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

011)9885-7547

포교당 (급) 가능건물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 7동 (삼각로타리)
- 3층 건물 중 3층(85평)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현장 보신 후 조정가능

※ 포교당, 불화, 탱화, 화방, (불교)전통찻집 운영하실 분 환영
011)507-7712

美顔水
천연암반해수
미안수는 신비의 100% 천연 암반해수로써 칼슘, 미네랄, 마그네슘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뿐만 아니라 피부의 노폐물과 각질을 벗겨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건강하고 맑은 피부상태로 회복시켜줍니다.
- 상표출원 : 2001-43625호
- 원산지 : 한국
- 제 품 명 : 天然 美顔水
- 용 도 : 피부미용
- 판 매 처 : 동방 뷰티 스토아
- 보상책임보험 : 1억원 가입
- 고객상담실(경북 대구 총판) : 053)784-5945 / 016)509-2864

※ 의약품도 화장품도 아닙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 전철역 3번 출구 5분거리
- 법당 : 40평, 방 2칸
- 보증금 : 천만원 월세 47만원
- 시설비 : 850만원
- 위치 :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 근교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3분거리)
- 땅평수 : 140평 (인법당 40평, 법당 10평, 방 2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 욕실 1개, 마루 1개)
- 특징 : 기름 보일러
- 가액 : 3,800만원 (스님직접)

011)450-7836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세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안내
- 가액 3억 5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580평 법당 15평
- 삼성각 4평 요사채 35평(현대식)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잘어우러진 명당터 임, 교통편리
- 가액 : 1억 2천만원 (교환가능 함)

043)832-4785

신축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 부지 : 약 10,000평여
- 대웅전 20평 요사채 30평
- 생활도구 냉장고 식기 일절 有
- 가액 : 1억 7천
- 연락문의전화-장흥군 관산을 영천당

061)867-2878

포교당안내(임법당)
- 위치 : 서울 • 건물 : 구옥
- 평수 : 38평
- 주변이 녹지이며 전망이 아주 좋음
-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전철역 10분거리
- 가격 : 1억 2천만원

016)481-6909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괄신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8금강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현왕탱 나한탱(오백나한) 신선탱 용왕탱 독성탱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중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TEL : 041)541-3545 H · P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2000여장을 보실 수 있읍니다)
불 모 오 재 택

귀 암자 운영하실 분
- 부지 : 700평 ○법당 : 25평
- 요사 : 35평 × 2동
- 불교 복지 시설 150평
- 가액 : 8억 5천만원

- 부지 : 1900평 ○법당 24평
- 요사 : 40평 ○산신각 : 1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사찰부지, 전원주택부지
- 부지 : 260평(국유지 600평 사용) ○위치 : 양평 ○구옥 1동, 방 2개 ○가액 : 1억원
- 부지 : 1050평 (대 350 전 700) ○전경 : 30평 ○가액 : 3억
- 부지 : 573평 (대 365 전 208) ○가액 : 1억 5천
- 부지 : 3000평 ○평당 : 10만원

✔사찰 양도하실분 연락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02)595-1573 / 016)768-4324 이종봉 합장

암자 안내
- 위치 : 원주 새말톨게이트에서 15분거리 서울에서 1시간 20분거리
- 대지 : 100평, 건평 : 25평 방 3개, 큰 거실
- 특징 : 전원주택을 암자로 변형가능 주위 환경이 사찰 겸 포교당으로 적합 저수지와 산세좋고 오대산, 치악산 줄기
- 가액 : 8,800만원(융자 2천포함)

033)345-5597/011)771-5597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 용도 : 사찰 및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관악산 사당역 부근
- 자연녹지 주거지역
- 가액 : 평당 25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초전마을 717번지
- 평수 : 약 100평 (등기 난 평수는 88평), 집 4채
- 가액 : 6천만원

055)345-6129
016)554-7201

연수원별장 사찰부지
- 위치 : 경남 하동 청암
- 산자수려한 주산 기슬기
- 준 농림지와 대지 합계 1,415평 산세와 계곡이 어울어진 조용한 명당터
- 모든시설 용이 함
- 예상 가액 : 1억 2천만원

011)843-4773

영 가 천 도
(1) 영가가 신도(본인)의 입으로 원하는 사항을 직접 말하게 합니다.
(2) 100% 천도를 확신하며 만약의 경우 환불까지 책임집니다.
(3) 원인 모를 병고로 고생하시는 분
(4) 몇 번째 천도재를 해줘도 천도가 안되는 나쁜 집안령(鉢羅靈)등에게 고생하시는 분 그리고
(5) 무덤을 건드리거나 이장해서 우환이 생기는 집안과
(6) 혼인이 이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처녀, 총각
(7) 신(神)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조계종 스님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직접 메어주기도 하고 또 모셔주시기도 하오니 일차 연락 바랍니다.
부산시 사하구 괘법동 253-9번지 (시상시장 내 신원 바로 앞)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정사, 주지, 동천 합장
051)312-5698/017-508-508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광주
- 법당 : 30평
- 요사 : 20평
- 부지 : 60평
- 가액 : 1억
062)943-0108
016)288-7541

- 위치 : 화정지구
- 법당 : 45(포교당)
- 요사 : 35평
- 임대층평수 : 100평
- 가액 : 5500/50만원
- 시설비 : 5000만원

- 위치 : 수원
- 법당 : 20평
- 요사 : 35평
- 부지 : 310평
- 가액 : 3억 5천

※ 시내 신축에 있으며 차량진입 가능하고 대중포교 도량으로 최고급 지역 임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임야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남안동 IC부근
- 2 차선 포장도로에서 약 100미터 차량진입가능 (종전에 과수원으로 사용)
- 2180여평, 총2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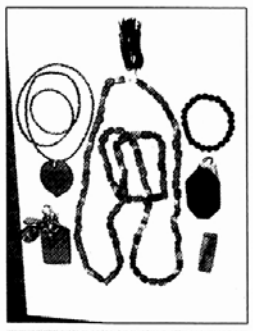
054)885-6461
011)522-112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3억 5천만원

011)678-769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양정 헌병대 옆 3층 건물 3층 총 130평 법당 70평 그외 방5개 (살림방 2개 및 공양간 시설 일체완비)
- 부처님만 모시면 물공가능
- 불교대학 및 불교 강좌시설로도 가능
- 전세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51)469-0605
011)843-5672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 수익금은 홍련암 불사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기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 **진품 벽조목**은 수百年 묵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年 7月 하순경 벼락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거리,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집을 짖고 고친 후, 정신질병, 손재, 혼수 호신부 패물 부적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재앙, 액운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향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홍련암 공덕하 법사
☎ 02)985-1360
011-9778-2803

지리산 사찰부지
- 위치 : 육조 혜능 스님의 정상이 모셔져 있고 일찍이 스님께서 예언한 해동제일의 명당쌍계사를 마주 하고 있는 화계장터 십리 벗꽃길 우리나라 최초의 녹차 시배지
- 현재 100% 녹차 밭 (1954평)
- 지번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330, 606-2, 607
- 도로접 즉시 건축 가능
- 가격 : 평당 10만원, 주인직접

011)875-550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 3리 4반
- 산신각 3평, 대웅전 8평, 요사채 30평, 심야보일러
- 종교사찰
- 가액 : 2500만원

033)372-4227
011)884-422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911-18호
- 법당 : 45평 • 방 2칸
- 주방, 삼존불 • 시설비 : 2000만원
- 보증금 :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절충가능

상 원 사
02)895-7512
011)230-7511/033)442-7827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 2천평 동강 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몽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 조경이 잘되어 있음. 천탑천불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건강관계로 급 안내. 답사 후 절충

033)378-2101/018)533-7780

인도불교 부흥 열기 힌두교 아성으로 확산



이지은 통신원
인도 델리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뉴델리 집단개종행사 반향

전국신문 1면 보도 · 방송 특집 방영

지역별 소규모 개종행사 크게 늘어

'가난한 종교' 이미지 극복 과제

지난 4일 뉴델리에서의 집단 개종행사가 있은 지 닷새 후, 인도 유수의 민영 뉴스채널인 스타뉴스에서는 이번 개종식과 달리뜨(Dalit, 인도 카스트 제도 하에서 불가촉천민을 비롯한 하층카스트)운동에 관한 30분짜리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행사 당일 프라임 뉴스에 이미 개종식에 대한 상세보도가 나간 후였다. 개종식 다음 날 전국의 신문들은 일제히 개종식 사진과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인도 언론의 이와 같은 반응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왔던 불교에 대한 거의 의도적인 무관심과는 크게 대조적인 것이다. 또한 이번 대 개종이 종교계뿐 아니라 인도의 정치, 사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대 개종의 중요성은 인도 불교 중흥의 가능성을 북인도 지역에까지 확대시킨 것에 있다. 독립 이후 인도 불교는 대부분 서부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와 주변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불교가 다시 생명력 있는 종교로서 되살아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암베드까르 박사의 지지기반이 마하라슈트라 지역의 하층민, 특히 마하르 카스트 출신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주요 활동무대였고, 대부분의 성지가 위치해 있는 동북부 인도의 비하르주 또한 불교가 파고들 틈 없는 힌두교의 아성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성지인 부다가야의 사찰조차 막강한 정치력에 밀려 다수인 힌두교도의 수중에서 관리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인도의 사정을 감안할 때, 7개월여에 걸친 전법여행과 뒤이은 수만명의 집단개종은 확실히 북인도 지역에 불교의 새로운 부흥을 예고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는 1956년 암베드까르에 의한 집단개종이 마하라슈트라와 주변지역에 그랬듯이, 이번 우디뜨 라즈에 의한 집단개종 역시 북인도 지역에 불교의 새로운 선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개종식을 주최한 '로드 붓다 클럽' 측의 실무자인 마우리야 (C. L. Maurya)씨는 힌두 원리주의단체들의 방해로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90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소규모의 개종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하르 불교도 협회'를 이끌고 있는 까루나 끼르띠 (Karuna Kirti) 스님 역시 "개종의 조용한 움직임이 각 촌락마다 번져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달리뜨들이 불교로 귀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불교의 중흥을 상징하듯 나그뿌르시 딕샤부미에 최근 건립된 5천여명 수용 규모의 대법당. 딕샤부미를 관리하는 암베드까르 박사 기념 위원회가 5천5백만 루피(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아쇼카 대왕이 세운 산치 대탑 모양을 그대로 본떠 지었으며, 돔의 직경과 높이가 각각 37m에 달한다.

그러나 인도 불교의 앞날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인도의 불교는 주로 과거 하층계급 출신인 달리뜨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1956년 첫 개종 당시부터 인도 사회내의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한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불교가 신앙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도 밖에서는 세계종교의 반열에 올라있는 불교가 오히려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는 '하층민의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미약한 재원(財源)도 인도 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불교도가 비교적 밀집해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갖추어진 사찰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어렵게 마련한 불교인들만의 공간에 불상 하나를 모시는 것도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한 불교도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로서, 태국이나 일본 등 불교국의 보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불교에 귀의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리교육이나 불구(佛具)의 확보 등도 거의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최근 완공된 나그뿌르 딕샤부미의 법당은 불교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대 불사였다. 또한 나그뿌르에서는 불교병원이 착공되었고, 불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논의도 지역 의회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제한된 지역의 이야기 일 뿐,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교는 그야말로 '가진 것 없는' 종교일 뿐이다.

현재 불교 기반 정당인 공화당은 수많은 정파로 나뉘어 통일되고 힘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분열된 정당이 불교인들의 권익 신장에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미약한 불교도의 힘이 합쳐지지 못하고 분산된다면 인도의 불교는 갈 곳이 없다.

지리산 환경농업교육장 문연다

실상사 24일 준공… '한생명' 법인 설립도

영성·생태·귀농교육

지리산 자락에 친생태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불교 환경농업교육장이 문을 연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24일 오후 2시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에 소재한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환경농업교육장 준공식 및 사단법인 '한생명' 창립기념 세미나 를 갖는다.

실상사(주지 도법)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추진중인 지리산 생태공동체 건설의 일환으로 마련된 환경농업교육장은 지난해 10월 기공한 지 1년만에 세 동의 흙집 건물로 귀농전문학교 신축학사를 완공,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와 불교귀농학교 교육생 및 사찰 수련회 참가자들의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금 2억4천만원 등 총 3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3천750평에 건립되는 환경농업교육장은 이번에 건립된 귀농전문학교 신축학사 이외에 '실상사 작은학교' 교사와 수련관 등 3동의 건물을 더 지을 예정이다.

이번 환경농업교육장 개원을 계기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그동안 추진해 온 귀농교육 중심에서 영성 및 생태교육은 물론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생태마을 건설 등 '귀농자 정착지원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27일 조직 확대, 사업의 다양화 및 체계화,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단법인 '한생명(대표 도법)'을 창립했으며, 24일 '새로운 삶의 문명, 귀농'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갖는다. (063)636-3776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14일 김해 동림사에서 봉행된 화엄대선사 영결식.

화엄스님 다비식

10일 입적…1천여명 애도

범어사 주지와 선원장을 역임한 한산당 화엄 대선사가 10일 김해 동림사에서 세수 77세 법랍 55세로 열반했다. 14일 범어사문도장으로 동림사에 거행된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 등 1천여명이 동참해 스님을 추모했다.

1925년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46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하고 48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1955년 상주 남장사 주지, 63년과 72년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제방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했다.

스님은 "칠십칠년 살아온 꿈속의 나그네, 꼭두각시 몸을 벗고 어느 곳에 가는고. 만일 누가 물어도 말할 게 없나니, 신어산 영봉엔 단풍잎이 날으네. '이고 추워라 감장사 감도 하나 못 팔고 불알만 꽁꽁 얼겠네' 하리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김해=천미희 기자

계룡산 자락 시민선원 생겼다

공주 학림사 무료운영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공주 학림사(주지 진호)가 일반인들에 참선 수도 도량으로 제공할 오등시민선원을 20일 개원한다.

연건평 200여평 규모의 이 선원은 24시간 기거하며 수도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종파나 종교를 떠나 누구나 선을 체험하고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1~2일, 3~4일, 1주일, 3개월 코스의 다양한 선 프로그램을 마련,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시민선원 개원으로 대전 및 충남북 지역의 선문화가 새롭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042)825-0515

김재경 기자

사찰옆에 대형축사 건립

울산 신흥사 "수행환경 훼손 · 식수원 오염"

신라시대 창건된 전통사찰인 울산 신흥사(주지 지은) 주변에 돼지 1만여 마리의 기업형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조승수 울산 북구청장이 주민들과 사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사를 허가해 1만5천 그루의 나무가 유실될 위기에 직면했다. 마을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에도 심각한 오염이 염려되며 여름이면 악취로 청정한 수행 공간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들의 민원 접수시 조승수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지만,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허가를 내주고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사찰측 주장이다. 그러나 북구청은 정부의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정당한 허가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신흥사 주지 지은스님은 "신흥사와 주민들은 돈사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때까지 관련기관을 상대로 서명운동과 시위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몽골 밀교의식 내년 한국서 시연

진각종 간단사 방문 한·몽 불교교류 합의

몽골의 밀교의식이 내년 가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연될 전망이다. 또 한국과 몽골의 불교교류도 적극 추진된다.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11월초 몽골 간단사를 방문, 총무원장 등 불교지도자들과 만나 내년 10월 17~18일 봉행될 밀교의식 시연법회와 국제학술회의에 몽골 불교지도자들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간단사는 진각종 행사에 밀교학자 1명과 밀교의식 시연 스님 등 6~7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진각종은 이번 방문에서 진각종과 몽골과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정례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단사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에 있는 전통사찰로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몽골의 대표적 사찰이다. 진각종이 간단사와 교류를 시작할 경우 이는 국내 종단으로서는 처음있는 일이라 향후 한국과 몽골 불교계와의 교류 활성화에도 커다란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



총화종 내년예산 96억

총화종 중앙종회(의장 만오)는 13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종회의원 20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중앙종회를 개최, 내년도 예산 96억원을 심의 확정했다(사진). 또 이날 종회에서는 내년에 강원도 인제군에 종단 원찰을 착공하고 종단 홈페이지 개설, 종도 연수 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전북불교대 수계산림

24일 청화스님 초청법회



전주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24일 오후 2시 큰법당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및 청화 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사진)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수계법회는 '온 가족의 불자화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수계동참을 기다린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10일 4층 법당에서 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 재원스님을 초청, '전북불교대학 상조회' 50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063)226-7878

조기식 전북지사장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습의 의식 골고루 체험했어요"

군종병 첫 합동수련

"법사님, 목탁은 어떻게 쳐야 올바른 것입니까?"

"목탁은 정성을 다해서 합장하는 자세로 쳐야 하는데 〈반야심경〉 등 경전을 독경할 때는 시작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의미로 잠시 호흡을 멈췄다가 치는 것이 좋습니다."

12일 조계종 포교원 주최 '불교 군종병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봉선사 설법전. 불교습의 교육을 맡은 재각 김재윤 법사(군승단 교육국장)가 목탁치는 요령에 대해서 직접 실습해 보이며 설명하자 군종병들은 고개를 끄덕거린다. 강의가 끝나자 목탁치는 요령, 절하는 자세 등 배운 내용을 곧바로 따라해 보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듯 일부 군종병들은 옆 사람 눈치만 살핀다. 목탁치는데 자신이 없는 군종병들은 휴식시간에도 지도법사와 스님들에게 개인지도를 받았다.

14일까지 3군사령부 예하 연대급 군종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수련회는 종단차원에서는 처음 주최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사실 군종병 집체교육은 그동안 각 사단별로 분기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8월 군승단 운영위원회에서 대규모 집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번에 시범적으로 열린 것.

이번 수련회는 '신도 기본교육' 강의를 시작으로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의 '불교상담' 특강, 목탁과 예불 등 습의 실수, '찬불가와 율동' 실습, 법등별 주제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68명의 군종병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히 모든 식사가 발우공양으로 진행됐는데 대부분 처음 해보는 것이었지만 열의가 대단했다.

3군 예하 68명 참가
내년 군단별 실시검토

또 이성훈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국장의 '레크리에이션' 실습시간에는 율동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에 참가한 윤회석 병장(기갑여단)은 "연대나 대대급 군종병들은 법사님들의 손길이 자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법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비록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불교에 관한 전반적인 습의 의식들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실질적으로 준비한 무연 이준석 법사(군승단 사회국장)는 "갑작스런 부대의 훈련 때문에 반수 이상이 참가하지 못해 아쉽다"며 "수용시설과 홍보부족으로 만족할만한 교육은 아니었지만 타종교처럼 종단이 관심을 갖고 대규모 수련회를 개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수련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군승단은 이번 수련회 결과를 분석해 대대급 군종병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내년에는 군단별로 수련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ouddhapia.com



◇12일 봉선사 설법전에서 목탁치는 요령, 절하는 법 등을 배우는 군종병들.

군종병이란

군종병은 군종장교를 보조해 법회와 부대위문 등 각종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사병을 말한다. 지난 3월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군단과 사단에 배치돼 국방부 공식 인가를 받은 불교 군종병은 226명으로 집계돼 있지만, 연대나 대대급 군종병까지 합하면 7백여명이 넘는다.

'지리산권 종교인협' 구성 결의

환경회의 참석 50여명
지역중심 생명운동 추진

지리산의 문화와 역사, 생태계 보존에 나서기 위해 지리산권의 종교인들이 하나로 뭉쳤다.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연대'(상임대표 도법스님)와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상임대표 도법스님)이 13일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개최한 제1회 지리산권 종교환경회의에서 50여명의 종교인들은 '지리산권 종교인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지리산과 생명운동' 제하의 주제 강연에 이어 이현주 목사(예수살기 대표)의 '생명운동과 종교는 무엇인가'란 제목의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중심 환경운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공동체적 생명운동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안 스님(산청 금수암), 정진국 신부(하동성당), 정귀원 교무(하동교당), 엄용식 목사(함양 옥동교회) 등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등 지리산을 끼고 있는 9개 시군의 종교인들은 최근 운봉골프장 건설과 케이블카 설치, 지리산 관광순환도로 개설 등으로 지리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시민환경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지리산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중심이 된 '지리산권 종교인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소극적 안락사' 허용 의사협회 지침 제정 종교계 반발 예상

대한의사협회가 회생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윤리지침을 제정, 15일 선포했다. 그러나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안락사에 반대해 온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의협이 제정한 윤리지침에는 소극적 안락사와 함께 낙태·태아 성(性) 감별·대리모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각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은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겠다는 것은 불교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한명우 기자

영주시 문화재 인근
고층아파트 승인 '말썽'

영주시청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가흥동 마애삼존불상(보물 제221호)과 선사시대 암각화(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48호) 인근에 아파트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저촉여부 검토를 소홀히 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높다.

시청은 지난 4월 영주시 가흥동 일대 1만5천468㎡에 15층 2동의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마애삼존불상 및 암각화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

향토사학자들은 "통일신라시대 초기 불교조각양식을 대표하는 마애삼존불상과 선사시대 암각화가 있는 경계구역과 100m쯤 떨어진 곳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청 관계자는 "이미 10년전부터 주변지역이 택지로 조성되었고 주공아파트도 건립되어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포교사고시 25일 시행

조계종 제7회 포교사 고시가 25일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전문 포교인력 선발을 목적으로 한 이번 포교사 고시에는 부산 259명, 서울 221 명 등 모두 711명이 응시했다. 1차 합격자는 12월 26일 발표되며, 1차 합격자에 한해 내년도 상반기 중 실시되는 두 차례 연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02)720-7060

한명우 기자

'21세기 사찰모형 탐구' 경영관리자 과정 개설

불교 아카데미 22~24일

정보화시대 사찰운영의 신경영모델 창출을 위한 조직, 정보, 마케팅의 학습과 활용을 통해 21세기 종교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자 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북악파크호텔에서 사찰주지 및 실·국장스님, 관리자급 종무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21세기 사찰모형 탐구' 제하의 제1기 경영관리자 과정을 개설한다. 마지막 날에는 최종 워크숍을 개최해 21세기 사찰 모형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사형제폐지 포럼' 국회서 개최

정대스님 등 8개국 대표 참석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과 '한국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01 사형폐지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일본의 대표적 사형폐지론자인 야스다 요시히로(安田好弘) 변호사 등 아시아 8개국 대표들이 참석, 각국의 사형제도와 운용실태 등을 발표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운동방향과 연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형을 선고받고 34년간 복역하다 재심을 통해 무죄 석방된 일본인 멘다 사카에(免田榮)씨도 이날 포럼에 참석, 자신의 사례를 들려 줬다.

한국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계 지도자들이 대표로 참석했다. 포럼에서 축사를 한 김 추기경은 참석에 앞서 이만섭 국회의장을 방문,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의 원만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30여개국이 사형을 폐지하는 등 1990년대부터 사형제 폐지 추세가 뚜렷하며, 유럽연합(EU)의 경우 사형폐지를 가맹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형제 폐지는 인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대법원 정화회의 조계종상대 상고 '기각'

"종단안정 기틀마련"

대법원은 13일 정화회의 정영스님 등이 조계종 중앙종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자격상실확인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종단사태관련 소송이 일단락돼 조계종단 안정의 기틀이 마련됐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끝난 것을 계기로 종도의 화합과 종단 안정의 바탕 위에서 안으로 수행 종풍을 진작하고 밖으로 대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며 "종도대중과 국민을 실광시키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화회의는 지난 1998년 12월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와 1999년 11월 제30대 총무원장 선거 시행의 근거가 되는 종법을 개정한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가 합법적이지 않고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격상실확인 소송'을 제기, 1999년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2001년 1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김원우 기자

경불련, 김포에 '외국인 상담소' 연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이 21일 김포시에 16평 규모의 외국인 인권문화센터 상담소를 개설한다.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인권, 의료, 법률 부문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외국인 상담소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하고 10여 대의 컴퓨터를 마련해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외국인 상담소 정진우 간사는 "김포 지역에는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복지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불련의 첫 외국인 상담소인 김포 상담소는 앞으로 한국어 등 언어 강의,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경불련은 생활용품과 컴퓨터 등의 후원물품을 기다린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

참선·단청 실습 '열의'

제2회 외국인수행자 한국문화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9~12일 23개국 34명의 외국인 수행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 유 무형 문화재를 견학하고 체험하는 '제2회 외국인 수행자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한국문화체험은 △이천 도자기 제작 △선암사 불화 단청 그리기 △송광사 참선과 선사와의 대담 △실상사 환경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지애스님(그리스·인터뷰 4면)을 비롯한 외국인 수행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흥미를 이끌어냈다.

외국인 수행자들이 가장 진지하게 체험한 것은 불화단청 실습과 면벽참선 수행. 법전스님(34세, Fa Zhen, 중국)은 "불화 단청 실습을 통해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 모습을 새겼고, 벽면을 마주한 참선수행에서 한국불교의 깊이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12일 모악산 금산사를 방문한 외국인 수행자들은 "우주와 내가 한 몸이라는 동체심을 가져 수행정진하고 이런 진리를 국제사회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포교사의 역할을 해달라"는 월주스님(금산사 조실)의 당부를 들었다.

김철우 기자



◇불화의 밑그림(초)을 그리고 있는 외국인 수행자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天蓮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堂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한마음합창제는 모든 출연자와 관객이 한마음의 도리를 깨달으며 불자로서의 삶을 되돌아 보는 환희와 감동의 시간이었다. 사진은 스님합창단.

사바에 울려퍼진 피안의 노래마당

'심장병 어린이돕기' 한마음선원 합창제 성황

1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어린이(56명)와 어머니(357명), 아버지(193명), 청년(92명), 스님(70명) 합창단까지 총 768명이 모여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한마음선원 합창제 '임의 소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환희와 감동으로 전한 뜻깊은 공연이었다.

"한마음의 근본 따라 오고 감이 전혀 없이 一물 갑이 여여 하게 평등공법 살라하네"라는 선법가를 부르며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 갈 것을 서원하는 합창단 뿐 아니라, 객석의 불자들 또한 그 가르침의 참 뜻을 함께 깨달아가는 공연이었기 때문이다.

이 날 합창제는 심장병 어린이를 돕자는 목적 외에도 한마음선원 전국 15개 지원의 합창단이 모두 모여 한마음선원만의 독자적인 발표회를 갖는 무대이기도 했다. 처음 갖는 큰 행사인 만큼 각오와 준비

15개 합창단 768명 공연

스님도 합창 · 콩트 눈길

도 남달랐다. 6개월 전부터 합창제 준비에 들어가 합창단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연습했다.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 믿었고, 또한 생활 속에서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도 담았기에 합창단뿐 아니라 신도와 대중스님까지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했다.

오후 4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한마음선원 어머니합창단이 등장하며 합창제의 막이 올랐다. 3천 5백석 규모의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3층까지 스님과 불자들로 가득 찼고, 군데군데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해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불자들도 있었다.

어머니합창단에 이어 어린이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졌다. 해맑은 미소와 앙증맞은 율동으로 '공심공체 들 아닌 노래' '아기염소' '새싹들이다' 등을 선사한 어린이합창단은 참석한 모든 불자들에게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야 하는 이유를 온몸으로 이야기



◇절묘한 화음을 선보인 어머니 · 어린이 합창단.

해 주었다.

특히 이번 합창제에서는 여느 합창공연에서 볼 수 없는 스님 합창단이 특별 출연해 시선을 모았다. 한마음선원 대중스님 70명으로 구성된 스님 합창단은 어둠 속에서 목탁을 치며 등장해 '삼세가 들 아닌 노래' '선종관문 알아보세' 등을 불러 세종문화회관을 장엄했다. 마치 중생을 위해 피안(彼岸)의 세계에서 차안(此岸)의 세계로 건너온 보살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순간이었다. 또 엄마와 딸로 분장한 합창단이 등장해 공심(共心) · 공체(共體) · 공생(共生)의 도리를 설명한 '콩트' 도 이색적이었다.

이들 외에도 이날 합창제는 패기와 힘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 청년합창단, 각 지역에서 올라와 쌓인 피로와 긴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지원연합합창단, 서울시 국악관현악단과 어우러진 어머니합창단의 우리민요 한마당, 어머니와 어린이합창단의 절묘한 화음, 아버지 · 어머니 · 청년 혼성 합창단의 공연,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한 한마음연합합창단의 연주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공연이었다. 객석의 불자들도 한곡 한곡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서 응답했고, 마지막에는 앵콜곡 '그리운 금강산'을 함께 부르며 아쉬움을 달랬다.

이렇게 한마음 합창제는 모든 출연자와 관객이 한마음의 도리를 깨달으며, 불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환희와 감동의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은자 기자

11일 한마음선원 합창제에 참석한 월운스님(봉선사 조실)은 "행사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불교위상을 한층 높인 수준 높은 합창제였다"고 소감을 밝혔고, 광우스님도 "한마음합창단의 이번 공연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찾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오후 4시와 7시 2회에 걸친 공연에는 인환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 정락스님(용주사 주지), 일면스님(봉선사 주지), 원택스님(조계종 총무부장), 혜거스님(금강선원 원장), 브광스님(동국대 교수), 지홍스님(조계사 주지), 지광스님(삼선포교원 원장), 진관스님(진관사 주지), 수현스님(종회의원), 경륜스님(종회의원), 이수덕 사장(불교텔레비전), 백창기씨(중앙신도회 회장), 김동흔씨(경불련 운영위원장), 안홍부씨(공무원불자연합회 사무총장), 황남채씨(판화가), 한인옥씨(한나라당 총재 부인), 손학규의원(한나라당), 윤소년씨(민주당 고충처리위 부위원장), 함종한씨(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 이상곤씨(민주당 연등회 사무국장) 등 8천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월운·광우스님등 8000여명 동참

보시금 1억원 복지재단에 전달

이날 현장에서 모금된 보시금은 9천1백여만원에 달했으며, 특별성금까지 합쳐 총 1억원이 모금됐다.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스님은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을 16일 심장병어린이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한국복지재단에 전달했다.(관련기사 4면)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세상사 읊은 '선승의 향기'

한글대장경의 세계

부휴당집



글대장경의 간행목록 번호 71번째에 해당하는 부휴당집(浮休堂集)은 조선시대의 명승 부휴당 선수(善修)선사의 시와 산문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부휴당집 외에 환성대사문집인 환성집, 제월당대사집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부휴당 선수스님은 조선 중종 38년(1543)부터 광해군7년(1615)까지 살았던 선승이다. 선수 스님은 청허당 서산스님과 함께 커다란 가풍을 형성했던 걸승이다. 이 문집은 스님의 사법제자인 벽암각성(碧巖覺性)에 의해 광해군 11년(1619)에 편집 간행되었다.

조선 선수선사 詩 담아

실상 드러낸 선기 물씬

선수 스님은 부용(芙蓉)대사에게서 법을 배웠고 당시 재상이었던 노수진에게 7년간이나 책을 빌려 읽었다고 한다. 이는 선수 스님이 선승으로서의 기개를 갖춘 후 세속의 학문에도 달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스님이 떠나는 분장가로 주옥같은 글을 남길 수 있는 기반을 일찌감치 닦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휴당집은 5권으로 구성 되었는데 1권에서 4권까지는 시이고 5권은 주로 소(疏)로 되어 있고 맨 끝에 여행기인 금강산천투교기가 실렸다. 1권부터 4권까지의 시 부분은 오언절구(1권) 오언율시(2권) 칠언율시(3권) 칠언소시(4권)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칠언소시가 앞의 3가지 시들보다 분량이 많다. 소시는 절구를 말하는 것이니 부휴당의 문집은 시를 위주로 이뤄져 7언절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스님의 시는 선승의 선기가 물씬 풍긴다. 특별한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저 여여한 실상으로서 모두가 말 밖의 선기(禪機)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 세계를 도외시하지 않은 점이 부휴당의 시들이 갖는 특징이다. 임란을 겪는 시대적 아픔과 중생계를 굽어 보는 수행자로서의 안타까움을 여지없이 드러낸 점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백리 모래도 우는 길에 임금 생각에 애가 끊기다(百里鳴沙路 思君獨斷魂)"라든가 "염화의 소식 끊겼다 말하지 마소, 비 개면 산새는 다시 서로 부르리(莫道拈花消息斷 雨餘山鳥更相呼)"라는 대목, 또 "어느 날에 이 흥측한 도적 다 없애고 우리의 길을 산문에 펼치랴(何日掃除兇賊盡 更令吾道振山門)" 등 시편들이 스님의 시적 재능과 선사로서의 기풍, 한 시대 지성인으로서의 비애 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스님이 보여 주는 승속 초월의 단면은 속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정을 승화시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글대장경 모시는 사찰·가정 늘고 있습니다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이룩한 대작불사 한글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법보 한글대장경을 봉안 하는 사찰도 늘고 있으며 가정에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불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사찰이 '1불자 1권 봉안불사'를 추진해 한글대장경을 모셨

"전화 한통화면 봉안불사 O·K"

으며 현재도 이 불사는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1불자 1권 봉안불사
◆대장경 법보시안내
◆화주 권선 안내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 가입으로 한글대



장경 봉안(신도님들이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에 가입하시면 한글대장경은 물론 장경각까지 돈 안들이고 봉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장경각 보급 불사안내 문의
전화 737-8881, 722-4162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 심장병어린이를 돕기 위한 한마음선원 합창제에 동참해주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대중스님들, 교계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사부대중의 뜨거운 자비의 마음은 우주법계의 구석구석으로 올려 퍼질 것입니다.

한창 뛰어 놀아야 할 때 병상에서 가쁜 숨을 토해내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위한 이 행사는 자비실천의 큰 불사로 남아 있을 것이며 불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은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어린 마음에 크나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번 '심장병어린이돕기 한마음선원 합창제'를 위해 후원금을 지원해 주신 각 종단 스님과 불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연장에 자리가 부족해 공연관람을 못하신 불자님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심장병어린이에게 '생명의 빛'을 찾아주기 위하여 노래하는 도반들과 한마음이 되어 끝이 없는 대서원 세워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신도회 일동 합장